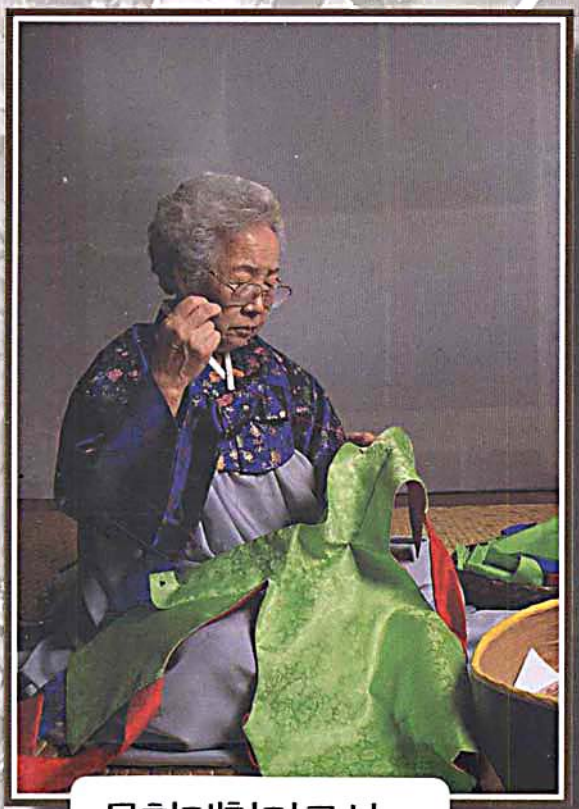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⑨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針線匠



문화재청자료실
EM00297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⑨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 선 장

針 線 匠



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문자 기록이다.
2. 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인 정정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따랐다.

차 례

Ⅰ. 침선(針線)의 역사 ····· 7

1. 바느질의 역사 ····· 7
2. 바느질 도구 ····· 11
3. 몇 가지 바느질법 ····· 30

Ⅱ. 옷짓기 ····· 44

1. 아기옷 ····· 44
2. 혼례복 ····· 108
3. 먼 나들이 옷 ····· 202
4. 남자 박이옷 ····· 228
5. 여자 속옷 ····· 234

Ⅲ. 우리 옷 입기 ····· 248

1. 우리 옷의 특징 ····· 248
2. 남녀 옷 입기 ····· 251
3. 치마 저고리의 배색 ····· 254
4. 명절빔 ····· 256
5. 수의(壽衣) 입히는 법 ····· 258

Ⅳ. 침선장 정정완 ····· 259

1. 침선장 보유자 정정완(鄭貞婉)의 한평생 ····· 259
2. 정정완 선생 바느질의 특징 ····· 267
3. 침선장의 전수 현황 ····· 270

머 리 말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은 침선장(針線匠) 보유자로 인정된 정정완(鄭貞婉)의 우리 옷 만들기를 중심으로 침선의 역사와 그의 생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예절(禮節)을 숭상하던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는 것에서부터 예(禮)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바느질은 여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졌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혼례복 같은 특수한 옷들은 가정에서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 침선장이라는 장인(匠人)에게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침선장은 혼자 디자이너·재단사·패턴사 겸 재봉사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야무진 솜씨와 천성적인 미의식·색감 등을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 1900년대 들어와 재봉틀이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바느질 방법은 변화하여 마침내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느질 담당자였던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침선 기법의 맥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 바느질 기법이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1988년 정정완이 침선장(針線匠)으로 인정되어 우리 고유의 옷 만드는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 침선장 정정완은 전통 선비 집안의 옷 짓는 법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의 바느질은 꼼꼼하고 튼튼하며 앞뒤 도련과 배래·버선 등 선(線)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또한 전통 한복

의 색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의 옷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듯 정정완이 계승한 전통 옷짓기 방법은 이제 그가 가르친 많은 제자들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전승·발전되어 나아갈 것이다.

한국 전통 문화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 책은 사진을 중심으로 도면·그림을 곁들였다. 또한 지정 당시의 보고서를 뛰어넘어 보다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자가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과 중요무형문화재의 연구 및 전수 교육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998년 6월

Ⅰ. 침선(針線)의 역사

1. 바느질의 역사

바느질은 인류의 생활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인류가 최초로 의복을 몸에 걸치기 시작하였을 시기에는 자연 상태에서 짐승의 가죽이나 털, 식물의 껍질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바느질해 입었을 것이다. 그러다 점차 꿰매는 도구인 바늘과 실을 갖추게 되면서 바느질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바느질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의복 재료로 직물이 생긴 뒤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느질 관련 유물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바늘과 가락바퀴[紡錘車]이다. 그리고 2600년 이전의 유물로 추정되는 직물의 파편과 실이 꿰어진 바늘이 발굴되어 그 이전부터 바느질이 행해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가락바퀴[紡錘車], 신석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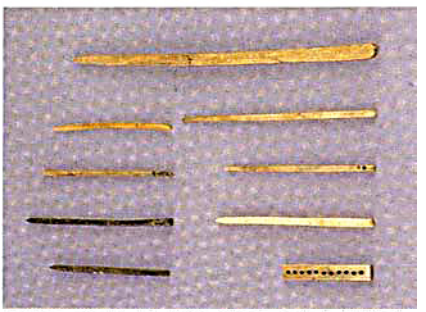


사진 2. 뼈바늘[骨針]과 각종 골각기, 신석기시대,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예의를 숭상하는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는 것에서부터 예(禮)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인들에게 바느질은 부덕·용모·말·길쌈과 더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졌다.

옷을 지을 때는 바늘 한땀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때를 가려서 옷마르기 좋은 날·피해야 하는 날을 정해 두었고, 또 동짓날의 양기를 받으면 유익하다고 하여 동짓날 시어른의 버선을 지어 그 양기를 밟게 하기도 했다. 바느질 할 때도 옷에 때가 묻거나 일하던 중간에 도구나 재료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했다. 그래서 바느질 한땀 한땀에는 여인의 정성과 사랑, 소망이 깃들여 있었다.



사진 3. 『규합총서』 (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809년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가정 살림 전반에 관한 책으로, 봉입측(縫入側)에 옷 만드는 법·물들이는 법·길쌈·수놓기·누에치기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진 4. 바느질, 조영석(1686~1761), 『사제첩』의 일부, 개인 소장

대부분 가정에서 옷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왕실과 사대부를 비롯한 특수층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 의복 제작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씨가 뛰어난 장인을 관장(官匠) 또는 사장(私匠)의 형태로 고용하여 조달하였다. 또한 서민층의 옷이라 하더라도 평상복이 아닌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에 필요한 특수복은 솜씨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에는 10명의 침선장이 공조(工曺)에 소속되어 있었고, 외공장(外工匠)에도 2개 소에 64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옷을 만드는 일은 바느질 기술은 물론 여러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복잡한 작

업이다. 실을 만드는 제사장(制絲匠), 실이나 천에 물을 들이는 청염장(靑染匠)·홍염장(紅染匠), 옷감을 짜는 직조장(織造匠)·능라장(綾羅匠), 천을 다듬고 손질하는 도련장(擣練匠), 옷감을 재단하는 재작장(裁作匠), 금박(金箔)이나 자수(刺繡) 등 무늬를 놓는 금박장(金箔匠)·자수장(刺繡匠) 등 여러 장인의 협업(協業)에 의해서 옷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옷의 맵시나 품위, 효용성 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장인은 바느질을 직접 담당하는 침선장(針線匠)이다. 궁중에서는 왕실 복식의 조달을 전담하던 상의원(尙衣院)의 경공장 가운데 8명의 침선장을 분속시켜 각종 궁중 복식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일손은 기녀의 신분인 침선비(針線婢)로 하여금 거들도록 하였다.

바느질을 담당하였던 침선장들은 옷감을 장만할 때 춘하추동 어느 때 입을 옷인지, 옷 임자의 나이와 신분은 어떠한지, 일상 옷인지 나들이 옷인지, 현재의 유행은 어떠하며 옷 임자의 성품은 어떠한지, 어디에서 난 물건이 좋은지, 옷감은 얼마나 들며 물건에는 흠이 없는지, 빛깔이 변하는지, 줄지나 않는지, 안감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심사숙고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침선장은 혼자 힘으로 디자이너·재단사·패턴사 겸 재봉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기에 야무진 솜씨와 천성적인 미의식·색감 등이 갖추어져야만 침선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들어와 재봉틀의 등장으로 그때까지 수공(手工)으로 유지되어 온 바느질은 변화하여 마침내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 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느질 담당자였던 여성들이 일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전통 침선 기법의 맥이 끊어지는 위기를 낳기도 했다.

2. 바느질 도구

바느질은 여인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범절이였기에, 바느질에 소용되는 도구는 정성스럽고 귀중하게 간직되어 왔다. 부러진 하찮은 바늘을 보고 애통하여 지었다는 <조침문(弔針文)>이나, 규중칠우(閨中七友)라 하여 바늘·실·자·가위·다리미·골무 등을 의인화(擬人化)해 서로의 재주를 찬양하는 소설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등에서도 바느질 도구에 대한 여인들의 알뜰한 정감과 애틋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사진 5 . 다림질, 신윤복, 개인 소장

바느질 도구는 크게 재봉 도구와 정리 도구로 나눌 수 있다. 재봉 도구는 옷감을 마름질해서 꿰매어 일정한 형태를 완성시키는데 소용되는 일체의 도구로, 자·누비 밀대·바늘·골무·가위·인두·다리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리 도구는 자질구레한 재봉 도구를 넣어 둘 수 있는 반짇고리를 비롯하여 바늘과 실을 정리할 수 있는 바늘집·바늘쌈·바늘꽂이 및 실첩과 각종 실패 등을 말한다.

1) 재봉 도구

(1) 바늘[針]

바늘은 규중칠우(閨中七友)로 일컬어지는 7가지 바느질 도구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게 취급되었던 애중품이었다. 옷을 지으려면 자로 재고 가위로 잘라 바늘로 일일이 꿰매야만 비로소 완성품이 되는데, 이때 바늘로 꿰매는 일이 가장 더디고 또 공을 많이 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바늘은 굵기에 따라 고운 바늘·중바늘·굵은 바늘로 나누어 사용한다. 고운 바늘은 명주나 비단 등과 같이 올이 가는 천으로 옷을 지을 때 사용하거나, 깃·섶 등과 같이 섬세한 부분을 꿰매는데 사용하였다. 고운 바늘보다 약간 굵은 중바늘은 목면이나 베 등과 같이 올이 굵은 옷감으로 옷을 지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굵



사진 6. 바늘집(左)과 바늘통,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은 바늘은 옷을 지을 때보다는 이불을 꿰맬 때 많이 쓰였는데, 바늘이 큰만큼 바늘귀도 커서 대개는 실을 겹으로 꿰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연침이라 하여 말총을 꿰어 관을 만들 때 사용하였던 바늘이 있었다.

보통 바늘은 24개를 종이로 납작하게 싸서 파는데 이를 '한 쌈'이라고 하며, 호도껍질 사른 재에 바늘을 묻혀두면 몇 해를 두어도 녹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2) 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무명실을 주로 사용하였다. 보통 바느질용으로 쓰인 무명실은 이합사(二合絲)였고, 이불을 시칠 때나 튼튼하게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삼합사(三合絲)를 사용하였다.

고운 바느질을 할 때는 당사(唐絲)라고 하여 꼬아서 곱게 만든 실을 썼고, 비단천을 이용하는 바느질에는 반드시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색깔 옷을 지을 때는 옷감의 색에 따라 색실을 사용하였고, 옷감의 종류에 따라 실의 종류를 달리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사진 7. 실, 고려시대(1302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3) 자[尺]

자는 옷감을 마르기에 앞서 치수를 재던 도구로, 재료에 따라 화려한 장식을 한 것으로 화각척(華角尺)과 나전칠척, 화류척이 있다. 화각척(華角尺)은 쇠뿔의 맑은 부분을 펴서 투명한 종잇장처럼 깎은 뒤 오채(五彩)의 그림이나 화판에 도식화한 문양을 그려 넣어 나무 위에 부착시켜 화려하게 꾸민 자다. 나전칠척은 나무로 된 자에 옻칠하고 진주광이 나는 자개 조각으로 매화문·죽문·원앙문 등을 박아 붙인 것이고, 화류척은 붉은 빛을 띤 결이 곱고 단단한 자단으로 만든 것으로 비단을 재는데 주로 쓰였다.

반면 꾸밈이 없이 소박하게 만들어졌던 목척(木尺)이나 죽척(竹尺)은 무명옷을 주로 입었던 서민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목척에는 금을 새기거나 작은 못을 박았으며, 나전칠척에는 나전상감을 하였고, 화류척에는 촌(寸)마다 각기 다른 색을 칠하여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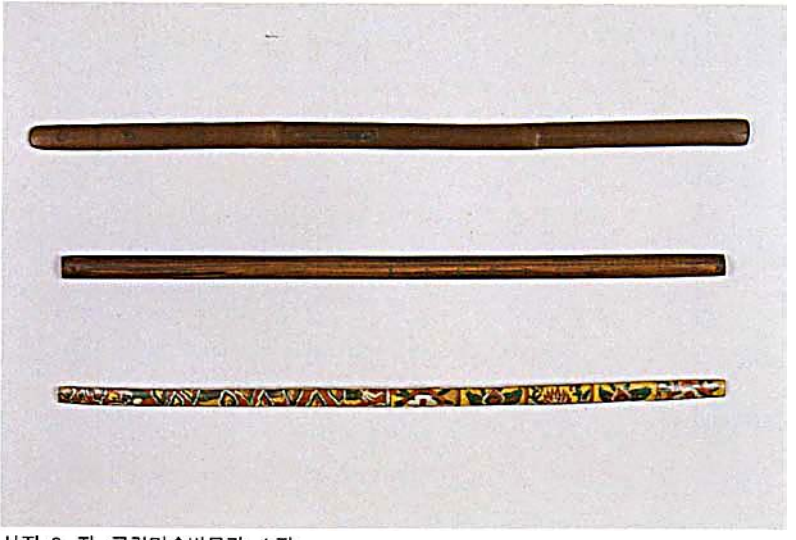


사진 8. 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4) 가위[鋏]

가위도 바느질 도구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로 『규합총서』에 "거여목 뿌리 가루에 묻었다가 옷을 마르면 먹줄친 듯하여 꺾지 않아도 저절로 간다"라는 기록이 있다.

가위의 재료는 대개 무쇠와 백동으로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가윗날은 무쇠·손잡이 부분은 백동으로 하여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도 있다. 또한 멋을 부려 가위에 채색을 하기도 했다.



사진 9. 가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 인두

아도(砑刀)라고도 한다. 바느질할 선이 풀어지지 않도록 꺾어 눌러 줌으로써 손쉽게 바느질을 하도록 도와주던 도구이다. 옷깃이나 동정 등 다리미로는 손질하기 힘든 의복의 세부를 다리는데도 사용되었다. 다리미의 기능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10. 인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인두질할 때는 인두판과 화로(火爐)가 있어야 한다. 인두판은 인두질을 할 때 양 무릎 위에 걸쳐놓고 받침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두판을 만들 때는 송판에다 솜을 넣고 옥양목이나 비단 등의 헝겊을 씌워서 길이 60~64cm×너비 17~20cm×두께 2cm 크기로 만들었다. 겉에 씌우는 헝겊은 자주 빨아서 사용해야 했으므로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았으나, 혼수품일 경우에는 수를 놓기도 하였다.



사진 11. 인두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12. 화로, 구혜자 소장

(6) 다리미

옷이나 피륙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데 사용되는 기구로 한자어로는 울두(熨斗) 또는 화두(火斗)라고 한다.

다리미의 사용법은 대접처럼 생긴 다리미 속에 숯불을 담아 한 사람이 빨래의 양끝을 잡고, 맞은 편에 앉은 다른 한 사람이 역시 한 손으로 빨래 끝을 잡고 한 손으로는 다리미를 들고 아래위로 문지르며 주름살을 펴 주었다. 그 뒤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밑바닥을 전기열로 데우는 전기 다리미를 쓰게 되었다.



사진 13. 다리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14. 다리미와 인두, 구혜자 소장

(7) 골무

바늘을 눌러 밀기 위해 둘째손가락 끝에 끼우는 것으로, 손끝이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이다. 무늬있는 헝겊·색비단·가죽 등을 재료로 부녀자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골무는 『규중칠우쟁론기』에 감투 할미로 묘사될 만큼 규중 부인들의 총애를 받았으며, 바늘·자·가위·인두 등과 함께 침선의 필수품이었다. 예전에는 혼례 직전에 대개 4~5죽을 만들어 시집가서 이웃 아낙들이 혼수 구경을 오면 바늘과 함께 골무를 선물로 주었고, 또 인사차 골무를 돌려 신부의 솜씨를 인정받는 풍속이 있었다.

이밖에 노인들이 중풍 등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손가락 운동을 위하여 실생활의 필요와 상관없이 만들기도 하였다.



사진 15. 골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16. 골무 상자, 개인 소장

(8) 누비 밀대

누비 밀대는 누비를 할 때 쓰던 도구이다. 누비란 안팎을 맞춘 옷감 사이에 솜이나 창호지를 심으로 넣고 2~3올씩 떠서 줄이 죽죽 지도록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일종의 홈질이다. 누비의 종류로는 잔누비·오목 누비·납작 누비가 있다.

누비를 할 때는 안팎이 쉽게 밀릴 뿐 아니라 줄과 줄 사이의 폭이 일정치 않거나 줄의 선이 삐뚤어지기 마련이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누비 밀대를 사용했다.

누비 밀대의 형태는 직경 1~5cm, 길이 20cm 정도의 나무로 된 둥근 막대이다. 자와 마찬가지로 나전칠을 하거나 화각을 입혔으며, 굵기가 일정한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들어 마디마디 문양을 낙죽(烙竹)하기도 했다. 이중 화려한 나전 밀대나 화각 밀대는 궁중을 비롯한 반가의 규수들이 주로 사용하였고, 소박한 나무 밀대는 서민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사진17. 누비 밀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9) 버선코 뒤집게

버선코를 뾰족하게 올릴 때 사용하던 도구이다. 버선코를 올리기에 편리하도록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 겉면에는 새·꽃 등의 무늬가 찍혀 있는 것도 있으며 길이는 33cm 정도이다.



사진 18. 버선코 뒤집게,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0) 기타

바느질과 관련된 도구로는 이외에도 선 긋는 도구, 수틀과 수본, 그리고 버선본이 있다.

선 긋는 도구는 오늘날 구두 주걱과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옷감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하던 도구이다. 선을 잘 그을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었으며, 크기는 12~18cm 정도이다.

수틀은 수를 놓기에 편하도록 천을 팽팽히 당겨 주던 도구인데, 평안도 안주 지방에서 쓰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유행을 이루게 된 것이다. 수본 또한 수를 놓을 때 쓰던 것으로, 배갯모처럼 많이 쓰이는 자수 무늬를 나무에 새겨 놓았다가 천에 도장 찍듯 무늬를 찍어 넣어 주던 도구이다.

버선본은 버선을 만들 때 본보기로 쓰기 위하여 종이로 만든 것이다. 한여름에도 버선을 신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 풍속이었던 것만큼 버선본은 빼놓을 수 없는 바느질 용구의 하나였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는 이 버선본을 담아 두던 버선 본집을 수를 놓아 정성들여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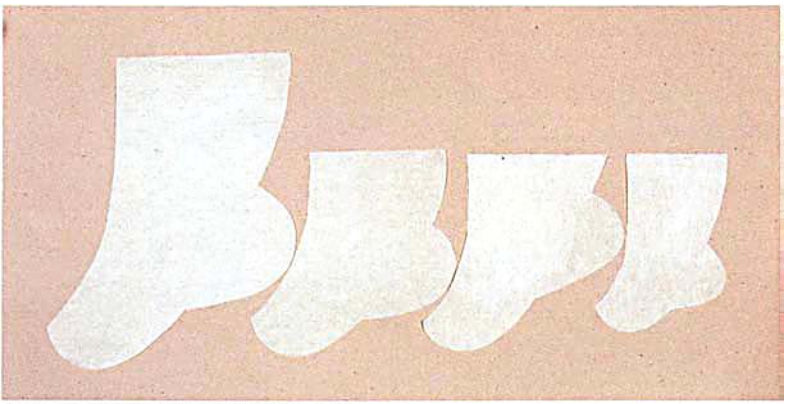


사진 19. 버선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20. 버선본과 버선 본집,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정리 도구

(1) 반짇고리

바늘·실패·골무·가위 등 자질구레한 바느질 도구를 담았던 그릇으로 나무·종이·버들·대·싸리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오동나무·대추나무·단풍나무 등 나무를 재료로 한 반짇고리는 만든 뒤에 주칠 또는 흑칠을 하여 자개를 박아 장식하기도 했다. 형태는 육각·팔각·십각·원형 등이고, 내부는 칸막이가 있어 실·바늘꽂이·골무 등 작은 바느질 도구를 나누어 담도록 되어 있다.

종이로 만든 것은 두껍고 질긴 종이를 배접하여 원형·방형·팔각형 등의 형태로 만들었다. 표면에는 만(卍)자문·모란문·희(囍)자문·길상(吉祥)문 등을 오려 붙이고, 내부는 백지나 단색지를 바른 뒤 색지를 붙인 작은 목판으로 칸막이를 하였다. 이러한 반짇고리는 서민들 사이에 혼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



사진 21. 사각 나무 반짇고리, 구혜자 소장





사진 22-①② 팔각 종이 반짇고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2) 실패

실을 감아 두는 작은 나무쪽이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나뭇조각·동물의 뼈 등에 실을 감아 놓고 쓰다가 차츰 장식화하였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화각 장식, 자개 박은 나전칠기 등 화려한 무늬가 있는 실패와 투박하고 장식이 없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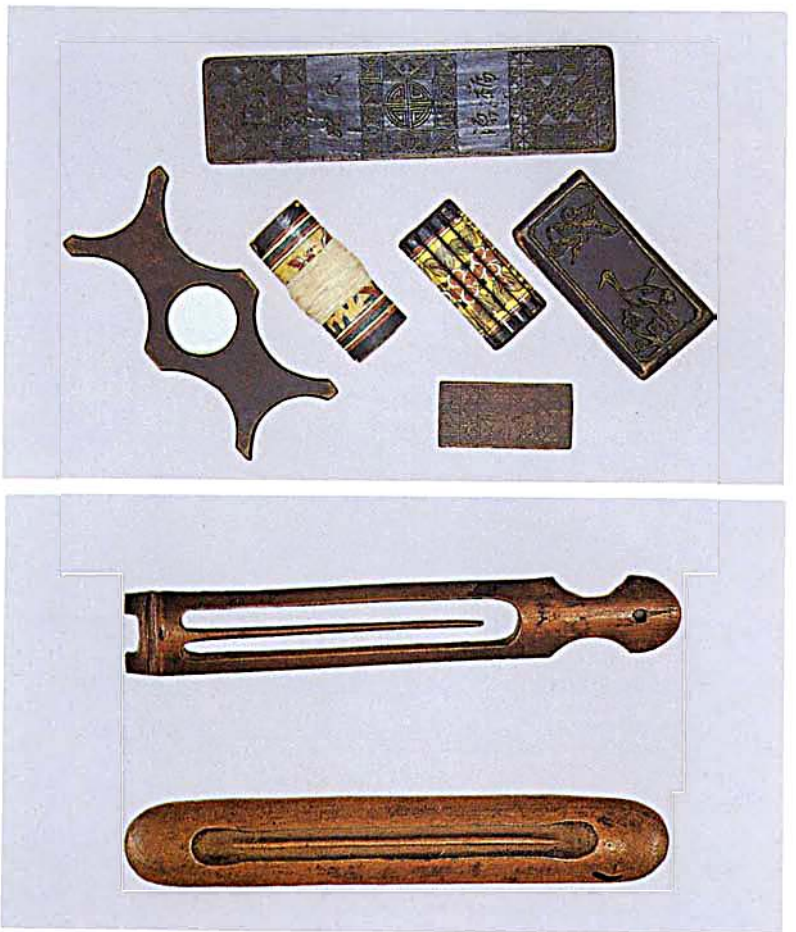


사진 23-①② 실패,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3) 실 그릇

여러 가지 색의 실을 넣어 두던 것으로 종이를 여러 겹 배접하여 만든 실상자, 책처럼 만든 실첩, 버들로 엮은 실고리 등이 있다.

실상자는 아래 좌우에 2개의 서랍이 있고, 위에 16개의 사각형으로 구획되어 2개씩 짝을 지어 세우면 하나의 실갑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바닥에서부터 층층이 접어 올려 그 안에 각각의 색실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실첩은 겉면에 박쥐·나비·나뭇잎 등의 문양을 색지로 오려 붙이고, 내부의 구획된 사각형에도 각종 문양을 오색지로 오려 붙여 만들었다.

실고리는 크기가 약간 작을 뿐 반짇고리용 버들고리와 같은 모양이다. 그러나 반짇고리용 버들고리처럼 원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실올이 걸릴 우려가 있었으므로, 대개 내부에 비단을 씌우거나 문양이 그려진 얇은 종이를 발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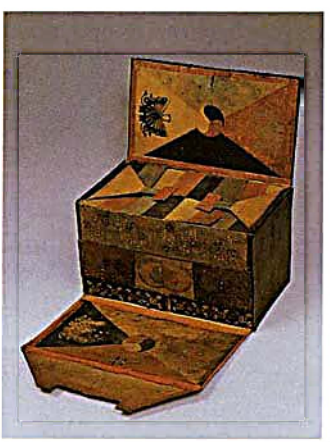




사진 24-①② 실상자[실함], 개인 소장



사진 25. 실첩, 개인 소장

(4) 바늘집 · 바늘꽂이

바늘은 바느질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도구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을 함부로 굴릴 경우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준다. 그래서 "바늘을 옷깃에 꽂지 말라. 젖먹는 아기가 찔릴까 두렵다" "바늘을 벽에 꽂으면 남편이 병든다"고 하여 바늘 보관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바늘 보관 용구가 다양하게 발달하여 바늘집 · 바늘꽂이 · 바늘쌈 등이 있었다.

바늘집은 단순한 바느질 용구뿐만 아니라 노리개로 차기도 해 일종의 장신구 역할을 겸했으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과 헝겊에 수를 놓아 만든 두가지 종류가 있다. 금속 바늘집은 당초문 · 화판문을 선각하거나 칠보 세공을 하고, 침통 밑에도 매듭이나 술을 달아 장식을 하기도 했다.

헝겊으로 만들어진 바늘집은 여아(女兒) 나이 7~8세가 되면 바늘 쥐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만들어 차게 하였다. 헝겊으로 바늘집을 만들 때는 백지나 헝겊을 배접한 위에 각종 꽃문양을 수놓은 비단을 붙여 취향에 따라 궤불형 · 주머니형 · 장방형 등으로 만들어 술과 구슬로 장식을 하였다.

바늘꽂이는 바늘을 꽂아 두는 물건으로 바늘방석이라고도 한다. 가정에서 작은 헝겊을 모아 두었다가 만들어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다. 작은 것은 반짇고리 속에 넣거나 인두판에 매달아 놓고 쓰기도 했고, 수저집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벽에 걸어 장식하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신부가 혼수품으로 손수 만들어 시댁에 들어가 솜씨를 보이기도 하고,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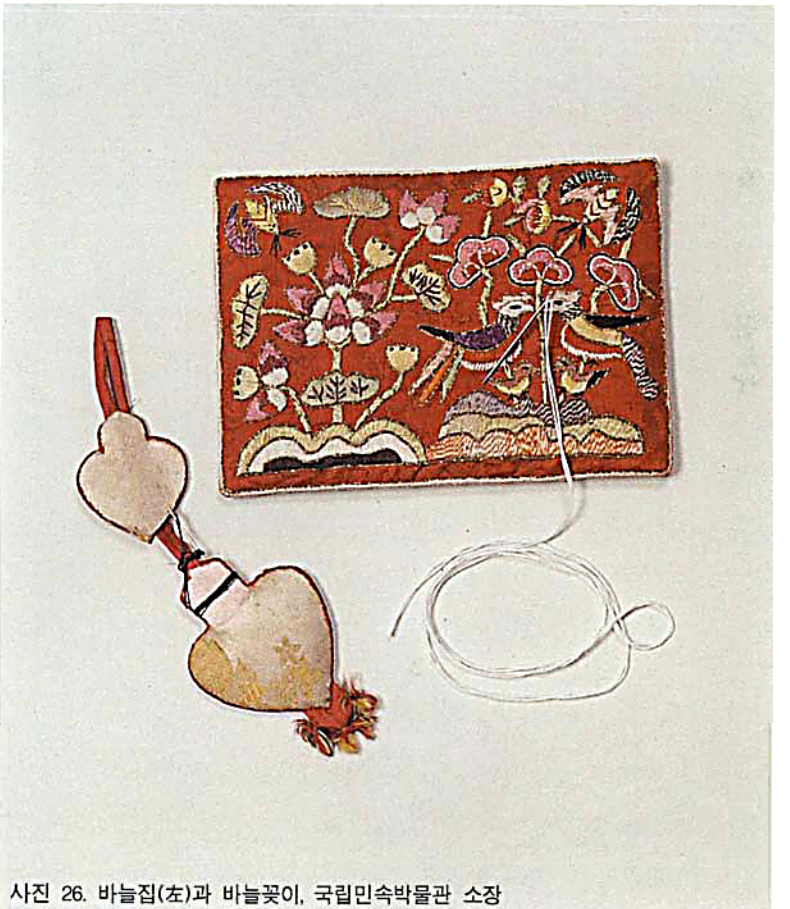


사진 26. 바늘집(左)과 바늘꽂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3. 몇 가지 바느질법

바느질은 의복 재료가 인체에 착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바느질의 요소는 바느질의 대상물인 옷감·실·세부 장식품 등의 재료, 재료를 사용하여 바느질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재봉물을 만들어 내는 바느질 담당자, 바느질된 의복을 착용할 착용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는 바느질의 방법이나 효과를 표현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각 민족간의 전통성이나 고유성을 띠게 한다. 그러므로 의복 구성의 근간은 바로 바느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우리 옷 바느질의 특성

우리 옷은 남자의 경우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 위에 긴 덧옷인 포(袍)를 입고 관모를 쓰는 것이 기본형이다. 이러한 복식은 북방 계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시대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상하 분할형(上下分割形)의 기본 양식은 변하지 않은 채 계승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옷의 바느질은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을 지녔다. 첫째, 상하의(上下衣)를 따로 재단하여 바느질한다는 점이다. 이때 북방 호복(胡服) 계통의 영향을 받아 소매통과 바지의 통을 좁게 만들어 한랭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모든 옷이 평면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입체인 몸에 평면의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의복이 일반적으로 넓고 여유가 있으며, 또한 인체의 굴곡에 따라 선은 거의 다 주름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정교하고 세밀한 손바느질이 발달하였다. 특히 겨울용 의복에는 솜을 두고 누비는 누비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겨울 누비옷은 섬세하고 치밀한 바느질의 아름



사진 27. 고구려 고분벽화의 남자는 바지·저고리 위에 포(袍)를 입고 관모를 쓴 양식을 취하였다.



사진 28. 토우(土偶) 여인상은 치마·저고리 위에 긴 덧옷인 포(袍)를 입고 관모를 쓰고 있다.

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넷째, 저고리나 포의 진동선 및 겨드랑이 부분 등 심한 동작을 받는 곳은 어깨선이 직선이고 의복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삼각형의 조그마한 천을 대어 굴곡선을 처리하였다. 속바지의 바지 밑이나 옆터짐의 바느질법도 매우 정밀하여, 홑적삼에 부착하는 단추 고리나 매듭 단추는 헝겊을 말아서 끈으로 만들어 엮는 방법으로 튼튼하면서도 모양새가 좋도록 하였다.



사진 29. 매듭 단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다섯째, 우리 옷은 대체로 소매가 길어 손등을 거의 가릴 정도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포는 대부분 소매가 긴데, 이것은 고려시대 여름에 부채질할 때도 손톱이 보이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또한 여자의 치마는 폭이 넓고 속에 받쳐입는 속옷도 많아 전체적으로 넓고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 낸다.

여섯째, 선을 댄 의복의 경우 귀의 처리는 반드시 대각선 처리를 한다. 조복(朝服) 등 표의(表衣)의 장식선 처리에서부터 누비 저고리

의 안단이나 누비 치마, 누비 포의 안단, 원삼의 안단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른 단을 댈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다. 그것은 모서리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편에 고루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통 복식 바느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련과 깃이었다. 두 곳의 바느질 솜씨에 따라 옷맵시가 좌우되었으므로 부녀자들은 이 부분에 특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사진 30. 고려 고분벽화의 복식은 소매가 길어 손등을 거의 가릴 정도다.

2) 우리 옷 재단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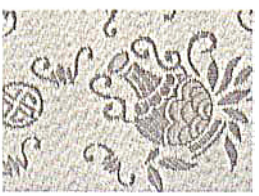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의복의 재단 방법은 입체 재단과 평면 재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입체 재단은 몸의 곡선을 따라 마름질하여 몸매에 꼭 맞도록 옷을 만드는 것으로 양복이 이에 속한다. 평면 재단은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기보다는 옷감을 직선으로 재단하여 이것을 인체에 맞추어 곡선으로 바느질한 우리의 전통 복식 재단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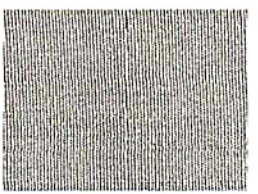
한복은 평면적인 옷감을 직선으로 재단하여 이것을 다시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 부분을 주름잡거나 끈으로 고정하여 미적 감각을 살린다. 따라서 전통 복식은 자연히 많은 여분을 두고 마름질을 하게 되므로 쉽게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단은 미적인 면 이외에도 계층 및 신분 표시의 기능, 도덕적인 기능, 생리적인 기능 등을 고려한 재단 방법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옷감에 많은 여분을 두고 마름질하여 바느질할 때 인체의 변화와 의복이 해어지거나 세탁 후 옷감이 줄었을 때를 대비하여 시접을 충분히 두고 바느질을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 즉 옷의 품을 조절하고 겨드랑이 밑이 해어졌을 때 등솔 선의 여분으로 꿰맬 수 있도록 옷의 중심이 되는 등솔기에 많은 여분을 두고 마름질을 하여 바느질을 했다. 또한 어깨선에 여유분을 두어 재단했는데, 이것은 옷의 길이 조절을 가능케 하고 도련이 해어졌을 때를 대비한 풍속에서 나온 바느질 방식이었다. 그런가 하면 소매 너비에 여분을 접어 넣어 두거나 배래에 바대를 덧대어 바느질을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전통 복식의 바느질은 재창조 및 재생을 고려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옷감은 계절과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봄과 가을철에는 면직물, 다듬질한 모시와 같은 마직물, 자미사 · 숙고사 ·

진주사 · 갑사 · 국사 · 관사 · 숙항라 · 부사견 · 호박단 등의 견직물이 이용된다. 여름 옷감으로는 면직물 · 삼베 · 모시 · 생모시 · 삼베 등의 마직물, 은조사 · 생고사 · 생노방 · 생명주 · 생항라 · 갑사 · 관사 같은 견직물이 등이 있으며, 사직으로 짠 색동은 어린이와 젊은이의 옷에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겨울에는 무명 · 옥양목 등의 면직물과, 공단 · 양단 · 법단 · 구단 · 능견 · 명주 · 비로드 등 견직물과 모직물 등이 쓰이며, 수자직으로 짠 색동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방한용으로 솜을 두거나 부분적으로 털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단


명주


갑사


생고사


자미사


숙고사


항라


노방


안동포

사진 31. 옷감의 종류

안감은 겉옷의 재질과 색상·형태 등을 살려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선택이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두꺼운 겉감에는 가볍고 얇으며 포근한 느낌을 주는 안감을 사용하며, 색은 겉감보다 연한 동색 계열로 하거나 보색을 많이 댄다. 얇고 비치는 겉감에는 되도록 질감이나 조직이 같은 안감을 선택하며, 겉감의 문양과 색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색이 있는 안감으로 배색하기도 한다.

3) 기초 바느질법

바느질 기법은 감침질·홈질·박음질·상침뜨기·휘감치기·사뜨기·시침질·공그르기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음새나 옷의 종류, 위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옷감은 여름에는 홑으로, 봄·가을에는 겹으로, 겨울에는 밀도 높은 비단을 사용하되 안팎 사이에 솜을 두어 보온 효과를 높였다. 그에 따라 바느질도 홑바느질·겹바느질·누비바느질로 나뉜다.

홈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헝겊을 겹으로 해서 일정한 잔간격으로 고루 앞으로 꿰매는 바느질법이다. 직물의 상하를 땀이 고르게 뜨는 방법으로 누비 의복의 경우에는 주로 홈질로 누빈다. 홈질할 때 옷감은 두 겹으로 겹쳐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는 바늘을 잡아, 바늘로 3~4땀을 떠서 홈질한 다음 옷감을 뒤로 밀면서 바늘은 앞으로 밀어 다시 3~4땀을 뜬다. 박이옷을 제외한 겹옷·홑옷의 모든 솔기와 치마폭 잇기에 널리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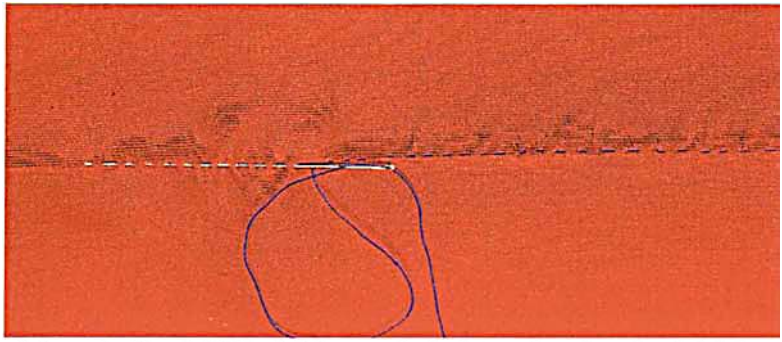


사진 32. 홈질은 박이옷을 제외한 모든 옷에 널리 쓰이는 기초 바느질법이다.

감침질은 헝겊 양쪽에서 한 올씩 마주 떠가는 바느질법이다. 직물의 양끝이나 옷의 단에서 꺾어진 곳을 튼튼히 꿰맬 때 쓰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꺾은 두 솔을 똑같이 잡고 두 올 건너 한 올씩 떠서 바늘을 곧게 세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실밥이 어슷하게 나타난다. 둘째는 적삼의 단 같은 곳에 주로 하는 방법으로 뒤는 한 올씩 뜨고, 앞은 깊이 자주 뜰수록 곱다. 우리 옷에서 홈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버선볼을 기울 때나 고운 모시 보자기 가장자리를 이 방법으로 꿰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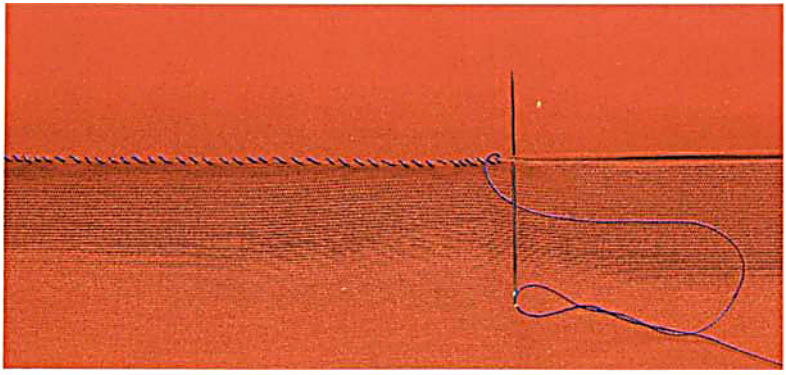


사진 33. 감침질은 홈질 다음으로 많이 쓰인다.



사진 34-① 공그르기는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장식선을 댄 옷에 처리법으로 쓰인다.

공그르기는 단을 두 번 꿰어 접은 다음 실밥이 나오지 않도록 단으로 스며 뜨고 겉은 한 올씩 뜨는 바느질법이다. 겉과 안이 모두 바느질 땀이 적게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대개 장식선을 댄 의복에서 밑선의 처리로 이 방법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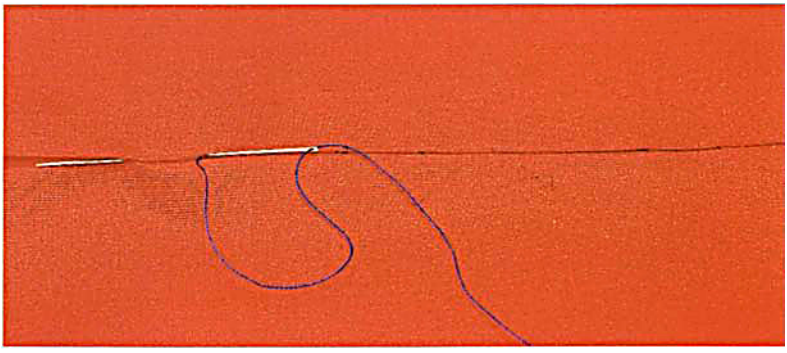


사진 34-② 공그르기

시침질은 두 장의 직물을 고정시킬 때나 단을 접을 때, 공그르기를 할 때 사용한다. 옷을 지은 후에 안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마름질할 때 밀리지 않도록 시치는 것으로 대개 바늘 길이 만큼씩 뜨면 알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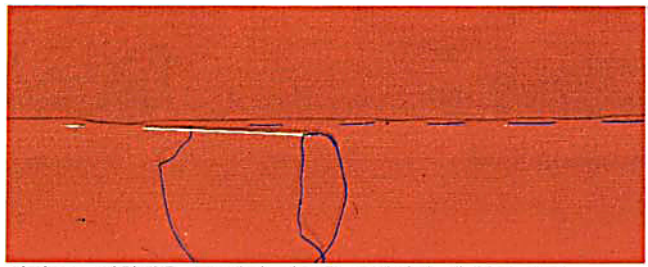


사진 35. 시침질은 두 장의 직물을 고정시킬 때 주로 쓴다.

박음질은 앞으로만 나가는 홈질과는 달리, 한 땀 뜬 뒤 먼저 바늘이 들어간 데로 되돌아 나오도록 한 땀씩 되돌아가며 꿰맨다. 바늘땀으로 장식을 한다거나 의복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온박음질과 반박음질이 있다. 온 박음질은 뒷땀을 뜨되 바늘을 맨 밑을 또 뜨는 것으로, 겉자락이 졸아들지 않도록 안팎 두 겹을 꼭 쥐고 바늘을 충분히 내밀어 올이 바르게 꿰매야 한다. 반박음질은 뒷땀을 뜨되 앞에 뜬 땀의 반만 뜨는 것으로 겉은 홈질과 같아 보인다. 모시, 베, 무명 등으로 옷을 지을 때 이 방법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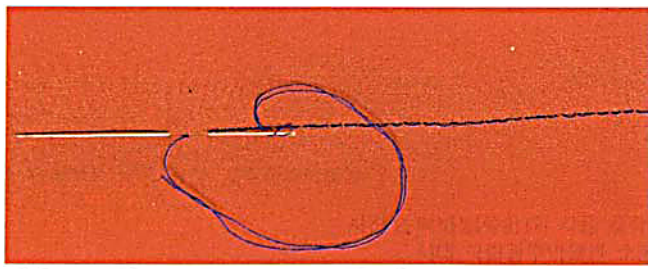


사진 36. 박음질은 바늘땀으로 장식을 하는 곳에 많이 쓰인다.

상침질은 방석이나 보료·보자기 귀 등에 장식을 겸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겉에서 바느질을 하며 방법은 박음질과 같으나 모양이 다르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삼상침은 박음질을 세 번하고, 5~10mm 사이를 두고 또 박음질하는 방법이고, 두상침은 두 땀을 박음질해 5~10mm 사이를 두고 또 두 땀을 박음질하는 것이다. 대개 보료, 방석, 겹보자기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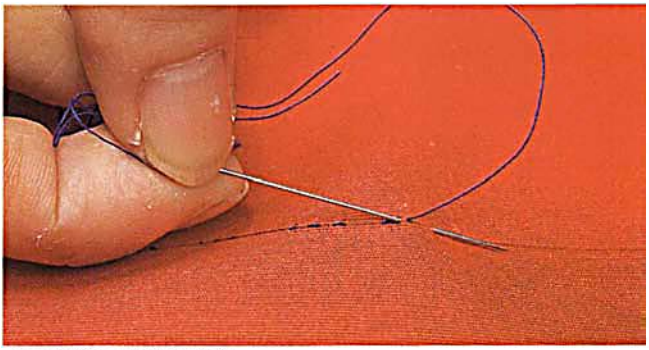


사진 37-① 세땀 상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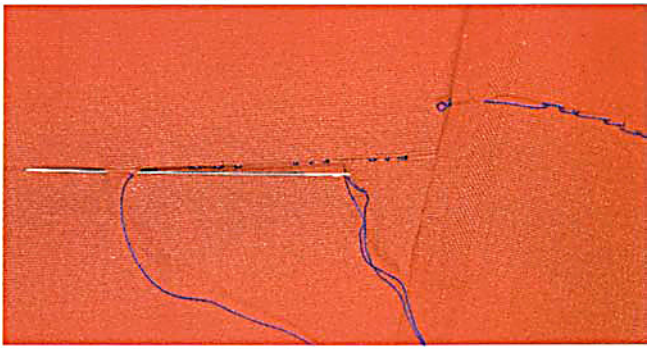


사진 37-② 상침질은 장식을 겸해서 사용한다.

사뜨기는 양끝이 마무리 된 것을 합칠 때 쓰는 방법으로, 머리 딴 것처럼 양쪽으로 어긋매겨 비스듬히 떠 감는다. 골무나 노리개, 타래버선 등 빳빳하거나 두꺼운 면에 주로 사용하여 장식 효과를 낸다.



사진 38. 사뜨기는 두꺼운 면에 주로 사용하여 장식 효과를 낸다.

휘감치기는 비단 등 올이 풀리기 쉬운 감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성글게 감치는 방법이다. 1~1.5cm 정도의 간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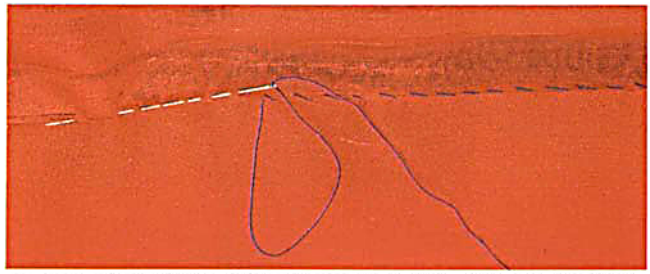


사진 39. 휘감치기(앞) 올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바느질법이다.

새발뜨기는 옷단이나 도련 등 단을 꺾어 접었을 때 밑의 직물에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느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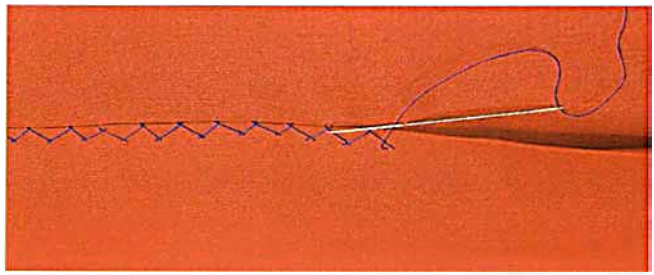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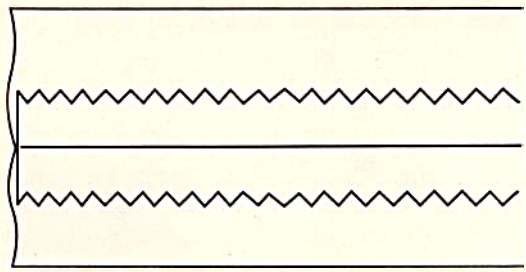
사진 40. 새발뜨기는 단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4) 솔기 바느질

솔기를 처리하는데는 원칙이 있다. 첫째, 앞과 뒤의 솔기는 시접을 뒤로 넘기는데, 어깨와 배래의 솔기가 그렇다. 둘째, 위와 아래 솔기가 만났을 때는 위로 접어 올리며, 남자 바지의 허리가 이에 속한다. 셋째, 좌우 솔기는 겉에서 보아 입었을 때 솔기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한다. 그리고 곧은 올과 어슨 올은 곧은 올쪽으로 솔기를 꺾으며, 안감과 겉감의 솔기는 겉감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솔기 바느질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가름솔은 홈질이나 박음질을 한 다음 솔기를 좌우로 가르고 다림질 한 후, 그 위에 풀을 조금 발라서 또 한번 다림질하는 방법이다. 겉에서 한 번 더 다려 주면 곱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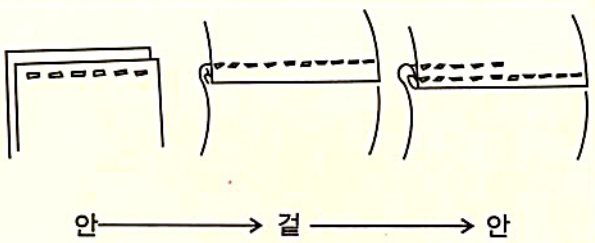
그림 1. 가름솔은 홈질이나 박음질을 한 다음 솔기를 좌우로 갈라 놓는다.



곱솔은 박은 솔기를 한 번 꺾어서 혼 다음 남은 시접을 베어 버리고 또 가늘게 접어서 호는 솔기 처리법이다. 여름철 옷감인 모시·베·사 등의 얇은 옷감으로 옷을 지을 때 이 방법을 쓴다.

쌈솔은 한쪽의 시접을 자르고 나머지 시접으로 싸서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통솔보다 솔기가 얇고 튼튼하다. 홑옷의 속옷이나 작업복 등에 쓰인다.

그림 2. 쌈솔은 한쪽 시접을 자르고 나머지 시접으로 싸서 바느질한다.



뒤웅솔은 겉에서 박아 꺾은 다음 시접을 얇게 베어 버리고 베어 낸 시접이 솔기 속으로 들어가게 박아 꺾는 바느질법으로, 적삼의 배래 같은 곳에 사용한다.

솔기 바느질이 끝난 후에는 인두질을 한다. 바느질이 곱게 되었는지 아닌지는 이 인두질에 달려 있다. 인두질은 솔기를 접어서 습기를 주고 따뜻한 인두로 꼭 누르고, 반대쪽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두질을 하면 솔기가 바른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인두질을 할 때는 솔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름솔은 솔기를 갈라 습기를 주고 인두로 눌러 준다. 그리고 배래 솔기와 같은 곡선을 처리할 때는 잘못하면 곡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모가 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II. 옷짓기

1. 아기옷

1) 갓난 아기옷

(1) 쑥주머니

산월이 가까워 오면 깨끗한 새 짚을 한 묶음 가려 둔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문을 잡으면 그 짚을 헌 홑이불 위에 펴서 깐다. 세번쯤 듬성듬성 엮어도 좋다. 짚 위에서 아기의 태(胎)를 가르고 햇솜에 참기름을 묻혀 입·귀·겨드랑·오금 등에 낀 것을 다 씻겨 누인다.

태는 한뼘쯤(15cm 정도) 남기고 아기 배쪽으로 피를 훑어 넣고, 청·홍실로 묶고 수수깡으로 자른다. 나머지 태는 사르고 남긴 태는 배꼽 위에 청색 헝겊에 싼 채 서려 놓고, 솜 위에 곱게 핀 쑥잎 주머니를 배 위에 올려 놓는다.

쑥주머니는 고운 무명이나 베를 이용하여 사방 한치 닷푼이 못되게(7cm)[1] 마름질해 다섯치(25cm) 정도의 끈을 단다. 쓸 때는 빨아서 풀기를 빼고, 양쪽에 홑으로 단 헝겊 끈을 한 번 돌려 앞에서 맨다. 보드라운 명주 오라기로 접어서 돌띠처럼 뒤집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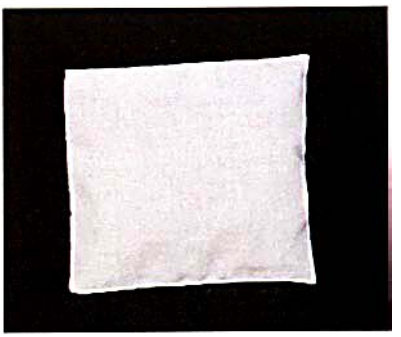


사진 41. 쑥주머니

1) 한자=50cm, 한치=5cm, 한푼=0.5cm이다.

(2) 쌀포대기 · 깔포대기

갓난 아기는 홑이불처럼 갸름한 무명 겹 쌀포대기 위를 접고 다시 아래를 겹쳐서 어깨 · 배 · 다리를 세 번 맬 뿐 옷을 안 입힌다. 아기는 낳은 지 24시간 후 큰 박에 더운물로 씻기되 위부터 씻겨 내려간다. 아기를 씻겨서 쌀포대기에 싸서 깔포대기 위에 눕힌다. 일곱달 전에는 아기 것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일곱달이 지난 뒤에 마련하기 시작 한다.

① 쌀 포대기(겹)

고운 무명이나 베를 가지고 길이 자 한치(55cm) · 너비 자 세치(65cm) 분량으로 만든다.

② 깔 포대기

3층 포대기로 만들고, 갈아주기 위해 형편이 안되면 2개로 하여 솜을 두어 뒤집어 누빈다. 깔포대기(셋~다섯개)는 굵은 명주나 고운 무명 흰색으로 누비고, 덮는 것은 명주천에 비단 · 광목 등으로 만든다. 옷감은 110cm폭인 44인치로 한자 가웃(75cm)이 필요하고, 폭이 좁은 명주나 무명으로 할 경우는 두폭 반×길이 두자 두치(110cm)가 있어야 한다.

크기는 첫번째 것은 길이 자 다섯치 닷푼(80cm)×너비 무명 두폭(60cm)으로 하여 넉넉하게 솜을 두둑히 두어 누빈다. 두번째는 첫번째 것보다 길이와 너비를 한치쯤 작게(75cm×55cm)하고, 세번째는 길이 자 네치(70cm)×너비 한자(50cm)로 한다. 물에 빨기 위해 다 누빈다.

마름질은 먼저 사방을 쭝쭝 화서 한군데에 1/3쯤 창구멍을 내어 뒤집는다. 솜을 둘 때는 창구멍을 좀 넓게 해야 솜이 치지 않는다. 솜을 두어 뒤집어 누비는데, 누비기 전에 올을 뽑아 1.5~2cm 정도 간격으로 올대로 누빈다.

③ 좁쌀 베개

가로 다섯치(25cm)×세로 두치(10cm) 크기로 세겹이며, 속주머니·겉주머니 위에 잇을 시친다. 똑같은 치수로 셋을 만들어 베갯잇을 시치지 않고 끼워 주어도 좋다. 좁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 겹으로 속을 만드는 것이다.

무명으로 75cm(25cm×3)·30cm(10cm×3) 분량이 필요하다. 치수는 길이 다섯치(25cm)·너비 두치(10cm)와 가로 다섯치(25cm)×세로 두치(10cm)에 시접 각각 두푼(1cm)이 들어간다.



사진 42. 깔포대기



사진 43. 쌀포대기



사진 44. 깔포대기와 쌀포대기, 그리고 좁쌀 베개

(3) 배냇저고리

배내옷이라고도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목욕을 시킨 후 처음으로 입히는 옷이다. 품과 화장을 넉넉하게 하고 옷고름은 흰색으로 길게 달아 아이의 장수(長壽)를 기원하였다. 배냇저고리는 성장 후에도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여 잘 보관해 두었다.

겨울에는 고운 무명이나 명주를 쓰고, 여름에는 빨아서 풀기를 뺀 모시를 이용해 만든다. 새 옷감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장수(長壽)하는 노인들의 옷을 뜯어 만들어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옷감은 겹저고리인 경우 안팎 세자 가웃이 든다. 치수는 길이 다섯치(25cm)·품 다섯치(25cm)·화장 여섯치(30cm)이다.

만들 때 앞품을 뒤품보다 약간 넓게 하고 섶과 깃은 달지 않는다. 아기 진동은 좁게 하며, 소매는 중간쯤을 끈으로 묶어 주어 손이 나와 얼굴을 할퀴는 것을 방지한다. 배래는 좁게 징겄다가 가지 붓듯 오이 붓듯 아기가 커감에 따라 징겄던 소매통을 차차 늘여 간다.



사진 45. 배냇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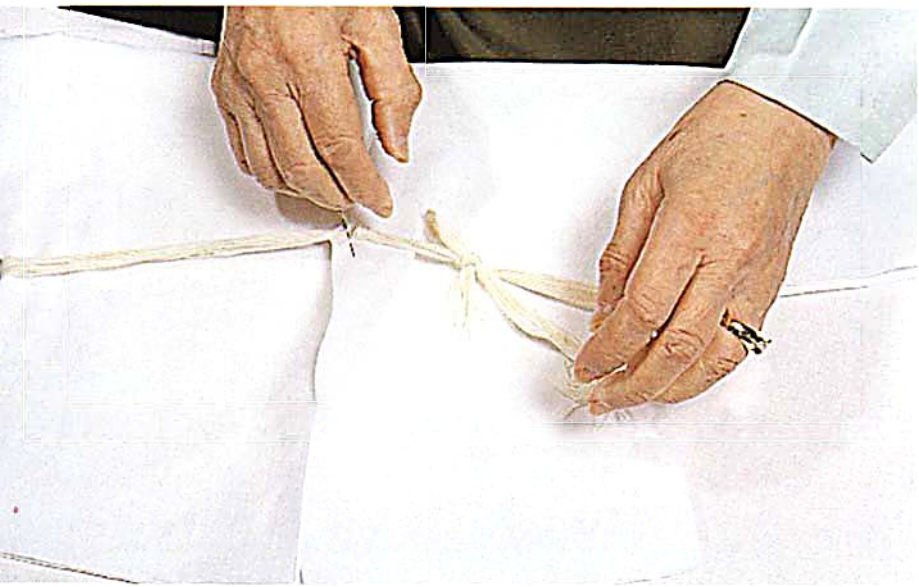


사진 46. 배냇저고리에는 고름 대신 실끈을 묶어 장수를 기원한다.

(4) 두렁이

아기의 배부터 그 아래까지 둘러 가리는 치마같은 옷으로, 한 이레 지난 뒤에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갓난 아기에게 보온을 위하여 입혔다.

올무명(거즈)이나 고운 무명·굵은 명주 석자 한치를 이용하여 만든다. 길이는 여섯치(30cm)·품은 네치 닷푼(22.5cm)·허리는 끈까지 포함해 한자가 필요하다. 마름질할 때 허리 감과 끈 감을 뗀 나머지를 두렁이 길이로 하고, 양쪽을 반으로 접어 홀떡 뒤집어 허리를 단다. 주름은 앞쪽만 좌우로 밖을 향해서 잡고, 뒤는 박이므로 잡지 않는다. 띠도 박이지 않게 실띠로 하고 입힐 때도 박이지 않게 끈을 가슴에 둘러 앞으로 맨다. 요즘은 조끼허리를 달아 앞으로 매어 주기도 한다.



사진 48. 두렁이② - 주름을 잡는다.



사진 47. 두렁이① - 마름질



사진 49. 두렁이(3) - 주름을 잡고난 다음 허리를 단다.



사진 50. 두렁이④ - 완성



사진 51. 배냇저고리와 두렁이 치마

(5) 깃 단 저고리

세 이레(삼칠일)가 되는 날 대문을 열고 인줄(금줄)을 풀면, 비로소 깃 단 저고리를 입힌다. 모양은 배냇저고리와 같으나 깃이 달려 있고, 배냇저고리 보다 조금 크다. 밑에 입히는 두렁이는 같다.

겨울에는 고운 무명을 사용하여 짓고, 여름에는 빨아서 풀기를 뺀 모시를 쓴다. 배냇저고리가 안팎 세자 가웃이므로 깃만 더 단다.



사진 52. 깃 단 저고리

깃 단 저고리의 세부

(6) 턱받기

무명 여덟치(40cm)가 있으면 된다. 치수는 길이 세치(15cm)·너비 네치(20cm)·목파임 길이 한치 닷푼(7.5cm)·목파임 너비 두치(10cm)이다. 사선으로 선을 두르고 위의 끈은 사선으로 내쳐야 한다. 네치(20cm) 길이의 끈을 4개 달아 어긋매겨 매어 주어야 늘어지지 않는다. 만들 때는 화서(홈질해서) 뒤집어 사선을 두르지만 예쁘게 하려면 레이스를 달거나 사선 헝겊을 두겹 겹쳐서 잔주름을 잡아 가장자리에 대어도 좋다.



사진 53. 턱받기

2) 현행 맞춤법에는 "턱받이"이다.

2) 백날옷

봄·가을·겨울에는 바지·저고리를 누벼서 지어 입히고, 여름에는 항라나 고운 모시를 다듬어서 겹으로 지어 입힌다.

(1) 누비 저고리

저고리는 아들 딸 구별없이 같이 하고, 끈을 달아 앞으로 매어 등이 배기지 않게 한다. 옷감은 명주·고운 무명이나 항라·다듬은 모시로 하며, 44인치 폭으로 자 가웃(75cm) 분량이나 명주로 석자(150cm)면 안팎을 만들 수 있다.

치수는 길이 다섯치 여섯푼(28cm)·뒤품 두치 아홉푼(14.5cm)·화장 여섯치(30cm)·진동 두치 닷푼(12.5cm)·앞깃 길이 두치 닷푼(12.5cm)·고대 두치(10cm)이며, 마름질은 저고리 마름질과 같다.

바느질할 때는 안을 약간 작게 하여 안팎 도련을 다 화서(홈질해) 뒤집는다. 그리고 안팎을 깃까지 달아서 누빈다. 깃은 두겹으로 달아서 안으로 넘기며, 고대나 깃으로 뒤집는다. 돌띠는 깃과 섶 가운데 길게 달며, 왼쪽에 다는 곁돌띠는 안섶과 겉섶이 여며지는 부분의 아래에 단다. 그리고 안섶이 겉섶보다 좀 작아야 한다. 누빌 때는 1~2cm 간격을 두고 올을 뽑아, 뽑은 올의 골대로 누비면 일매지고 좋다.



사진 54. 누비 저고리



누비 저고리의 세부

(2) 아들 아기 누비 바지

명주나 고운 무명을 주로 하며, 겹바지로 할 경우는 항라나 다듬은 모시를 이용한다. 44인치 폭으로 자 아홉치 닷푼(97.5cm)이면 겹바지가 된다.

바지 길이는 자 두푼(51cm)·마루폭은 여섯치(30cm)·부리는 네치 너푼(22cm)이고, 바지 허리는 주름을 잡아서 아홉치(45cm)가 되도록 한다. 바지 길이보다 좀 길게(60cm쯤) 해야 큰 사폭·작은 사폭이 나온다.

마름질은 먼저 길이 자 두푼(51cm)에서 마루폭 여섯치(30cm)를 뗀다. 사폭을 마름질할 때는 마루폭(30cm) 보다 여섯치(30cm) 더 길게 떼어서 큰 사폭·작은 사폭을 어슬게 마름질해 둘러대어 작은 사폭에 댄다.

그리고 본(本)대로 겹으로 하여 솜을 두어 뒤집어서 누비는데, 가랑이는 안으로 감쳐서 입힌다. 밑은 터서 기저귀를 갈게 하고, 대님 달 곳은 가랑이 아래를 한치(5cm) 정도 감친다. 위에는 주름을 잡아 허리를 단다.



사진 55.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① - 마름질해 솔기를 바깥쪽으로 꺾어 놓는다



사진 56.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② - 명주솜을 얇게 떠서 겉쪽에 백짓장처럼 펴 놓는다.



사진 57.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③ - 솜을 놓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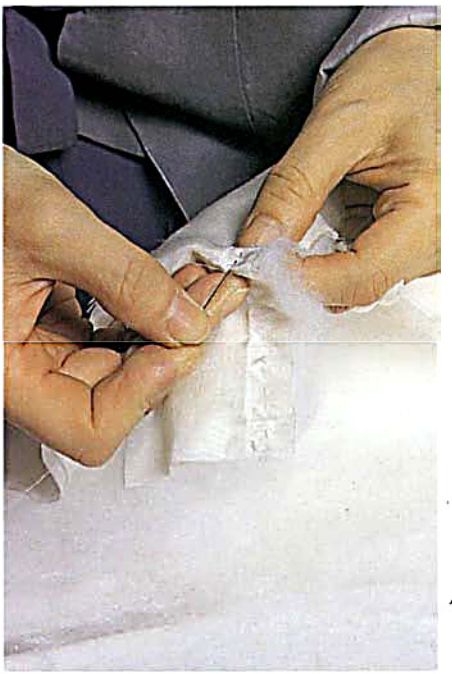


사진 58.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④
- 솜을 놓은 가장자리를
중간 홈질로 고정한다.



사진 59.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⑤ - 솜을 놓은 가장자리를 중간 홈질로 고정한다.



사진 60.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⑥ - 모서리 솔기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뒤집는다.



사진 61.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⑦ - 뒤집어 놓은 모습



사진 62.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⑧ - 누비기 전에 드문드문 시쳐 준다.



사진 63.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⑨ - 간격을 맞추어 누빈다.



사진 64. 아들 아기 누비 바지⑩ - 완성

(3) 딸 아기 누비 바지

명주 여섯자면 안팎이 충분하다. 딸 아기 바지는 대님을 매지 않으므로 길이를 아들 아기보다 약 두치(10cm) 정도 짧게 여덟치 두푼(41cm)으로 한다. 마루폭은 여덟치(40cm)쯤으로 하고, 큰 사폭·작은 사폭을 대지 않는 대신 마루폭을 좀 넓게 만든다. 바지 가랑이를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주름은 중심을 향해 바짝 좌우로 두개 잡고 뒤는 세개씩 잡는다.



사진 65-① 딸 아기 누비 바지(뒤) - 사폭이 없는 대신 마루폭을 넓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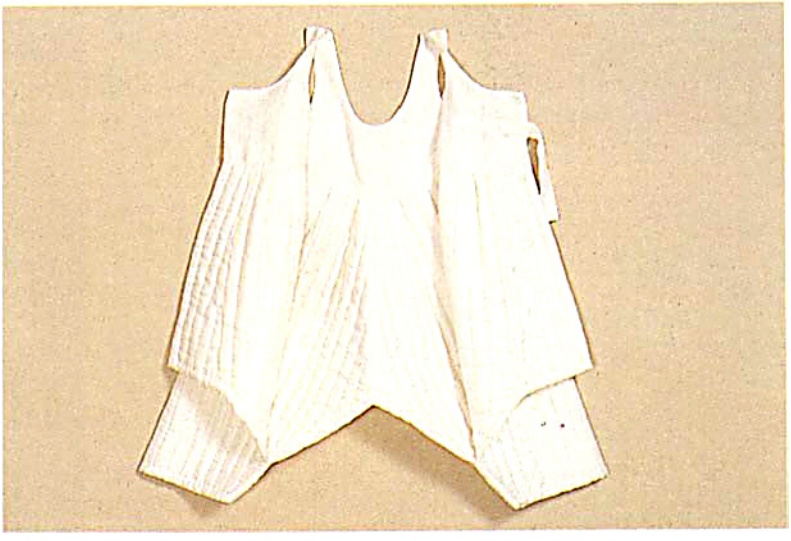


사진 65-② 딸 아기 누비 바지(뒤) - 기저귀를 채우기 위해 뒤를 터 놓았다.



사진 66. 누비 저고리와 누비 바지

3) 돌옷

(1) 아들 아기

① 민옥색 저고리

봄·가을은 숙고사나 국사, 여름은 생고사, 겨울은 양단 44인치 폭으로 마 반이 필요하다.

저고리 길이는 여섯치(30cm), 품은 등품이 여섯치 너푼(32cm)·반품은 등품의 ½인 세치 두푼(16cm)이다. 섶 치수는 겉섶의 경우 섶 아래가 한치 두푼(6cm)·위는 한치(5cm), 안섶은 아래가 아홉푼(4.5cm)·위는 닷푼(2.5cm)이다. 깃 길이는 앞깃이 세치(15cm)·안깃은 세치 일곱푼(18.5cm), 너비는 여덟푼(4cm)이다. 화장은 일곱치(35cm), 진동은 두치 일곱푼(13.5cm), 고대는 두치 두푼(11cm), 소매부리(수구)는 두치(10cm) 정도이다. 돌띠는 길이 여섯치(80cm)에 너비는 아홉푼(4.5cm)이며, 곁고름은 다섯치(25cm)이다.

마름질은 44인치를 네치(20cm)만 떼어 반으로 접어 길이 여섯치(30cm)에 어깨 시접 여섯푼(3cm)을 넣고 자른다. 그리고 화장 길이에서 길(앞+뒤품+기장 ; 반품 16cm)을 뺀 세치 여덟푼(19cm)이 소매(동)가 된다.

바느질할 때는 어깨솔기를 약 여섯푼(3cm) 또는 너푼(2cm) 호고, 등솔을 같은 치수로 혼다. 다음에 동을 달고, 배래를 혼다. 안섶은 등솔에 바로 달고, 겉섶은 고대에서 여섯푼(3cm) 나와서 붙인다. 고대 중심(등솔 중심)에 깃을 대고 붙이고 돌려서 앞깃을 내려 단다. 안깃은 겉깃 보다 한치(5cm) 내려서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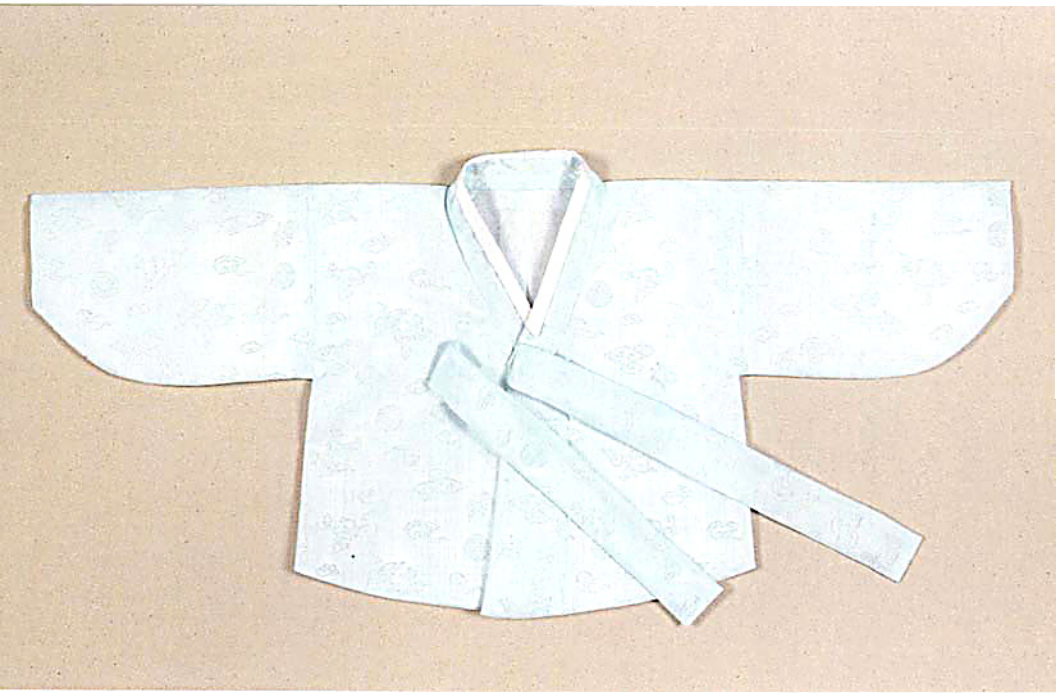


사진 67. 민옥색 저고리

② 보라 풍차바지

저고리와 같은 옷감을 쓰지만 빛깔은 다르게 한다. 44인치 폭으로 두마가 있으면 안팎이 된다.

바지 길이는 한자(50cm)에 아래위 각 두푼(1cm)씩 시접분 너푼(2cm)를 더한다. 마루폭은 앞이 두치 여섯푼(13cm), 뒤는 여섯치(30cm)로 한데 붙인다. 뒤에는 풍차를 붙이고 앞에 큰 사폭·작은 사폭을 붙인다. 큰 사폭은 세치 한푼(15.5cm)·작은 사폭은 두치 여섯푼(13cm)이며, 풍차는 아래 한치 여섯푼(8cm)·위 아홉푼(4.5cm)이다. 풍차를 붙일 때 풍차 사선을 마루폭 직선에 붙인다. 바지 부리는 두치 아홉푼(14.5cm)이 필요하다.

조끼허리는 길이가 네치(20cm), 앞이 다섯치 서푼(26.5cm)·여며 들어가는 속자락인 뒤가 세치 닷푼(17.5cm)·겉자락이 세치, 들어가는 속자락인 뒤가 세치 닷푼(17.5cm)·겉자락이 세치(15cm)가 든다. 진동은 두치 너푼(12cm)·고대는 두치(10cm)이며, 목은 두치 두푼(11cm) 정도 파고 겨드랑이 밑길이는 한치 여섯푼(8cm)이다. 남색 대님은 길이가 여섯치(30cm)이고 너비가 너푼(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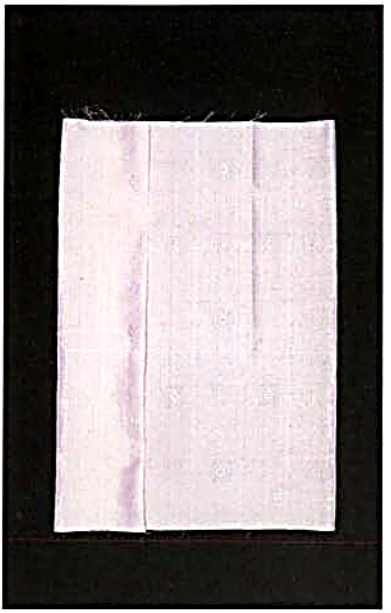


사진 68. 보라 풍차바지① - 뒤판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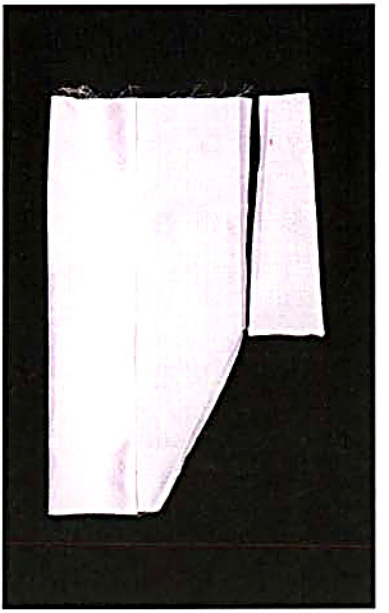


사진 69. 보라 풍차바지② - 마루폭을 마름질하여 풍차 마른 것과 같이 놓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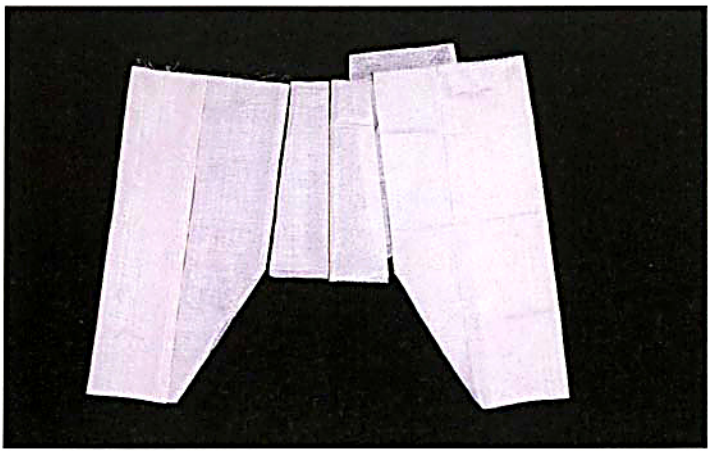


사진 70. 보라 풍차바지③ - 뒤쪽 마루폭에 풍차를 대어 놓은 모습



사진 71. 보라 풍차바지④ - 조끼허리 마름질



사진 72. 보라 풍차바지⑤ - 큰 사폭의 직선에 작은 사폭의 사선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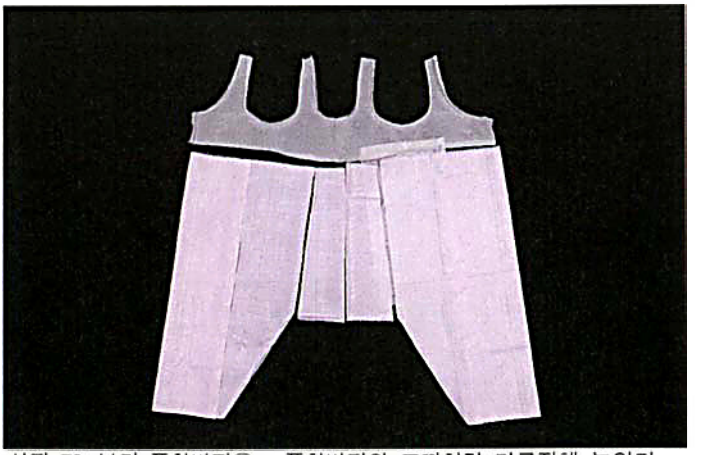


사진 73. 보라 풍차바지⑥ - 풍차바지와 조끼허리 마름질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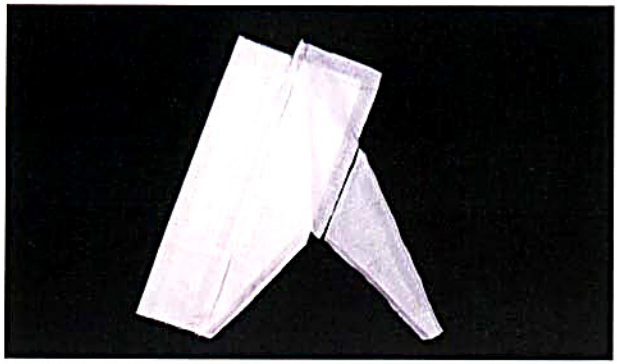


사진 74. 보라 풍차바지⑦ -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붙이고 마루폭을 붙인다. 큰 사폭이 마루폭 길이보다 길다.



사진 75. 보라 풍차바지⑧ -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붙이고 양옆에 마루폭을 붙였다.



사진 76. 보라 풍차바지⑨ - 앞뒤를 붙였다.



사진 77. 보라 풍차바지⑩ - 안팎의 부리를 박아서 배래로 빼 놓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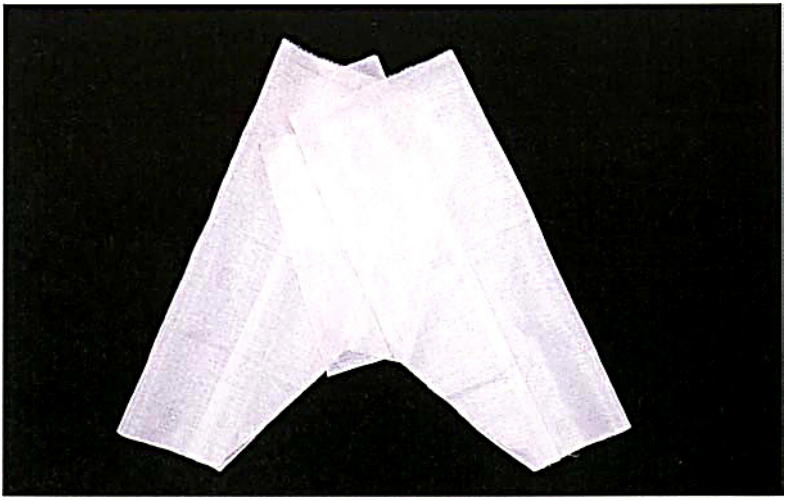


사진 78. 보라 풍차바지⑪ - 배래를 박고 허리를 달기 전



사진 79. 보라 풍차바지⑫ - 완성

③ 남빛 조끼

겨울에는 양단으로 짓고 여름에는 숙고사를 쓴다. 22인치 1마 1/3, 120cm(60cmx2)면 안팎이 된다.

조끼의 길이는 저고리보다 한푼 길게 하여 여섯치 두푼(31cm)이고, 품은 여섯치(30cm)·어깨품이 여덟푼(4cm), 진동은 세치(15cm)로 한다. 고대는 두치 한푼(10.5cm), 겨드랑이 밑길이는 두치 아홉푼(14.5cm)이고, 앞목은 두치 여섯푼(13cm) 정도 판다. 단추 구멍은 아래를 한치(5cm)쯤 남기고 4개를 달며, 단추집의 간격은 3.3cm 정도가 적당하다.

등솔을 막히게 겹쳐서 막힌 솔기에 뒤품을 놓아 마름질하고, 겨드랑이를 베어낸 자리에 한쪽 길이 놓이도록 하면 감이 절약된다.

먼저 호주머니부터 단다. 안을 넣어 뒤집어서 깃을 얌전히 한푼(0.5cm)쯤 떼고, 두줄로 박아서 등솔 속에 집어넣어 어깨 두쪽을 박는다. 그리고 한쪽 겨드랑이를 박고 한쪽만 창구멍을 내어 뒤집는다. 단추집은 입었을 때 왼쪽에 오게 하고, 단추는 오른쪽에 단다.

④ 색동 마고자

계절별로 옷감을 달리하여 겨울에는 양단, 봄·가을에는 국사, 여름에는 생고사를 이용해서 만든다. 옷감 분량을 보면 겉감은 길이 중간 분홍색으로 일곱치(22인치, 69cm), 색동은 각각 길이 여덟치(40cm)·너비 너푼(2cm)로 준비한다. 안감은 44인치 연분홍 숙고사로 길이의 배인 일곱치가 든다. 오방장 두루마기의 길이 연두색이므로 마고자의 길은 분홍색으로 하며, 겉감이 중간 분홍색이라 안감은 연분홍색으로 한다.

소매의 색동 배열은 끝동을 남색으로 시작해 옥색·분홍·연두·다홍·노랑·남빛·분홍·연두·다홍·남빛의 순서로 한다. 길감의 색이 중간 분홍이라서 끝동에는 분홍이 오면 안된다. 대개 끝동을 남자 아기는 남빛·여자 아기는 자주빛처럼 짙은 빛으로 하는데, 이것은 소매 부리를 더럼이 덜 타는 빛으로 하려는 뜻이다

마고자 길이는 여섯치 너푼(32cm)으로 하고, 뒷품은 여섯치 두푼(31cm)·뒤 반품은 뒷품의 ½(15.5cm)·어깨품은 한치 너푼(7cm)이다. 섶은 마주보게 다는데 아래 너비가 일곱푼(3.5cm)이며, 위는 거의 딱 붙게 앞깃 내려오는 밑에 바로 붙인다. 앞품보다 한푼(0.5cm) 들이켜서 붙인다. 앞깃은 두치 여섯푼(13cm)으로 고대에서 앞섶쪽으로 둥글게 판다. 그러나 깃은 달지 않는다. 화장은 일곱치(35cm), 진동은 세치(15cm)로 하고, 고대는 두치 두푼(11cm)·반고대는 한치 한푼(5.5cm), 수구는 두치 서푼(11.5cm) 크기로 한다.



사진 80. 색동 마고자 옷본, 정정완 소장

색동의 너비는 너푼(2cm)에 두푼(1cm)씩 양쪽으로 꺾는 시접 너푼(2cm)을 더한 크기로 하는데, 끝동은 여섯푼(3cm) 너비로 한다. 색동은 모아 어깨를 파서 붙이고, 안팎을 호아 뒤집어 서로 안팎이 겉돌지 않게 도련에서 서푼(1.5cm)쯤 들어가게 하고 여섯푼(3cm) 길이로 뜬다.

단추를 달 때 첫 단추는 깃 밑에 달고, 두번째 단추는 여덟푼(4cm)쯤 떼어서 단다. 단추가 칠보나 금·은이라도 사선으로 가늘게 꺾어 감쳐서 다는 것이 실로 다는 것보다 튼튼하고 안전하다. 단추집은 길과 같은 감을 이용해 사선으로 가늘게 꺾어 곱게 감쳐서 단다.

⑤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

여름에는 갑사·생고사, 봄·가을에는 숙고사·연화견, 겨울에는 양단·명주를 쓴다. 명주로 만들 경우 옷감 분량을 보면 연두색 길은 두치 너푼(12cm) 있어야 하고, 자주색 무는 일곱치(35cm)·노란색 겉섶은 여덟치(40cm)·분홍색 안섶은 일곱치(35cm)가 필요하고, 남색 깃과 돌띠는 한자 여덟치(80cm)가 든다. 조선시대 소론(少論)의 집에서는 남색 깃 대신 검은 자주 깃을 쓰기도 했다. 색동 소매는 너푼(2cm)씩 오색(五色)을 준비한다.

완성 치수를 보면, 길이 한자(50cm)·앞품 일곱치(35cm)·화장 일곱치 닷푼(37.5cm)·진동 세치 한푼(15.5cm)·소매 부리 너푼(12cm)·배래 세치 너푼(17cm)이며, 무는 너비 한치 닷푼(7.5cm)·길이 여섯치 여덟푼(34cm), 겉섶은 아래 너비가 한치 아홉푼(9.5cm)·위 너비가 한치(5cm)이고, 안섶은 아래 너비 한치 닷푼(7.5cm)·위 너비 일곱푼 (3.5cm)이다.

전체 깃 길이는 앞깃 길이(16cm)·안깃 길이(21cm)·고대(12cm)를 합친 아홉치 여덟푼(49cm)이고, 깃 너비는 여덟푼(4cm)이다. 동정 너비는 서푼(1.5cm), 등솔 시접은 너푼(2cm), 어깨 시접은 여섯푼(3cm)이 들어간다. 끝동은 너비 여섯푼(3cm)에 시접 두푼(1cm)을 더한다. 돌띠 길이는 긴 것이 자 여덟치(90cm)·곁돌띠는 아홉치(45cm)이고, 너비는 아홉푼(4.5cm)이다.

색동은 폭 너푼(2cm)에 양쪽으로 꺾어 넣는 시접을 두푼(1cm)씩 얼러 너푼(2cm) 여유있게 하여 열세동에서 열다섯동을 만든다. 색의 배열은 남자 아기인 경우, 남색 끝동·옥색·분홍·연두·다홍·노랑·남색·분홍·연두·다홍·노랑·남색·분홍·연두·자주색 순이고, 여자 아기는 자주색 끝동에 어깨에는 중간 분홍색을 넣는다. 색동을 모을

때 색동의 빛깔은 연한 빛보다 짙은 빛이 예쁘다. 그리고 진동에 네 귀를 맞추어 어슬게 오린 헝겊을 겹쳐 가늘게 남빛 선을 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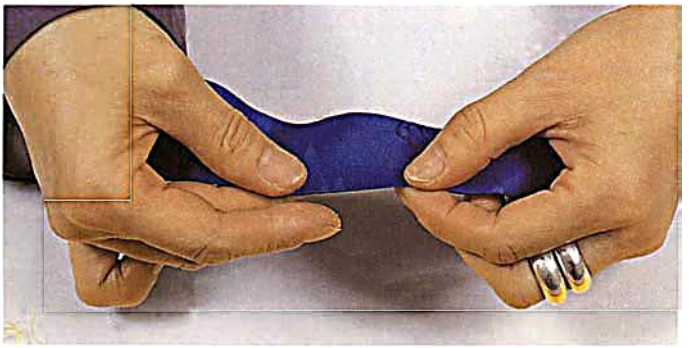


사진 81.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 색동 모으기①
- 남빛 색동을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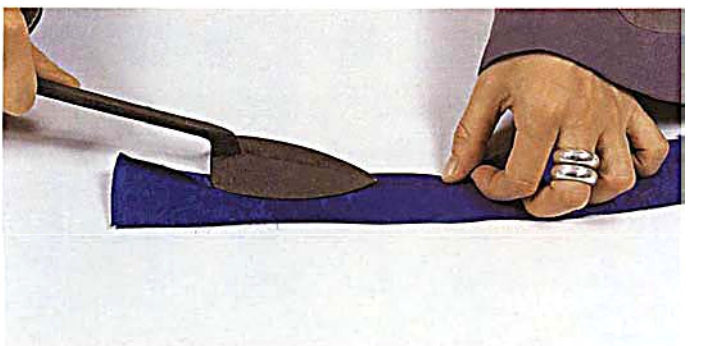


사진 82.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2) 색동 모으기②
- 접은 부분을 다려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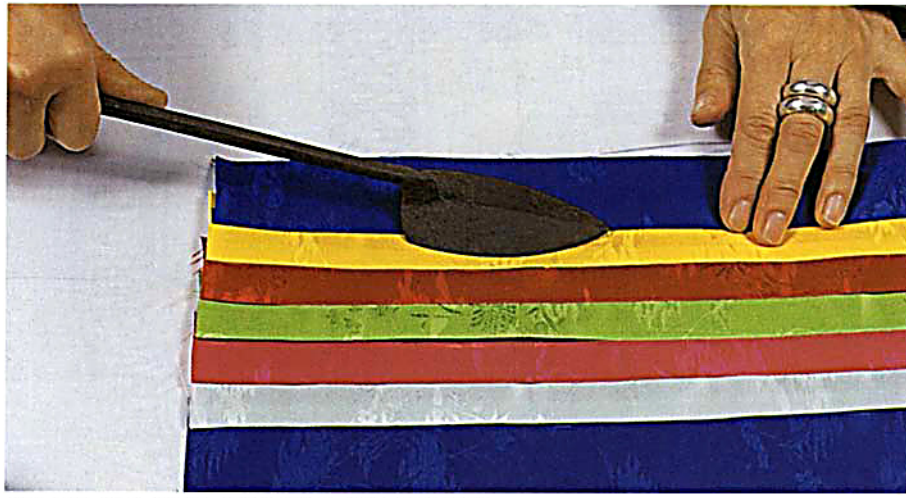


사진 83.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3) 색동 모으기③
- 풀을 칠해 같은 폭으로 모아 놓은 색동에 붙이고 다려서 고정시킨다.



사진 84.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4) 색동 모으기④
- 고정시킨 색동을 제쳐서 풀로 붙여놓은 부분을 고운 홈질로 바느질한다.



사진 85.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5) 색동 모으기⑤
- 색동을 모아 고운 홈질을 해 놓은 모습(뒤)



사진 86.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6) 색동 모으기⑥
- 완성된 색동

길을 떼고 섶만 마른다. 옷을 지을 때 첫번째로 할 일은 색동을 순서대로 모으는 일이다. 다음에 등솔을 사선으로 반 접어 선을 두르고 어깨는 그냥 호되, 색동 다는 어깨에는 역시 사선을 반으로 접어 선을 두르면 더 곱다. 길에는 같은 빛으로 심을 대고, 소매에는 흰빛 노방으로 심을 받친다. 그리고 색동 소매를 길에 붙인다. 길에는 무를 진동 밑으로 붙이고, 안섶은 등솔 바로 오른쪽에 붙인다. 겉섶은 고대에서 여섯푼(3cm) 나와서 붙인다. 몸을 다 화서 뒤집어 깃은 나중에 달고, 돌띠와 동정을 단다.



사진 87.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7) 길 마름질① - 등솔을 접는다.



사진 88.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8) 길 마름질② - 어깨솔기를 꺾은 다음 고대를 자른다.



사진 89.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 (9)
길 마름질③
- 소매를 잡아 살짝 둥글려서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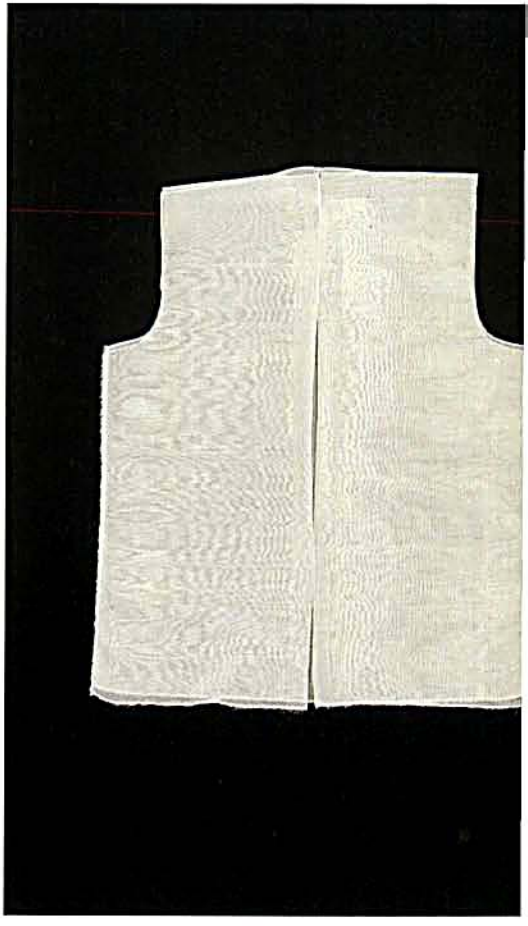


사진 90.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0)
- 길과 같은 크기로 심을 마른다.



사진 91.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1)
- 길 안쪽에 심을 대고 마름질한다.



사진 92.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2)
- 심과 길을 붙였다.



사진 93.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3)
- 노란 겉섶과 꽃분홍 안섶을 마름질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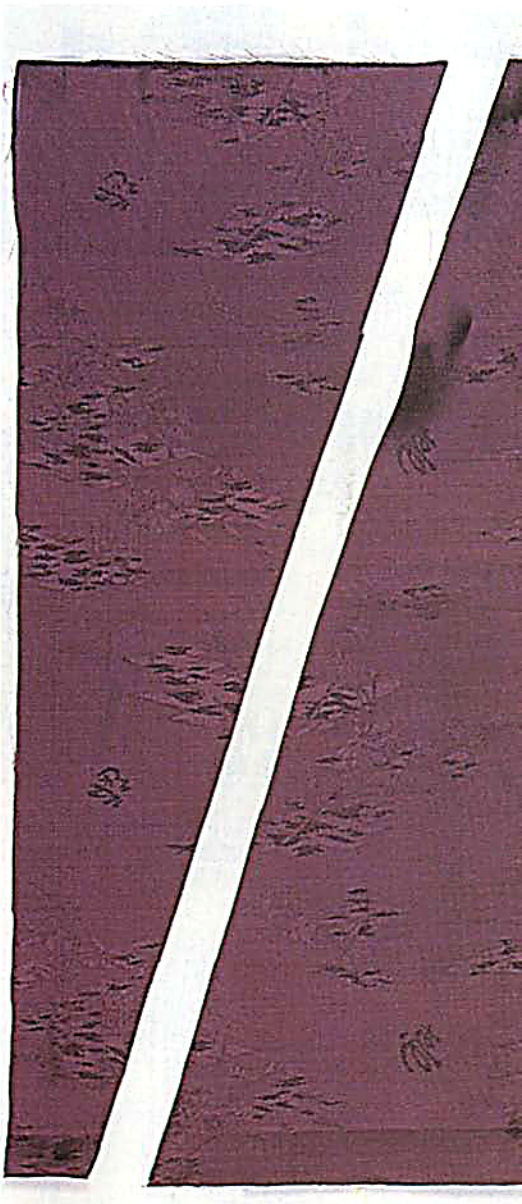


사진 94.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4)
- 자주색 무를 마름질해 놓았다.



사진 95.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5)
- 진동 파임에 색동 소매를 달기 전에 심과 길을 흠질한다.



사진 96.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6)
- 진동에 바이어스를 대고 늘어지지 않게 한다. 색동 소매의 중심을 맞추어 삼색동 부분까지 진동이 오게 놓고 박는다.



사진 97. 색동 오방장 두루마기(17) - 섶과 무를 박아 완성한 모습

⑥ 전복

갑사 자 아홉치 닷푼(97.5cm)을 준비한다. 치수는 길이 한자 닷푼 조금 더(52.7cm)·품 여덟치쯤(19.9cm;한쪽)·어깨 너비 한치(5cm)·진동 세치 두푼(16cm)·뒷고대 한치 서푼(7.5cm)이고, 무는 길이 37.6cm·아래 너비는 시접을 양쪽에 1.2cm씩 넣어 9.6cm로 하고, 단 너비는 일곱푼((3.5cm)·술 달린 다홍색 띠는 1.15cm 너비로 한다. 뒷고대에 등바대를 내려 붙이고, 무 옆 아래를 두치 너푼(12cm) 튼다. 뒷등솔은 진동에서 한치(5cm)쯤 내려서 아래로 죽 튼다.

마름질은 44인치 폭에서 뒤에는 등솔, 앞에는 단이 들어가게 여덟치쯤 떼어 낸다. 등솔은 통으로 앞은 양쪽, 넷을 똑같게 마른다. 무는 4개를 마르되 반으로 접어 어긋매겨 엇갈려 놓고 마른다.

만들 때는 등솔을 진동 밑까지 호고 사선쪽으로 무를 붙인다. 그리고 등솔과 앞단은 제 단으로 하고, 무는 1/3 좀 못되게 12cm쯤 튼다. 단추는 앞 맞닿게 달고 두번째 단추는 4cm쯤 아래 단다. 단추집은 가늘게 잡아서 안에 달아 단추가 들어갈 만큼 겉으로 나오게 한다. 여며지지 않고 꼭 맞게 한다.



사진 98. 전복

⑦ 복건

갑사 혹은 숙고사·생고사로 겉감은 검정색·안감은 남색으로 하며, 옷감 분량은 두자(100cm) 남짓 필요하다.

길이는 아홉치(45cm)로 하고, 머리 둘레는 네치 닷푼(22.5cm)씩 두 쪽 아홉치(45cm)이고, 볼 길이는 네치(20cm), 끈은 긴 것은 자 한치(55cm)·짧은 끈은 한자(50cm) 길이이다. 마름질은 22인치를 반으로 접어 길이 아홉치(45cm)를 떼어 낸다.

뒤를 트는 복건은 목 아래까지만 호고, 막는 복건은 다 막아 트지 않고 혼다. 머리 뒤는 약간 내밀어 둥글려야 벗겨지지 않는다. 이마 위는 곧장 여덟푼(4cm)만 호고 뒤집어 세 바늘만 꿰매고 갈라서 양쪽으로 너푼(2cm) 붙여 박아서 숙인다. 끈에도 남색 심을 받쳐 볼 길이에서 한치(5cm)쯤 아래에 달아 뒤로 맨다.

복건과 비슷한 것으로 호건(虎巾)이 있다. 호건은 검정색 바탕에 호랑이 얼굴을 수놓은 것으로,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건강하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보통 오방장 두루마기와 전복 또는 사규삼과 함께 입힌다.



사진 99. 복건



사진 100. 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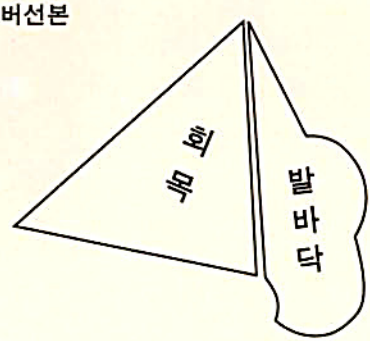
⑧ 타래 버선

서양목 또는 광목을 다섯치 정도 준비하여 본을 만들어 짓는 것이 편리하다. 만들 때는 어른 버선과 달리 몸과 목을 따로 하여 붙인다.

먼저 버선의 등과 바닥을 꿰매서 목으로 뒤집는다. 버선의 발목에서 버선 등까지 사선을 긋고, 발바닥쪽은 세로 직선으로 누비고 발등쪽에서 목을 어슬게 사선으로 누빈다. 버선목을 누빈 뒤 남자 아기는 남빛 선, 여자 아기는 다홍 선을 두른다. 버선목 뒤는 아기들의 다리가 통통할 수 있으므로 조금 터 준다. 버선코 끝에 여자 아기는 다홍 명주실로 상모술을 달고, 남자 아기는 남색 명주실로 상모를 단다.

아기의 버선에 수놓을 때 백일된 아기 것은 버선의 등과 코쪽으로 잣 3개를 놓고, 잣 위에 새발 3개를 수놓는다. 돌아기는 물결 무늬 위에 연꽃 한송이를 복판에 놓고, 버선볼에는 매화 한송이와 잎을 수놓는다.

그림 3. 타래 버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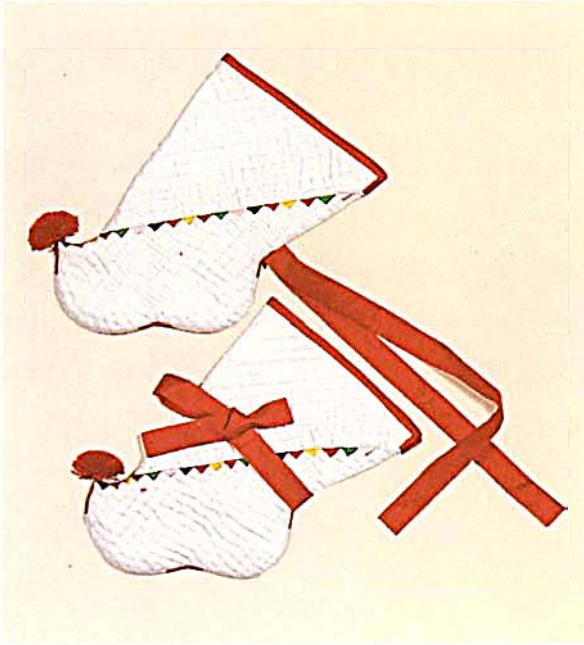


사진 101. 타래 버선

⑨ 사규삼

소매가 넓고 깃은 곧으며, 양옆의 길이 겨드랑이부터 트인 포(袍)다. 양옆의 튼 곳과 도련·깃·소매 둘레에 검은색 선을 둘렀다. 그 위에 편복(蝙蝠;박쥐)·수(壽)자 무늬를 금박하였다.

길을 4개 먼저 잡고, 소매를 마르는데 소매는 두리를 달고 무는 없다. 바느질법은 도포와 비슷하고, 깃은 원삼 깃과 같다.



사규삼의 단령 깃



사진 102. 사규삼

(2) 딸 아기

① 노랑 삼색동 저고리

겨울에는 양단, 봄·가을은 숙고사·국사, 여름에는 생고사와 갑사를 주로 이용한다. 44인치 마 세치(120cm)면 안팎이 다 된다.

연두색 길에 색동 당의를 입히므로 저고리는 노랑색 길에 삼색동만 단다. 삼색동으로 할 경우 길에서 다홍·연두·남색으로 하고, 오색동일 때는 분홍·연두·남색·노랑·다홍색을 쓴다.

저고리 뒷길이는 세치 여섯푼(18cm)으로 앞길보다 너푼(2cm) 짧게 한다. 뒷품은 여섯치(30cm)·화장은 여섯치 닷푼(32.5cm)·진동은 두치 일곱푼(13.5cm)·수구는 두치(10cm)이다. 겉섶은 아래위 너비가 다 일곱푼 반(3.75cm)이고, 섶코만 두어 올쯤 내민다. 안섶은 아래가 너푼(2cm)·위는 서푼(1.5cm)·길이는 여섯푼(3cm)이다. 섶 길이는 한치 한푼(5.5cm), 섶 머리는 닷푼(2.5cm)이다. 끝동은 자주색으로 닷푼 반(2.75cm) 너비로 만드는데 아들 아기 것 보다 약간 좁게 어깨에 남색이 오게 하고 이어서 연두와 다홍을 넣는다. 색동은 너비가 너푼 좀 못 되게(1.8cm)하고 양쪽에 시접 1cm씩 더한다. 옷고름은 긴 고름 여덟치(40cm)×여섯푼(3cm)·짧은 고름 일곱치(35cm)×여섯푼(3cm) 크기로 한다.

마름질은 등솔을 반으로 접어 길 네쪽을 자른다. 소매 길이에서 색동 길이만큼 떼고 소매 끝까지 다섯치(25cm)를 뗀다. 안섶은 시늉만 하고, 겉섶은 깃 너비보다 두푼(1cm) 넓게 하며, 깃 너비는 너푼(2cm) 정도로 한다.

지을 때는 색동을 먼저 모아 놓고, 어깨를 호고 등솔에 자주색 숙고사로 사선을 겹쳐 선을 두른다. 그리고 어깨 너비 한치에서 직선으

3) 키 78cm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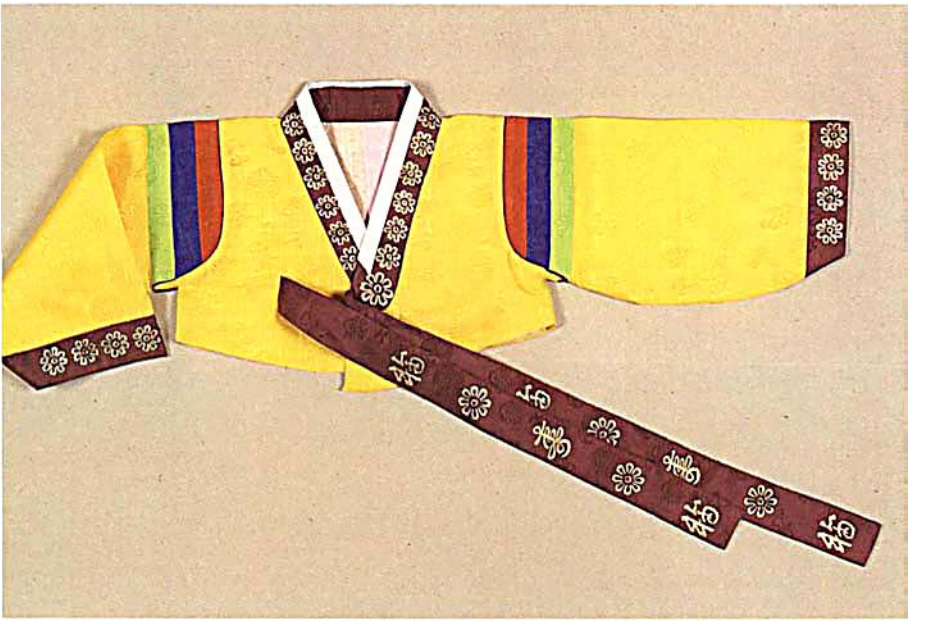


사진 103. 노랑 삼색동 저고리

로 내려와 겨드랑이에서 직각으로 선을 그어 두 선이 마주치는 점에서 반 올라간 점에서 둥글려 소매를 단다. 앞도련은 뒷도련보다 너푼(2cm) 길게 한다. 겨드랑이 아래서 직각으로 선을 그어 여덟치(4cm)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에서 섶 끝으로 둥글게 선을 그린다. 섶 끝은 약간 한푼(0.5cm)쯤 후려 내밀어 섶코를 만든다. 겨드랑이 밑에서 서푼(1.5cm) 내려서 도련을 그린다.

뒤집어 자주색 깃을 다는데, 깃 너비는 아래보다 위로 약간 후려야 입은 모양이 날씬하다. 그리고 옷고름을 단다. 자주빛 겉고름은 한치 너푼(7cm)쯤 길게 하여 겉섶과 깃에 반반 걸치게 달고, 곁고름은 고대에서 직선으로 내려온 선에서 두푼(1cm) 안섶 쪽으로 들여 고름이 매여지게 동정 이를 맞추어 단다. 서푼(1.5cm) 너비로 동정을 단다.

② 다홍 치마

겨울에는 양단, 봄·가을은 숙고사·국사, 여름에는 생고사·순인을 쓴다. 44인치 폭인 경우 마 반·폭 반, 두자(1m) 중에서 반폭은 저고리 고름으로 쓴다. 22인치 폭은 세폭 총 석자(150cm)가 필요하다.

치마 길이는 한자(50cm)에 단 여섯푼(3cm)·시접 두푼(1cm)·치마허리에 들어가는 시접 부분 너푼~여섯푼을 더한다. 치마에는 잔주름을 잡는다. 조끼허리 치수는 길이 세치 너푼(17cm), 앞길이 한치(5cm), 품 다섯치(25cm), 총품 자 두치(60cm), 목 파임 두치 여섯푼(13cm), 겨드랑이 파임은 목파임과 같다. 어깨 폭은 너푼(2cm)·겨드랑이 높이는 닷푼(2.5cm)·여밈 부분은 한치 서푼(6.5cm)이며, 마를 때 여미는 부분인 안자락은 너푼(2cm)·겉자락은 여섯푼(3cm)으로 한다.

양쪽으로 폭을 여덟푼(4cm)씩 위쪽만 자연스럽게 쳐내서 마름질하면 주름도 덜 잡히고 입은 맵시도 곱다. 조끼허리는 바깥쪽으로 약간 숙이고, 허리는 저고리 도련처럼 가운데는 약간 살리고 양쪽 겨드랑이 역시 도련처럼 후린다. 그래야 입은 맵시가 씻은 듯하고 저고리 밑으로 허리가 내어 비치지 않는다. 허리를 달 때 겉자락보다 안자락을 너푼(2cm)쯤 짧게 채어서 달아야 입은 맵시가 곱다.

③ 노랑 속치마

속치마 감은 겨울에도 숙고사를 쓴다. 양단 겉치마인 경우라도 안은 양단을 넣지 않고 숙고사로 받쳐야 보드랍고 홑지고 얌전하다. 조끼허리가 길기 때문에 겉치마보다 길이를 너푼(2cm)쯤 짧게 한다.

다홍 겉치마에 받쳐입는 노랑 속치마는 다홍치마와 마찬가지로 44인치 폭 반, 22인치 세폭 등 총 석자(150cm)가 필요하다. 그러나 겉치마보다는 약간 폭을 줄인다.

하는 방법은 겉치마와 같되, 다만 허리는 따로 만들지 않고 겉치마

허리에 한데 껴서 단다. 겉치마는 잔주름을 잡지만 속치마는 굵직하게 잡아야 부하지 않다. 속치마 길이는 겉치마 보다 너푼(2cm)쯤 짧게 채어 잡아 올려서 달아야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깡똥하여 못쓴다.



사진 104. 다홍 치마



사진 105. 노랑 속치마



사진 106. 다홍 치마와 노랑 속치마를 한 허리에 붙였다.

④ 연봉 무지기

모시 44인치 폭으로 폭 반 등 총 세자 여덟치로 넉넉하게 하되 네 자는 채 못되게(182cm) 준비한다. 겉치마보다 너푼 짧게 한다.

연봉 무지기는 잔주름을 잡아서 조끼허리를 하지 않고 매는 허리를 단다. 잔주름을 잡아서 반쯤 꼭 쥐고 분홍 물에 아래만 잠방 잠갔다 널어 말린 다음에 풀을 먹여서 꼭꼭 밟아 다린다. 매는 허리를 할 경우 허리 길이는 한자(50cm)·너비는 한치(5cm)이고, 끈은 긴 것은 아홉치(45cm)·짧은 끈은 일곱치(35cm)이다.



사진 107. 연봉 무지기

⑤ 딸아기 풍차 겹바지

분홍 명주나 숙고사, 뉴똥 등을 쓴다. 대체로 명주 여덟자가 필요하다. 길이는 여섯치 여섯푼 넉넉하게 하고, 통은 앞이 다섯치 너푼(27cm)이 2개 · 뒤는 다섯치 서푼(26.5cm) 크기가 2개 앞뒤 합해서 107cm, 풍차는 길이 다섯치 아홉푼(29.5cm) · 너비는 위가 네치(4cm) 아래가 한치 너푼(7cm) 필요하다. 풍차는 안팎으로 2개를 바지 뒤에 달아 오른쪽으로 여민다.

바지 길이는 네치(20cm), 밑길이는 다섯치 여섯푼(28cm), 부리는 세치(15cm), 가랑이는 아래 네치 너푼, 그리고 기저귀 챌 때 편하도록 양쪽에 두치 너푼(12cm)씩 앞뒤를 튼다. 허리통 뒤는 세치 너푼을 넉넉하게 (17.2cm) · 앞은 두치 여섯푼(13cm), 어깨 너비는 너푼(2cm), 앞 목파임은 어깨에서 중앙으로 두치 여섯푼(13cm) 숙여 파고 양옆에서 5cm씩 나가서 둥글린다. 여밈분은 한치 일곱푼(8.5cm), 끈은 긴 끈 세치 여섯푼(18cm)×두푼 넉넉히(1.1cm) · 짧은 끈 세치 너푼(17cm)×두푼 넉넉히(1.1cm) 한다. 주름은 5.2cm 폭으로 앞 주름은 중앙을 향해 안으로 둘씩 맞잡고, 뒤는 중앙을 향해 제주름을 잡는다.



사진 108. 풍차 겹바지

명주 네폭을 접어 가랑이를 후리고, 밑은 가랑이보다 길게 다섯치 여섯푼(28cm)쯤 위를 후려 마름질한다. 풍차는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어슬게 베어 사선을 마루폭 직선쪽에 붙인다. 허리 중앙을 향해 어깨 밑으로 5.2cm 내린 곳에서 두푼(1cm)쯤 숙여서 도련을 둥글려야 앞이 올라가지 않고 입은 맵시가 좋다.

바느질은 앞쪽 밑 먼저 하고, 풍차 붙이고 안팎을 맞추어 밑을 박는다. 그리고 가랑이는 뒤폭을 앞쪽으로 넘겨서 싸 박는다. 주름은 앞에서 양쪽으로 2개씩 중앙을 향해 잡고, 뒤는 셋씩 잡아 허리에 단다. 여미는 것은 치마와 반대로 여며야 벌쭉거리지 않는다.

⑥ 연두 색동 당의

겨울에는 양단, 봄·가을은 숙고사, 여름은 생고사·순인을 쓴다. 분량은 겉감은 연두색 한마, 안감은 다홍색 한마 반, 심은 노방 마반이 필요하다.

색동은 자주색 끝동으로 시작해서 옥색·꽃분홍·연두·다홍·노랑·남빛·자주·연분홍·연두·다홍·노랑·남빛 꽃분홍 순서로 하는데, 옥색은 한동만 쓰는 것이 좋다. 끝동의 빛을 남색이나 자주빛으로 하는 것은 짙은 빛을 부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끝동은 안까지 같은 빛으로 끝동 너비만큼 검쳐서 달아야 좋다.

치수는 뒷길 일곱치 닷푼(35.5cm)·앞길 일곱치 여섯푼(36cm), 앞품 세치 여덟푼(19cm)·뒤품 여섯치 서푼(31.5cm), 화장 일곱치(35cm), 수구 두치(10cm), 겉깃 세치(15cm)·안깃 세치 세푼(16.5cm)·깃 너비 일곱푼(3.5cm), 고대 두치 두푼(11cm)이다. 도련은 위·앞·안 모두 거의 같되 두푼씩(1cm) 짧게 해서 앞도련이 제일 길게 한다.

고름은 모두 3종류가 있다. 겉고름 2개는 길이 여덟치(40cm)·너비 여덟푼(4cm)이고, 곁고름 1개는 길이 일곱치(35cm)·너비 여덟푼

(4cm)이며, 2개의 안고름은 길이 네치 두푼(21cm) · 너비 서푼(1.5cm)이다.

안섶은 위쪽이 일곱푼(3.5cm) · 아래쪽이 두치 두푼(11cm)이고, 겉섶은 위가 한치(5cm) · 아래가 두치 서푼(11.5cm)이다. 겉섶의 아래는 등솔선과 맞추되 위쪽은 고대에서 여섯푼(3cm) 아래로 내려서 달고, 깃은 두치 두푼(반고대인 경우 한치 한푼)에 앉힌다. 길을 앞은 닷푼(2.5cm) 길게 네쪽을 뒤는 접어서 마르되 아래는 처음부터 둥글려 마른다. 당의 본(本)을 대고 마름질하면 간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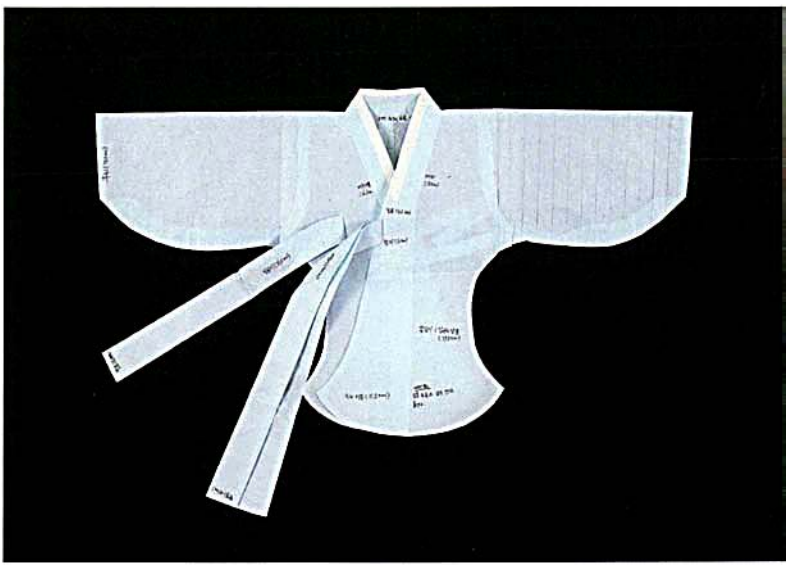


사진 109. 연두 색동 당의 옷본, 정정완 소장

바느질은 어깨부터 호고, 등솔을 혼 다음에 색동 소매를 단다. 안섶의 아래는 등솔에 바로 달고, 겉섶은 고대에서 여섯푼(3cm) 내려서

단다. 안팎을 껴서 뒤집고 깃을 달아야 깃이 힘있다. 고름을 달고 너비 서푼(1.5cm)의 동정을 단다.



사진 110. 연두 색동 당의

⑦ 굴레

조선 말기에 여자아이들이 쓰던 관모의 일종으로, 백일 때는 남자아기도 썼다. 바느질하고 남은 천을 이용하여 여러 색으로 색동을 모아서 머리 형태를 만들고, 목에서 끈을 묶게 되어 있다. 봄·가을은 숙고사, 여름은 생고사, 겨울은 양단을 이용한다.

빛깔은 앞이마 중심에서 목뒤까지 뒷다리 1개는 다홍색으로 네치서푼(21.5cm), 가로 지르는 가운데 다리 1개는 연두색으로 여섯치 서푼(31.5cm)이 든다. 목쪽에 있는 아랫다리 1개는 여섯치 두푼(31.5cm) 크기로 남자는 검은색·여자는 자주색으로 한다. 이마를 중심으로 얼굴 앞쪽에 있는 옆(앞)다리 2개는 세치 아홉푼(19.5cm)의 크기로 남자는 검은색·여자는 자주색으로 만든다. 양 볼에서 목쪽으로 삼각형으로 가린 흰색 연귀 2개는 너비 여덟푼(4cm)으로 귀를 맞추어 반으로 접어 양옆에 단다. 댕기는 남자 검은색·여자는 자주색으로 뒤 한가운데 끝에 단다. 위에는 매화를 다섯 봉오리씩 5개 수놓고 옥판을 머리 한복판에 단다. 폭은 겹쳐서 너푼(2cm)이다.

다리는 길이대로 접어서 각각 마르되, 시접은 두푼(1cm)이나 한푼반(0.75cm)을 준다. 다리를 호아 뒤집되, 혼 솔기는 한가운데로 가게 하여 얌전하게 다린다.



사진 111. 굴레

⑧ 박쥐 등걸이

봄·가을에는 숙고사, 겨울에는 양단을 쓰며, 22인치 폭으로 반마가 있으면 된다. 빛깔은 남색이나 다홍색이 있어야 하는데, 안을 받쳐서 자주색에는 남색·남색에는 자주색 어슨 헝겊으로 선을 두른다.

치수는 뒷길이 세치 여섯푼(18cm)인데 고대 파임부터는 세치 두푼(16cm)이고, 앞길이는 뒤보다 한푼(0.5cm) 길게 한다. 고대는 한치 한푼(5.5cm)으로 어깨 직선에서 중앙으로 너푼(2cm) 내려서 어깨에서 둥글게 후린다. 어깨 너비는 너푼(2cm)이고, 품은 앞품 세치 서푼(16.5cm)·뒤품 여섯치 두푼(31cm)이다. 앞목의 파임은 고대 밑에서 두치 서푼(11.5cm)을 내려와 어깨에서부터 파내려 온다. 앞품에서 한치 서푼(1.6cm)을 겨드랑이쪽으로 긋고 어깨 목쪽에서 직선으로 내려가 두 선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둥글게 판다.

반을 접어 조끼 마르듯 어긋매겨 마르고, 단추 없이 입는다. 겉은 짧게 안은 길게 하며, 겨울에는 가장자리에 선을 치고 털을 대는데 등에도 털을 대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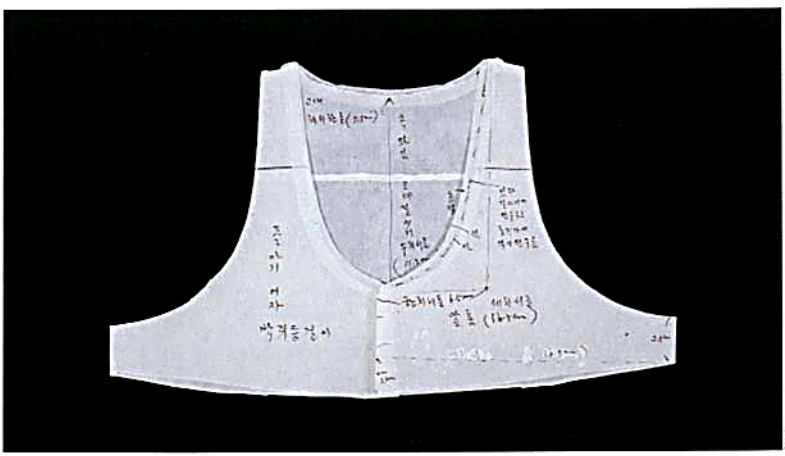


사진 112. 박쥐등걸이 옷본, 정정완 소장



사진 113-① 박쥐등걸이(앞)



사진 113-② 박쥐등걸이(뒤)

⑨ 오방주머니

양단이나 오복수 또는 두꺼운 비단으로, 청색(靑;동쪽)·황색(黃;중앙)·백색(白;서쪽)·홍색(紅;남쪽)·흑색(黑;북쪽)을 각각 두치(10cm)씩 마련한다. 심은 노방으로 하고, 안감은 연분홍 숙고사 44인치 폭 세치(15cm)를 준비한다. 매듭 끈은 여섯치(30cm)가 필요하다.

주름은 통에 따라 한쪽에 다섯 혹은 일곱씩 맞잡는다.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 끈을 꿰는데, 끈에는 나비매듭이나 잠자리매듭을 단다. 매듭 빛깔은 진분홍이나 보라색 등 쌕쌕한 빛으로 한다. 바느질할 때는 입을 검쳐 들어가게 해야 끈 꿰기도 좋고 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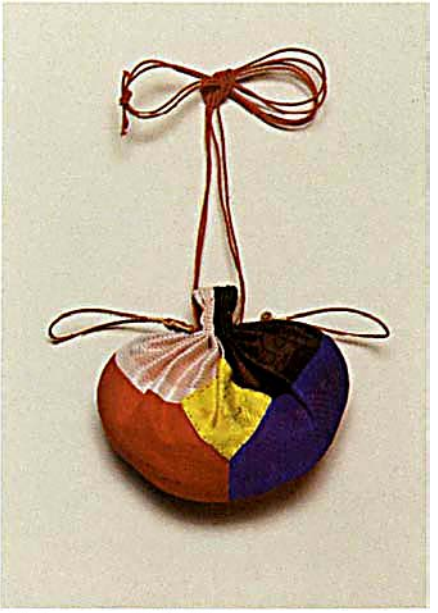


사진 114. 오방주머니

⑩ 조바위

봄에는 숙고사로 하고 노방으로 심을 대며, 겨울에는 양단에 광목으로 심을 댄다. 22인치 반마면 충분하다. 빛깔은 자주색 혹은 검정색이다. 겉감과 안감 각각 22인치 반마가 필요하다. 자주색 겉감에는 남색 안감을 대고, 검정색 겉감에는 자주색 안감을 댄다.

볼 밑은 꾸미기 전에 쫑쫑 곱게 호아서 실을 잡아당겨 오그려서 귀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사선으로 선을 두른다. 선은 겉감과 같은 감·같은 색으로 한다. 앞에는 칠봉술·뒤쪽에는 삼봉술을 달고, 산호와 구슬을 늘어뜨린다.

마름질은 종이로 본을 떠 실제로 씌워 보아 늘이고 줄여서 맞게 한다. 그리고 펴서 이마쪽부터 앞도련을 뒤만 남기고 박는다. 위도 펴서 박고 뒤집어서 위를 꾸민다.



사진 115. 조바위

2. 혼례복

1) 남자 혼례복[4]

(1) 엷은 옥색 저고리

엷은 옥색 명주 혹은 양단·공단을 재료로 한다. 명주로 할 경우는 겉감과 안감 각 열자가 필요하고, 44인치 폭으로 할 때는 겉감과 안감 각 두마가 있어야 한다.

저고리 길이는 자 두치(60cm)로 앞뒤 길이를 같게 한다. 저고리 품은 뒤 반품이 다섯치 서푼(26.5cm)·앞품이 한자 한푼(50.5cm) 정도면 되지만, 가슴이 나온 사람은 앞품을 좀 넓게 한다. 진동은 다섯치 한푼(25.5cm) 내지 다섯치 너푼(27cm)이며, 화장은 자 가웃(75cm)·고대는 세치 여섯푼(18cm)이다.

안섶의 너비는 위 한치(5cm)·아래 한치 여섯푼(8cm)이고, 겉섶의 너비는 위 한치 아홉푼(9.5cm)·아래 두치 너푼(12cm)이다. 배가 나온 사람은 안팎 섶을 내어 붙인다. 앞깃의 길이는 여섯치(30cm)·안깃의 길이는 일곱치 세푼(36.5cm)·깃 너비는 한치 너푼(7cm)이며, 소매 부리는 세치 일곱푼(18.5cm) 내지 네치(20cm)이다. 동정 너비는 깃 너비의 반이 좀 못되게 여섯푼 반(3.3cm)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고름은 너비 한치 한푼(5.5cm)·길이 자 두치(60cm), 곁고름은 자 여섯푼(53cm)이면 적당하다.

4) 키 170cm~173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4. 저고리명칭 및 치수(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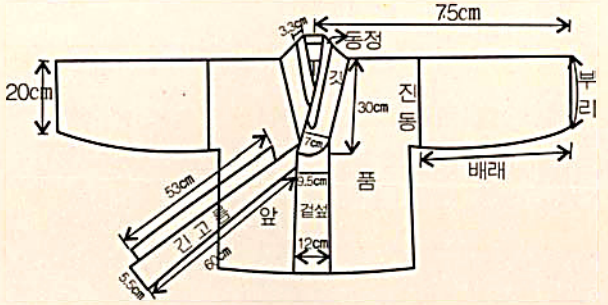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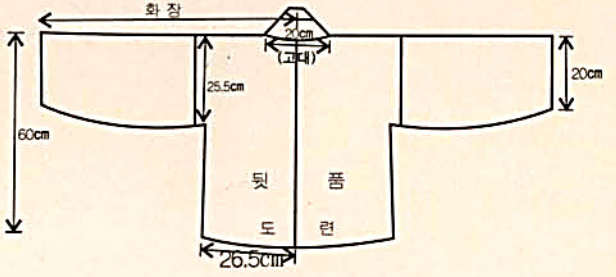


그림 5. 저고리명칭 및 치수(뒤)



마름질할 때 각 시접의 치수를 보면 등솔은 접어서 여덟푼(4cm) 들어가게 하고, 소맷동은 닷푼~여섯푼(2.5~3cm)의 시접을 준다. 어깨 솔기는 등솔과 같고, 도련 시접은 너푼(2cm), 깃 솔기는 두푼(1cm), 소매 부리 솔기는 두푼(1cm), 배래는 너푼(2cm), 고름은 두푼(1cm)의 시접 분량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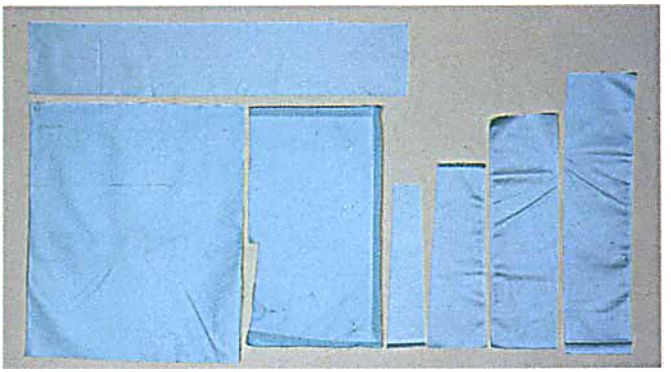


사진 116. 남자 저고리① 마름질 - 깃(上), 왼쪽부터 소매·길·안섶·겉섶·고름

바느질은 먼저 고대 빼고 어깨를 호고, 등솔을 혼 다음 소매를 단다. 저고리 안도 겉과 같이 하여 안팎을 겨서 좀 작게 해서 배래·진동만 빼고 도련·진동을 다 화서 속으로 뒤집어 안을 빼낸다. 그리고 배래를 화서 뒤집어 깃을 달고 고름과 동정을 단다.



사진 117. 남자 저고리② - 등솔과 어깨솔을 박아 펼쳐 놓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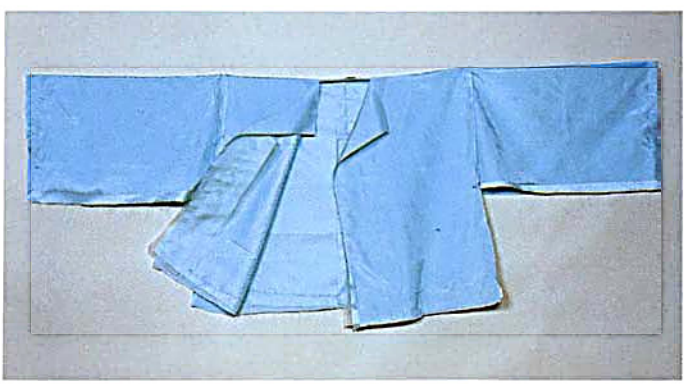


사진 118. 남자 저고리③ - 섶과 소매를 달았다.



사진 119. 남자 저고리④ - 안감을 대고 뒤집기 전의 상태



사진 120. 남자 저고리⑤ - 시접을 모두 겉쪽으로 꺾어 다린 후 고대쪽으로 손을 넣어 뒤집는다.



사진 121. 남자 저고리⑥ - 뒤집어 놓은 모습. 위에는 깃·아래는 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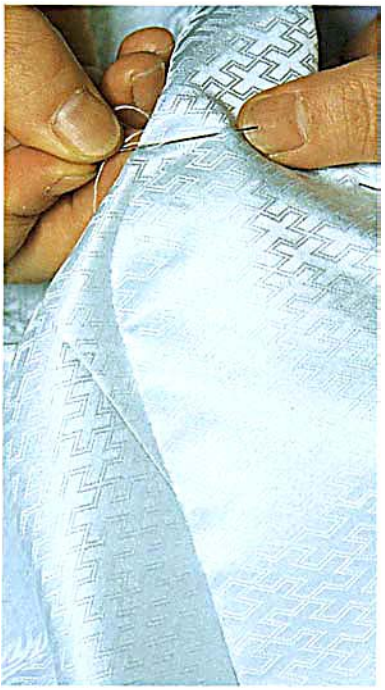


사진 122. 남자 저고리⑦ - 깃머리를 겉에서 감침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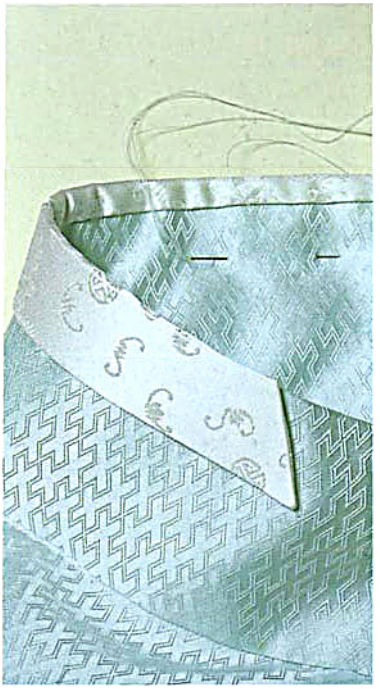


사진 123. 남자 저고리⑧ - 동정을 달 때는 안쪽에서 동정의 종이 부분까지만 집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바느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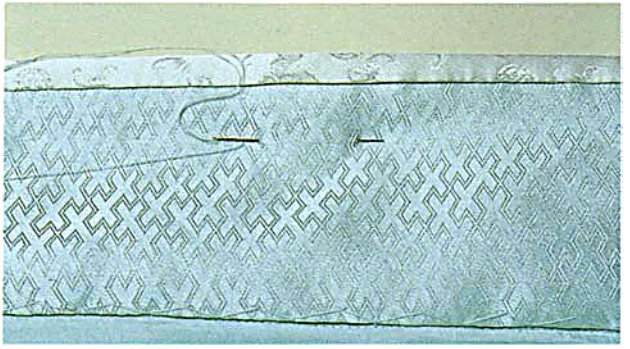


사진 124. 남자 저고리⑨ - 동정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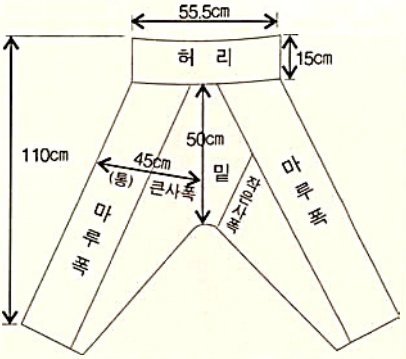


사진 125. 남자 저고리⑩ - 완성

(2) 삼동주(혹은 엷은 비둘기색) 바지

옷감은 삼동주로 여섯자를 준비해, 바지 길이는 허리 밑으로 두자 두치(110cm)로 하고, 바지 밑길이는 한자(50cm) 정도로 잡고 허리통은 자 한치 닷푼(55.5cm)·바지통 크기는 여덟치 닷푼(45cm)이면 된다.

그림 6. 바지 명칭 및 치수



마름질할 때는 우선 바지 길이대로 마루폭을 뗀다. 그리고 44인치 폭에서 허리 넓이로 세치(15cm)를 끊어 놓고, 나머지 폭을 반으로 접어 털어서 큰 사폭을 마름질하고 어긋매겨 작은 사폭을 마름질한다.



사진 126. 남자 바지① 마름질 - 허리감(위), 왼쪽부터 마루폭 · 큰 사폭 · 작은 사폭 · 마루폭

지을 때는 먼저 큰 사폭 곧은 선에 작은 사폭 사선(어슨 선)을 붙이고, 마루폭→큰 사폭→작은 사폭→마루폭의 순서로 잇는다. 안감도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겉감의 앞과 안감의 앞을 맞추어 배래를 바느질해서 허리로 뒤집는다. 바지 부리와 허리에 안이 밀려나지 않게 시치미(숨뜨기)를 한치(5cm) 정도로 뜨고, 허리를 만들어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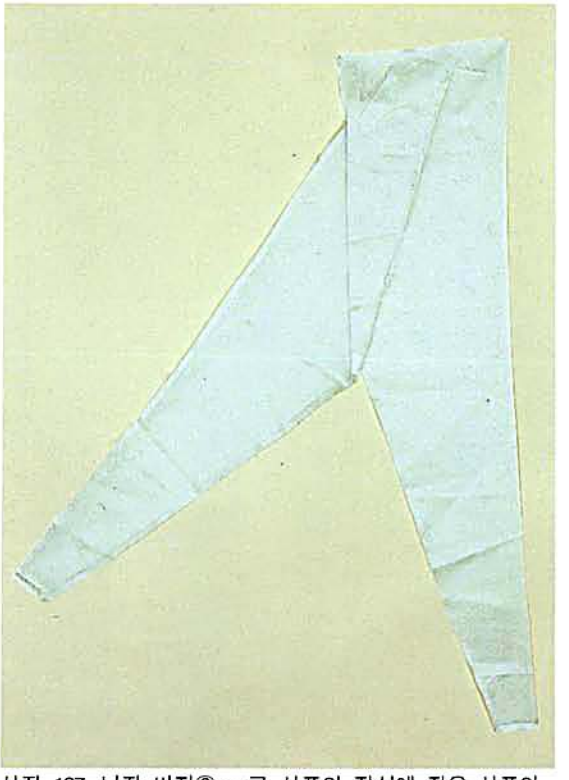


사진 127. 남자 바지② - 큰 사폭의 직선에 작은 사폭의 사선을 붙인다.



사진 128. 남자 바지③ - 양쪽에 마루폭을 붙인다.



사진 129. 남자 바지④ - 앞뒤를 붙이고,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마름질해 겉감과 맞춰 도련과 배래를 박아 붙인다.



사진 130. 남자 바지⑤ - 배래를 홈질한다.



사진 131. 남자 바지⑥ - 안과 겉의 배래와 도련을 박아 뒤집기 전의 모습



사진 132. 남자 바지⑦ - 뒤집어 놓았다. 위는 허리감



사진 133. 남자 바지⑧ - 허리를 달아 완성했다.

(3) 맨드라미 자주 마고자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깃·고름이 없고 겨드랑이는 아래쪽을 조금 텄다.

맨드라미 자주색 양단이나 수단을 44인치 폭으로 두마 한치(205cm)를 준비해, 골 접어 길과 소매를 떼고 섶을 마름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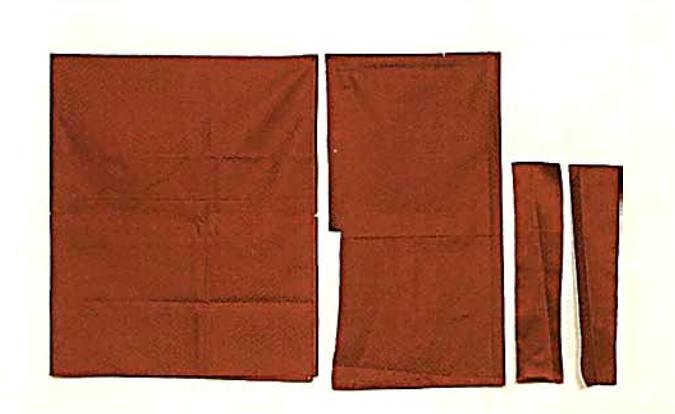


사진 134. 남자 마고자① 마름질 - 소매(左)·몸통·섶

바느질 방법은 저고리와 비슷하여 먼저 고대를 남기고 양쪽 어깨를 호고, 등솔을 흔다. 양쪽으로 마주보게 섶을 다는데, 사선이 직선의 품에 붙는다. 안팎을 다 해서 소매 안으로 창구멍을 내고, 도련과 수구에 숨뜨기를 해 안감이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단추와 단추집을 단다. 단추는 호박·옥·칠보·은으로 만든 것을 주로 달며, 단추 간격은 한치(5cm)로 한다. 단추 고리는 여섯푼(3cm)쯤 어슨 선으로 감쳐 단다. 노인은 단추 대신 옷고름을 달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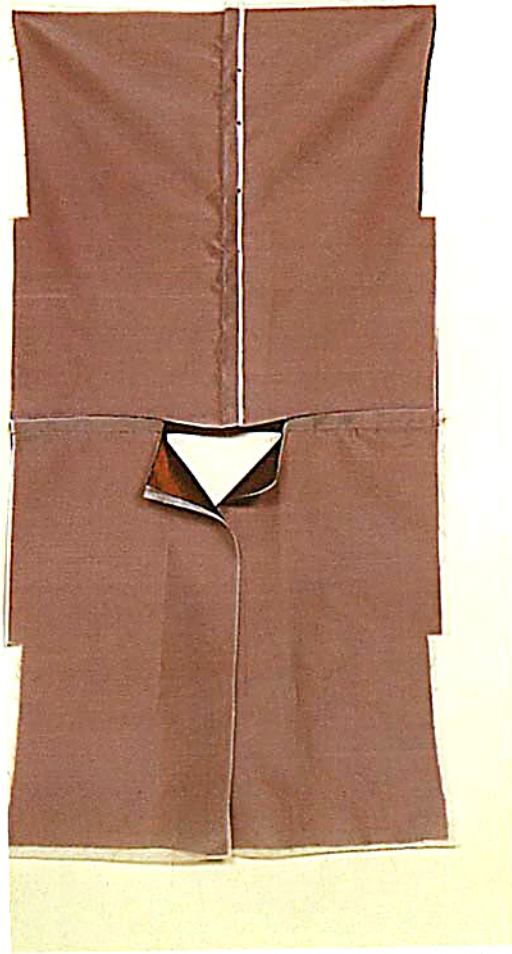


사진 135. 남자 마고자② - 심을 대고 등솔과 어깨솔을 박았다.



사진 136. 남자 마고자③ - 섶을 달았다.



사진 137. 남자 마고자④ - 소매를 달았다.



사진 138. 남자 마고자⑤ - 안감을 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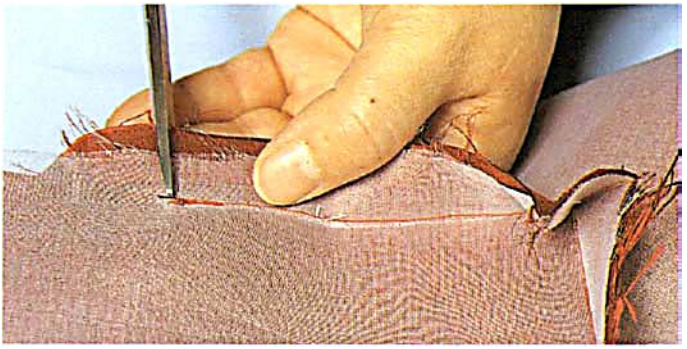


사진 139. 남자 마고자⑥ - 뒤집기 전에 옆트임 부분에 가위집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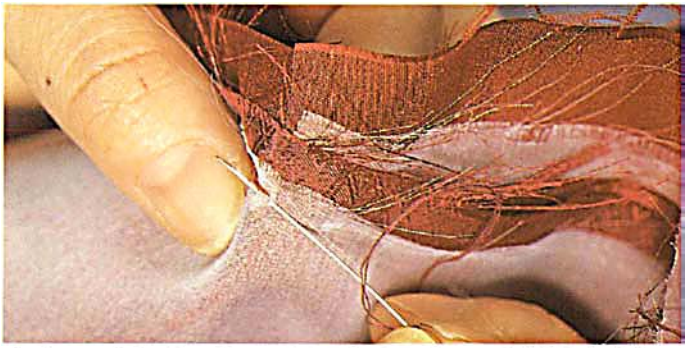


사진 140. 남자 마고자⑦ - 뒤집어서 밀어 넣고, 트임 부분의 앞뒤를 맞추어 한 바늘 떠서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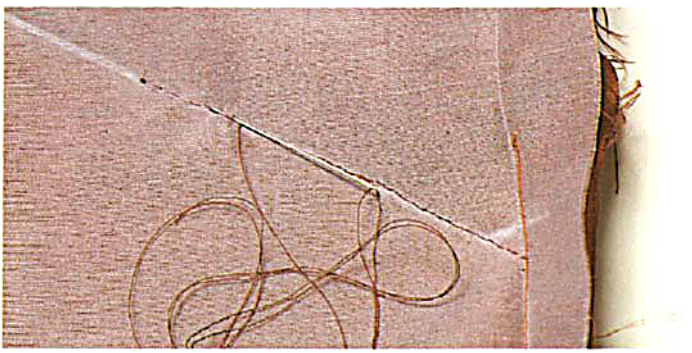


사진 141. 남자 마고자⑧ - 튼튼하게 하기 위해 수구쪽 배래를 되돌아 2번 홈질한다.



사진 142. 남자 마고자⑨ - 고대로 손을 넣어 뒤집어 놓은 모습



사진 143. 남자 마고자⑩ - 안쪽에서 안감과 심을 집어 돌아가면서 세발뜨기를 해서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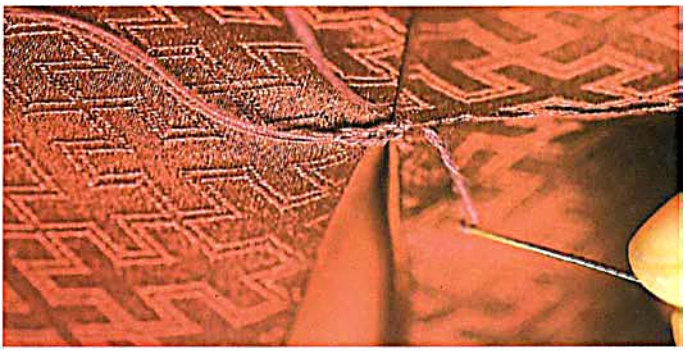


사진 144. 남자 마고자⑪ - 트임 부분을 튼튼하게 바깥쪽에서 4겹의 실로 5번 정도 실고리를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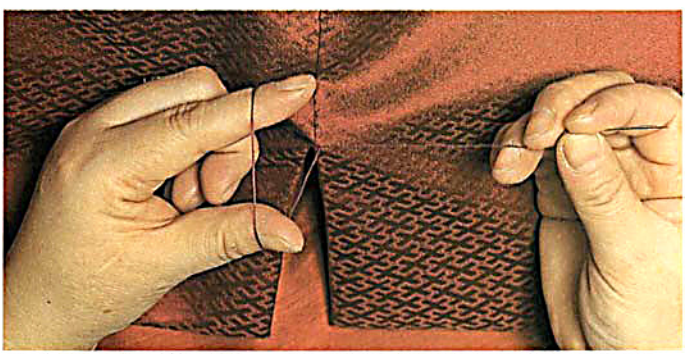


사진 145. 남자 마고자⑫ - 트임 부분에 튼튼하게 실고리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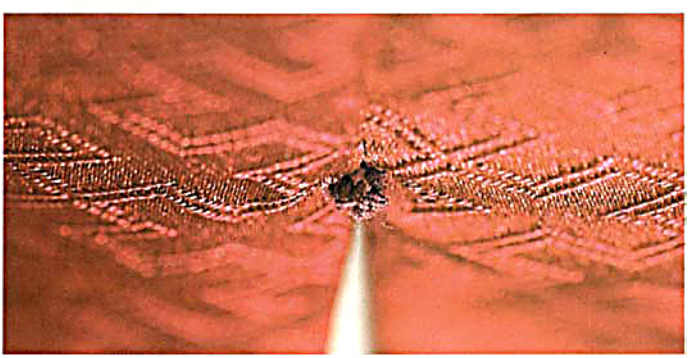


사진 146. 남자 마고자⑬ - 완성된 실고리



사진 148. 남자 마고자⑮ -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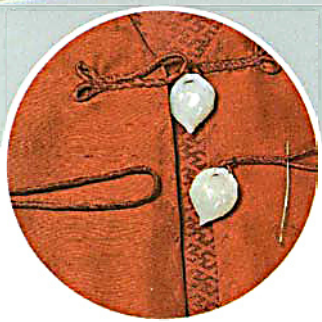


사진 147. 남자 마고자⑭ - 안쪽에서 단추 달기

(4) 남빛 조끼

양단을 44인치 폭으로 마 한치(1m 5cm)를 준비한다. 조끼 길이는 한 자 두치 두푼(61cm)으로, 저고리 길이보다 두푼(1cm) 길게 한다. 품은 뒤품 한자 여섯푼(53cm)·앞품 한자 한푼(50.5cm)으로 저고리 품과 같고, 진동과 고대도 저고리 치수와 같다. 진동은 다섯치 한푼(25.5cm) 내지 다섯치 너푼(27cm), 고대는 세치 여섯푼(18cm)이다. 앞깃 길이는 저고리 깃 길이보다 너푼(2cm) 짧게 다섯치 여섯푼(28cm)이다.

마름질할 때 뒷길은 반을 접어 막힌 쪽으로 품을 하고, 나머지 반을 뒤집어 잡고 앞길을 마른다. 그리고 앞깃 길이 세치 구푼을 도려낸다. 뚱뚱한 노인 옷은 앞길을 옆으로 약간 후리고 배쪽 앞을 늘인다. 마름질과 바느질 방법은 돌 아기의 조끼를 참고하면 된다.

단추를 달 때 단추 구멍은 깃 아래로 5개를 같은 간격으로 단추 크기에 맞추어 긋는다. 호주머니를 다는 방법은 주머니 짼 위에 헝겊(주머니 속)을 대고 갸름하게 네모로 박아 안으로 집어넣고 조끼 입술을 단다. 위 호주머니는 둘째 단추 구멍보다 약간 위에 만들고, 아래 호주머니는 셋째 단추 구멍과 나란히 하여 약간 비스듬하게 한다.



사진 149. 남빛 조끼① - 뒤판 마름질



사진 150. 남빛 조끼② - 뒤판 안쪽에 심을 대 놓는다.



사진 151. 남빛 조끼③ - 앞판에 주머니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



사진 152. 남빛 조끼④ - 앞판의 안쪽에 심을 댄다.



사진 153. 남빛 조끼⑤ - 주머니 입술을 만들기 위해 윗 입술에 단을 붙인다.



사진 154. 남빛 조끼⑥ - 주머니감을 붙여 칼집을 내서 구멍으로 밀어 넣는다.



사진 155. 남빛 조끼⑦ - 주머니감을 밀어 넣은 상태



사진 156. 남빛 조끼⑧ - 주머니 입술을 다는데, 여기에도 심을 댄다.



사진 157. 남빛 조끼⑨ - 주머니 입술의 끝이 사선이 되도록 주머니 안쪽에 붙이고, 잔홈질로 입술을 바느질한다.



사진 158. 남빛 조끼⑩ - 주머니 완성



사진 159. 남빛 조끼⑪
- 뒤판에 안감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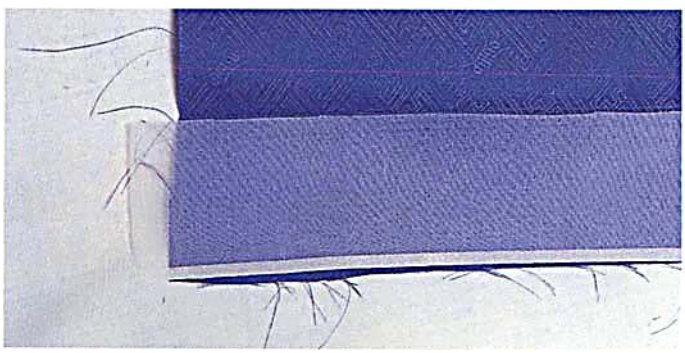


사진 160. 남빛 조끼⑫ - 앞길에도 심을 댄다.



사진 161. 남빛 조끼⑬ - 앞길을 단다.



사진 162. 남빛 조끼⑭ - 앞판에도 안감을 붙인다.



사진 163. 남빛 조끼⑮ - 완성

(5) 짙은 쪽빛 두루마기

한자로는 주의(周衣) 또는 주차의(周遮衣)라고도 한다. 삼국시대의 기본 포(袍)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여러 포들의 영향을 받아 두루마기가 되었다. 고종 때 복제개혁(服制改革) 때 도포(道袍)가 없어지면서 이후 신분의 구분없이 착용하였다.

옷감은 발이 굵은 북덕 명주를 짙은 쪽빛으로 일곱자 여덟치 또는 44인치 폭으로 네마 한치를 준비한다.

두루마기 길이는 두자 네치(120cm)로 잡고, 앞품·뒤품은 뒤반품 다섯치 여덟푼(29cm), 화장 한자 여섯치(80cm), 진동 여섯치(30cm), 고대 네치(20cm)로 한다. 수구는 네치 닷푼(22.5cm)으로 하는데, 겉을 안으로 여섯푼(3cm)쯤 겹쳐 넣어야 수구 안의 다른 빛이 나오지 않아 좋다. 무 아래는 세치 여섯푼(18cm)으로 하고, 위는 두푼(1cm) 쯤 남겨야 무의 꽁지가 예쁘다.

깃은 너비 한치 여섯푼(8cm)인데, 목 뒤 가운데는 한치 닷푼(7.5cm)으로 하며, 깃머리는 두치(10cm)이다. 앞 아래는 자 세치(65cm), 즉 섶·길·무를 합친 앞 도련의 전체 폭이다. 배래는 다섯치 여덟푼 반(29.2cm)인데, 남자 배래는 거의 진동 너비에서 수구를 향해 약간 민듯하게 후릴 뿐 둥글게는 하지 않는다. 앞깃 길이는 여섯치 여섯푼(33cm)이고, 안깃 길이는 앞깃 길이에 한치(5cm)를 더한 크기이다.

겉섶의 너비는 위 두치 두푼(11cm)·아래 네치 한푼(20.5cm)이고, 안섶의 너비는 위 한치 한푼(5.5cm)·아래 세치 한푼 반(18.8cm)이며, 소매는 한자(50cm) 넉넉히 잡고, 동정 너비는 깃 너비 한치 여섯푼(8cm)의 반이 채 못되게 3.6cm로 잡는다.

고름 길이는 긴 고름이 두자 다섯치(125cm), 곁고름은 긴 고름에서

세치(15cm)를 뺀 두자 두치(110cm)이고 너비는 한치 일곱푼(8.5cm)이다. 곁고름은 고대에서 여섯푼(3cm) 밖으로 해서 곧게 내려온 선에서 안팎 길의 도련을 맞추어서 긴 고름 밑선과 맞게 단다. 안고름의 크기는 길이가 긴 고름 한자(50cm)·짧은 고름 여덟치(40cm), 너비가 여덟푼(4cm)이다.

옷감에서 길을 떼고 무를 엇뜨고, 소매를 떼고 겉섶과 안섶을 마른다. 그리고 깃과 고름을 뗀다. 앞·뒤품은 같이 다섯치 여덟푼(29cm)을 하는데, 소매쪽은 너푼(2cm) 시접을 넣고 등솔쪽은 여덟푼(4cm) 시접을 넣는다.

그림 7. 두루마기 명칭 및 치수(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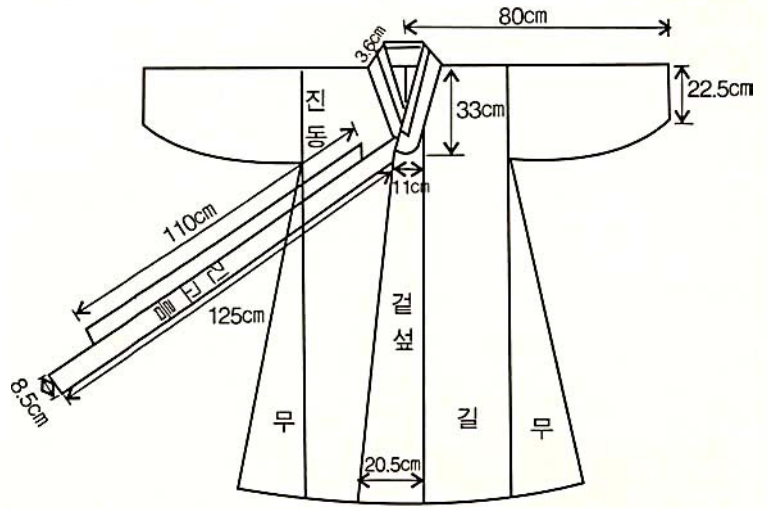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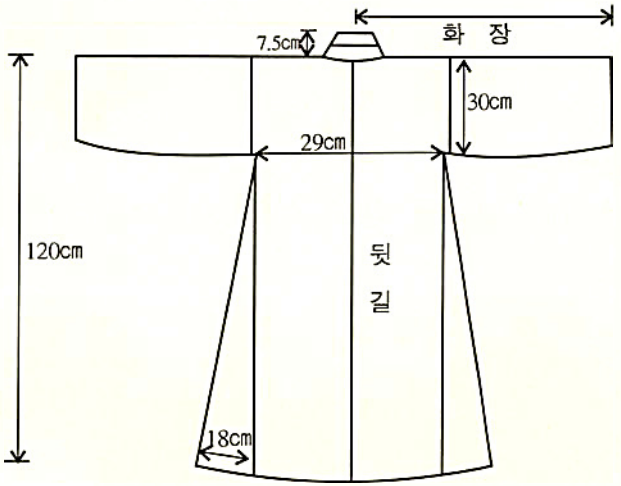


그림 8. 두루마기 명칭 및 치수(뒤)



중심에서 고대의 반(½)을 뺀 만큼 남겨 놓고 어깨부터 박는다. 앞·뒷길에 무를 붙일 때 무를 앞(뒤)길 직선에 대고 길이를 재서 한푼(0.5cm)쯤 짧게 하여 무의 폭을 반으로 접어 사선을 길에 붙인다. 겉섶과 안섶을 단다.

깃은 고대 네치(20cm)의 반인 등솔에서 두치(10cm)에 앞깃 여섯치 여섯푼(33cm)을 앞섶에 순편하게 놓는다. 깃이 되면 자꾸 기어올라간다. 깃(안깃·겉깃)을 겹으로 하되, 고대를 중심으로 한푼(0.5cm)쯤 좁게 한다. 깃 너비는 한치 여섯푼(8cm)인데 한치 닷푼(7.5cm)쯤 한다.

수구는 안감을 넣으면 안이 밀려나오는 수도 있고 겉빛과 다르므로, 겉감을 여섯푼 내지 여덟푼(3~4cm) 넉넉히 하여 안쪽으로 한푼(0.5cm)쯤 접어서 소매 부리를 앞섶쪽으로 접어 배래로 내쳐 박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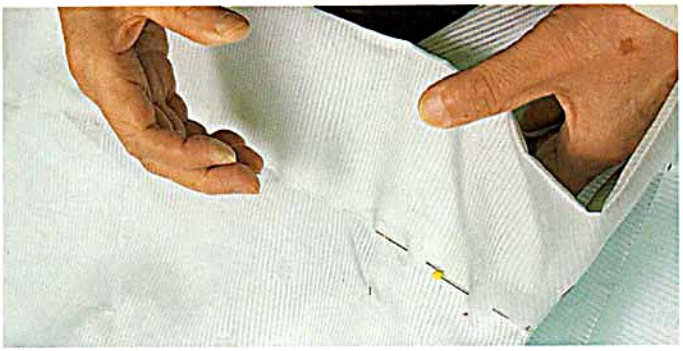


사진 164. 두루마기 깃달기①



사진 165. 두루마기 깃달기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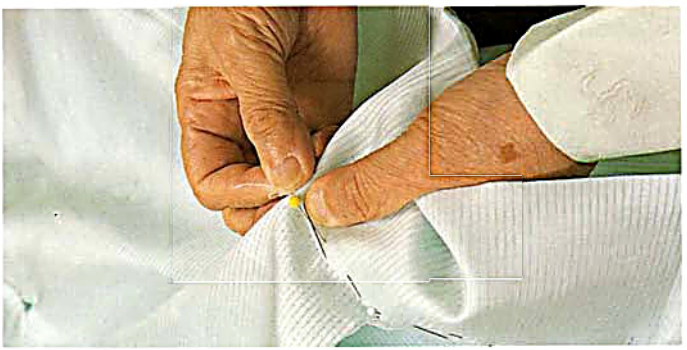


사진 166. 두루마기 깃달기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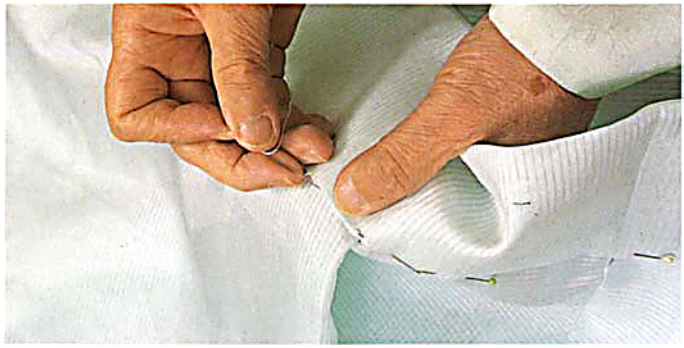


사진 167. 두루마기 깃달기④



사진 168. 두루마기 깃달기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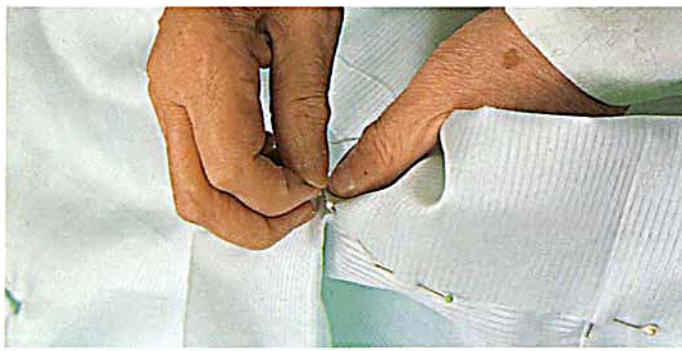


사진 169. 두루마기 깃달기⑥



사진 170. 두루마기 깃달기⑦

(6) 도포

도포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와 연결된 허리부터 뒷길의 중심이 터져 있고, 그 위에 뒷자락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래서 말을 탈 때나 앉을 때 편리하고 뒷모습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시·항라·명주를 주로 쓰지만, 제사 때 입는 것은 베로 만든다. 빛깔은 옥색나 백색으로 서른자(15m)를 준비한다.

도포 길이는 두자 가웃(125cm)으로 하고, 앞품과 뒷품은 크기를 같게 반품 여섯치(30cm)로 한다. 진동은 여섯치 너푼(32cm), 화장은 자 여섯치 닷푼(82.5cm), 고대는 네치 서푼(22.5cm)이다. 두리 길이는 자 한치(55cm)이고, 완성 폭은 한치 너푼(7cm)이지만, 폭을 마름질할 때는 겨드랑이 두푼(1cm)·시접 너푼(2cm)을 포함해서 두치(10cm)로 한다. 등바대 길이는 시접 닷푼(2.5cm)을 포함해서 여덟치 여덟푼(44cm)이며, 반폭은 여덟치 두푼(41cm)·왼폭은 자 여섯치 너푼(82cm)이다.

큰 무는 아래 너비 여섯치 여섯푼(33cm)·위 너비 두치 여덟푼(14cm)·길이 두자 너푼(102cm)이고, 작은 무는 아래 너비 네치 닷푼(22.5cm)·위 너비 여섯푼(3cm)·길이 두자 너푼(102cm), 그리고 뒤를 여미는 직선 무인 홍두깨무가 있다. 뒷바대·홍두깨무의 아랫단은 한치 너푼(7cm)이고, 홍두깨무의 뒷단 너비는 여덟푼(4cm)에 시접 두푼(1cm)을 더한 크기이다.

겉섶의 윗치수는 섶 위 깃 다는 밑 완성 치수가 두치 두푼(11cm)이고, 아래는 재단을 네치 여섯푼(23cm)이지만 완성은 세치 여덟푼(19cm)이며, 섶단은 한치 서푼(6.5cm)이다. 안섶은 위쪽이 아홉푼(4.5cm), 아래가 네치 여덟푼(24cm)이고, 단은 여섯푼(3cm)을 포함하고 아랫단은 한치 너푼(7cm)이다.

앞 곁도애는 앞길의 진동 선에서 위로 두치(10cm) 떨어지게 아랫단까지 내려오며, 치수는 길이 네치(20cm)·너비 두치 네푼(12cm)이다. 뒷 곁도애의 길이는 두자 두치(110cm)에 시접분 여섯푼(3cm)을 더하고, 품은 세치 너푼(17cm)이다.

소매는 아홉치(45cm)·소매 부리는 네치 닷푼(22.5cm)이고, 앞깃 길이는 일곱치(35cm)이며, 안깃 길이는 앞깃 길이에 한치(5cm)를 더해 여덟치(40cm)이다.

고름은 긴 고름 두자 네치 여섯푼(123cm)×한치 여섯푼(8cm), 곁고름 두자 두치 여섯푼(113cm)×한치 여섯푼(8cm)인데 양쪽에 서푼(1.5cm)씩 시접이 있다. 안고름 길이는 긴 것 두자 두치 두푼(111cm)·곁고름이 자 너푼(52cm)이고, 너비는 한치(5cm)이지만 마름질은 한치 여섯푼(8cm)으로 한다. 안의 짧은 고름은 겨드랑이에 달 때 제비부리 모양으로 접어 실로 엮는다.

동정은 가로 한치 여섯푼(8cm)×세로 자 여덟치(90cm)로 마름질하지만, 완성 치수는 여덟푼(4cm)·자 여섯치 여덟푼(84cm)이다. 각 솔기의 시접은 등솔 여덟푼(4cm), 어깨 여덟푼(4cm), 품 두푼(1cm), 아랫단 한치 너푼(7cm), 소매단 한치 너푼(7cm)이다.

길 네쪽부터 마르고, 품을 잡아 겨드랑이를 베고 두리(넓은 소매)를 마른다. 무를 잡아 작은 무를 먼저 마르고, 큰 무와 작은 무를 어슷하게 마름질하고, 뒤품에 맞추어 홍두깨무를 마른다. 그리고 겉섶·안섶·깃·겉고름·안고름을 마른다.

지을 때는 뒷길 등솔을 박고, 뒷 곁도애를 뒷길에 붙인다. 이때 뒷길을 뒤집어 등바대에 시접 서푼(1.5cm)을 넣어 겨드랑이와 맞추어 풀로 붙여 다리고, 나중에 화서 뒤집는다. 두리는 소매와 같이 박는다. 아랫단은 시접을 넣고 다른 단을 대지 않고 제물로 접고, 양쪽

귀는 위로 두푼(1cm) 접어 어슷하게 넣고 공그른다. 그리고 앞길 겨드랑이에 앞 곁도애를 붙인다. 앞 양쪽 길에 무를 대칭으로 마주보게 붙인다.

앞길에 작은 무 어슨 솔기를 붙인다. 아래쪽 단쪽에서는 약간 옮겨 붙이는데, 단을 접을 때 단이 삐쳐 길어지는 것은 도련이 널부러지기 때문이다. 큰 무의 곧은 솔기는 작은 무의 곧은 솔기에 붙이고, 홍두깨무를 큰 무의 어슨 솔기에 붙인다. 안섶의 어슨 솔기가앞길에 붙게 한다. 겉섶은 곧은 솔기를 앞길에 붙이고, 어슨 솔기에는 곧은 솔기의 다른 단을 댄다. 이때 겉섶 단의 너비는 한치 서푼(6.5cm)이다. 그리고 겉섶은 반고대 두치 두푼 반(11.25cm)~여섯푼(3cm)을 등솔쪽으로 내어 단다.

소매를 달 때 한치 두푼(6cm) 부리 단은 다른 천으로 단을 대지 않고 제감으로 접되, 시접은 두푼(1cm)으로 한다. 다듬은 모시로 지은 도포인 경우에는 풀로 붙인다. 소매는 시접 너푼(2cm)을 주어 길에 붙인다. 소매 부리(수구)는 네치 닷푼(22.5cm)만 남기고 두리를 호아 간다. 두리의 곡선은 깃처럼 둥글리고, 등바대를 동에 붙여 같이 미리 박는다. 그리고 소매를 뒤집는다. 홍두깨무 2개를 등솔 한복판 선과 마주만나게 한 다음, 등바대에 대고 젖혀서 박는다. 등바대 양곁을 겨드랑이에 판판히 맞게 한다. 깃을 달 때 앞깃은 일곱치(35cm)로, 고대는 네치 닷푼(22.5cm), 안깃은 일곱치(35cm)에 한치(5cm)를 더해서 단다. 띠는 가는 실띠인 세조대(細組帶)로 한다.



사진 171. 도포

(7) 관대

조선시대에는 관직이 없는 사람도 평생 한번 혼례 때에는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관복은 사모(紗帽)와 문관 당상관의 흉배인 쌍학(雙鶴)을 부착한 단령(團領), 대(帶), 화자(靴子)로 구성되어 있다.

옷감을 겉감은 북청색·자주색·남빛·다홍색 중에서 하나, 안감은 남색으로 숙고사·갑사·운문갑사 중에서 골라 준비한다. 옷감 분량은 44인치 폭으로 겉감은 여덟마 반, 안감은 여덟마가 필요하다.

관대 길이는 두자 일곱치 여덟푼(139cm)인데, 단의 너비 한치 두푼(6cm)에 시접 두푼(1cm)·어깨 시접(4cm)를 더해 총길이는 석자(150cm)가 된다. 뒤품은 여섯치 두푼(31cm)에 등솔 시접 여덟푼(4cm)을 더하고, 반고대는 두치 여덟푼(14cm)·온고대는 다섯치 여섯푼(28cm)이다.

진동은 여섯치 너푼(32cm), 화장은 자 일곱치 너푼(87cm)·어깨는 여덟치 두푼(41cm)에 시접 한치(5cm)를 더한다. 두리는 길이 자 한치 너푼(57cm)·품 한치 일곱푼(8.5cm)에 시접 두푼(1cm)을 더하고, 배래 시접은 너푼(2cm)이다.

큰 무의 길이는 자 일곱치 너푼(87cm), 윗너비는 두치 두푼(11cm)에 시접 너푼(2cm)을 더하고, 아래 너비는 일곱치 아홉푼(39.5cm)에 너푼(2cm)·서푼(1.5cm)을 더한 크기이다. 작은 무는 길이 자 일곱치 두푼(86cm), 윗너비 두치(10cm), 아래 너비 일곱치 일곱푼(38.5cm)이다.

겉섶의 치수는 길이 두자 아홉치 닷푼(146cm)·윗너비 세치(15cm)·아랫너비 다섯치 너푼(27cm)·길쪽 시접 여섯푼(3cm)이며, 겉섶단은 길이 두자 일곱치 여덟푼(139cm)·시접 서푼(1.5cm)·너비 한치 서푼(6.5cm)·섶쪽 시접 너푼(2cm)이다. 안섶의 크기는 길이 두자 여

섯치 너푼(132cm)·윗너비 세치 너푼(17cm)·아랫너비 다섯치 너푼(27cm)·길쪽 시접 일곱푼(3.5cm)이며, 안섶단은 길이 한치 서푼(6.5cm)·단 시접 서푼(1.5cm)이다.

깃의 전체 길이는 두자 여섯치 한푼(130.5cm)인데 그 세부 치수를 보면, 안깃 길이는 앞 다섯치 두푼(26cm)에 둥글리는데 네치(20cm)가 들어가고, 앞깃 길이는 자 세치(65cm)이다. 그리고 겉깃의 너비는 아홉푼(4.5cm)이고, 안깃 너비는 한치 여섯푼(8cm)에 양쪽 시접 두푼(1cm)씩을 더한 크기다.

고름은 총 10개다. 겉에 다는 겉고름은 두짝이고, 길이 두자 여섯치(130cm)·너비 두치(10cm)이다. 겉의 곁고름은 한짝으로 겉고름보다 세치(15cm) 짧고, 너비는 두치(10cm)이다. 안고름의 겉고름은 두짝으로 길이 자 여덟치(90cm)·너비 한치 일곱푼(8.55cm)이며, 안고름의 곁고름은 한짝이고 길이는 자 여섯치(80cm)이다. 띠고름은 띠 붙들어 매는 고름으로 두짝이고, 길이 자 네치(70cm)·너비 여섯푼(3cm)이다. 띠 집어넣는 고리는 띠가 들어갈 만큼 크기로 두짝을 만드는데, 길이는 한자(50cm)·너비는 닷푼(2.5cm)이다. 박을 때는 길이를 반 접어 눌러 박는다. 동정은 길이 자 일곱치(85cm)·너비 한치 너푼(7cm)에 단 분량을 더한다.

마름질은 우선 44인치 폭을 반으로 접어 여섯자를 길로 뗀다. 골을 접어진 곳에서 고름분 두치 두푼(11cm)을 뗀다. 그리고 두리와 진동을 정하여 마름질한다. 44인치 반으로 접어 큰 무·작은 무를 어슷하게 떼고, 소매를 마름질하고, 소매를 뗀 나머지 폭 부분에서 안섶과 겉섶을 길 길이와 같이 마른다. 안섶은 세치(15cm) 짧게 마르고, 둥근 깃[단령(團領)]은 사선으로 마르므로 한마 한치를 남겨야 한다. 겉고름과 안고름은 길에서 나온다.

안과 겉을 같은 순서로 바느질하는데, 등솔을 위부터 시접 여덟푼(4cm)을 넣고 박는다. 어깨는 시접 한치(5cm)를 넣고 박고, 작은 무는 뒷길 양쪽에 붙인다. 앞길 양쪽에 큰 무를 붙이고, 안섶을 앞길에 등솔 솔기 선대로 붙여 박는다. 어슨 솔기를 앞길에 붙인다.

겉섶은 앞길에 곧은 솔기대로 붙이고, 겉섶 어슨 솔기에는 직선으로 꺾은 너비 한치 서푼(6.5cm)의 단을 앞쪽 안에 붙인다. 도련을 꺾을 때 아랫단은 한치 너푼(7cm) 정도로 꺾어서 안감과 겉감을 똑같이 접는다. 그리고 안팎 단은 똑같이 공그른다(스며뜬다).

겉과 안의 거죽을 등솔끼리 맞추어 안·겉의 무를 마주 대고 박아서 뒤집는데, 이때 안을 두푼(1cm)쯤 들이밀게 박아야 남빛이 겉으로 내서 밀지 않는다.

넓은 소매를 달 때는 저고리의 진동에 소매를 달듯 넓게 달고, 무를 박은 것을 인두질하여 뒤집어서 뒤품 등솔쪽으로 앞을 집어 넣는다. 소매 속으로 들어간 안 소매를 뽑아 내어 등솔 솔기를 마주보게 징근다(고정시킨다).

겨드랑이 무의 가윗밥 있는 곳을 잘 맞추어 속으로 징거놓고 안팎 두 솔기씩 4개의 솔기가 잘 맞도록 두리를 소매 부리 네치 너푼(22cm)을 남기고 둥글게 박는다. 그리고 바깥으로 뒤집어서 무 뒤집은 것들을 한데 합하여, 무가 붙은 것을 세치 여섯푼(18cm) 남기고 뒤로 접어 붙인다. 무의 꽁지는 위로 한푼(5mm)쯤 남는다. 큰 무를 위로, 작은 무를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맨 위를 네치(20cm)쯤 상침을 놓든지 안팎을 겪어 내리 박는다.

깃을 달 때 안깃은 두루마기 깃을 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겉깃은 110cm 폭의 겉감을 정사각형 상태에서 사선으로 접어서 한치 여섯푼(8cm) 너비의 깃 폭을 마름질한다. 깃 폭의 중심을 늘어나지 않

게 한번 추어준다. 깃 너비 구푼(4.5cm) 만큼 안과 밖을 늘어나지 않게 추어 준다. 깃의 중심에 매듭끈을 넣어 반박음질로 바느질한다. 깃 모양을 만들어 뒤집는다.

동정은 안깃에서 바깥으로 보이게 단다. 안깃 너비에 양쪽에 시접이 들어가서 동정 너비는 한치 너푼(7cm)이다.

그리고 흉배를 다는데 앞쪽은 섶과 길을 반으로 타서 깃 밑에 바짝 달고, 뒤는 등솔을 중심으로 진동 밑으로 진동 척수대로 단다. 고름은 각각 접어서 단다.

각띠 매는 고름은 겨드랑이를 싸잡아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단다. 맬 끈을 넣고 끈이 들락날락할 만큼 되도록 빡빡하게 꿰맨다. 각띠집 고름을 단다.



사진 172. 관대

(8) 앵삼(鶯衫)

예전에는 조선시대 유생(儒生)들이 과거 급제했을 때나 관례(官禮)의 삼가(三加) 때 입었던 옷이다. 모시·생초 등의 옷감으로, 겉감은 연두색·안감은 노랑색 44인치 폭 여덟마, 모시로는 서른자가 있어야 한다. 둥근 깃은 검은빛으로, 분량은 44인치 한마 한치(110cm)가 든다.

치수는 관대와 같고, 무가 하나이다. 앵삼의 길이는 두자 여섯치 여섯푼(113cm)이고, 단 너비는 한치 서푼(6.5cm)에 시접 두푼(1cm)을 더한다. 단은 검은 헝겊으로 선을 두른다. 뒤품은 반품으로 위는 여섯치 두푼(31cm)에 등솔 시접 여덟푼(4cm)을 더하고, 아래는 여섯치 두푼(31cm)에 등솔 시접 여덟푼(4cm)과 한치 닷푼(7.5cm)을 더해 준다.

고대는 반고대 두치 너푼(12cm)·온고대 네치 여덟푼(24cm), 진동은 여섯치 너푼(32cm), 화장은 자 일곱치 너푼(87cm), 어깨는 여덟치 두푼(41cm)에 시접 한치(5cm)를 더한 값이다. 무의 길이는 자 일곱치 너푼(87cm), 윗너비는 시접을 포함해 두치 여섯푼(13cm), 아래 너비는 한자(50cm)에 너푼(2cm)·서푼(1.5cm)을 더한다.

겉섶의 치수는 길이 두자 아홉치 두푼(146cm), 윗너비 두치 여섯푼(13cm), 아래 너비 다섯치 너푼(27cm), 검은 헝겊 단은 한치 서푼(6.5cm), 길쪽 시접 여섯푼(3cm), 겉섶 단쪽 시접 너푼(2cm), 겉섶 단 길이 두자 일곱치 여덟푼(139cm), 겉섶 너비는 한치 서푼(6.5cm)에 시접 서푼(1.5cm)과 섶쪽 시접 너푼(2cm)을 더한다.

안섶의 경우는 길이 두자 여섯치 너푼(132cm), 윗너비는 두치(10cm)에 단 한치 서푼(6.5cm)·길쪽 시접 일곱푼(3.5cm)·안 시접 서푼(1.5cm)을 더하고, 아래 너비는 다섯치 너푼(27cm)에 한치 서푼

(6.5cm) · 일곱푼(3.5cm) · 서푼(1.5cm)을 합친 크기이고, 옆단은 한치 서푼(6.5cm), 시접은 일곱푼(3.5cm)이다.

깃 치수는 앞깃 길이 자 세치(65cm), 안깃 길이 앞 다섯치 두푼(26cm)이다. 통털어 두자 여섯치 한푼(130.5cm), 둥글리는데 네치(20cm)이다. 그리고 겉깃 너비는 아홉푼(4.5cm), 안깃 너비는 한치 여섯푼(8cm)에 시접을 양쪽에 두푼(1cm)씩 준다.

고름은 세종류가 있다. 먼저 겉고름 두짝은 길이 두자 여섯치(130cm) · 너비 두치(10cm)이고, 곁고름 한짝은 겉고름보다 세치(15cm) 짧게 두자 세치(115cm)이며, 띠고름은 길이 두치 너푼(12cm) · 너비 여섯푼(3cm)이다. 띠고름을 집어넣는 고리는 띠가 들어갈 만큼 길이 한자(50cm)를 반으로 접어서 눌러 박아 놓으며, 너비는 닷푼(2.5cm)이다.

동정은 너비 한치 너푼(7cm) · 길이 자 일곱치(85cm)이고, 두리는 길이 자 한치 너푼(57cm) · 품은 시접 두푼을 포함해 한치 아홉푼(9.5cm) · 배래는 시접 너푼(4cm)이다.

먼저 반을 접어 석자(150cm)를 길감으로 마른다. 그리고 두리 자 두치(60cm)를 마르고, 무감으로 자 여덟치(90cm)를 뗀다. 겉섶은 길과 같은 길이로 마르고, 안섶 · 깃 · 고름을 마른다.

짓는 법은 관대와 같으나, 단을 안으로 접어 넣지를 않고 검은 헝겊으로 겉에서 젖혀 대고 박아서 내리 안과 같이 도련대로 박아서 뒤집는다. 무는 진동에 대어 박고, 단을 역시 검은 헝겊으로 둘러 뒷길쪽으로 넘긴다. 뒷단은 뒷길에 검은 헝겊을 대어 도련대로 오려서 단을 박거나 화서 겉으로 넘긴 뒤 공그른다. 앞단은 앞섶 · 앞길 · 무를 한데 놓고 도련대로 검은 헝겊을 대고 시접을 넣어 둥글게 오려 박은 뒤, 겉으로 넘겨서 공그른다. 직선으로는 하기 어렵고 도련대로 자연스럽게 오려서 한 것이 가장 순편하다.



사진 173. 앵삼

(8) 학창의(鶴氅衣)

학창의는 옛날부터 신선(神仙)이 입는 옷이라고 하였다. 학(鶴)처럼 고결하고 숭고한 기품의 상징으로 덕망높은 도사(道士)나 학자가 입었다. 백색으로 만들고, 소매가 넓고 옷깃·수구·도련에 검은 선을 둘러 심의와 비슷한 모양이다. 허리에 매는 띠가 달려 있다.

모시·베·항라·생초 등의 옷감으로, 44인치 여덟마 또는 모시 서른자면 된다. 검은 선을 두르는데, 고름 등에 44인치 세마·모시 열여섯자가 든다. 학창의 길이는 두자 여섯치(130cm), 왼품은 자 두치(60cm), 화장은 자 일곱치(85cm), 수구는 네치 너푼(22cm)인데 수구에 검은 선을 네치 너푼(22cm)에 두치(10cm)를 더한 길이만큼 두른다. 진동 여섯치 너푼(32cm)·두리 자 너푼(52cm)이고, 무는 시접 너푼 포함해 길이 두자(100cm)·윗너비 네치 닷푼(22.5cm)·아래 너비 네치 닷푼(22.5cm)이다.

겉섶은 윗너비 네치 일곱푼(23.5cm)·아래 너비 네치 일곱푼(23.5cm)이고, 안섶은 윗너비 두치(10cm)·아래 너비 네치 너푼(22cm)을 준비한다. 깃은 검정색이며 앞깃이 길이 일곱치(35cm)·고대 네치 여덟푼(24cm)·안깃 길이 마 닷푼(95cm)×너비 한치 여섯푼(8cm)·깃 단의 섶위는 두치 두푼(11cm) 크기다. 고름은 긴 고름 두자 다섯치(125cm)×한치 아홉푼(9.5cm), 짧은 고름 두자 두치(110cm) 한치 아홉푼(9.5cm)이다.

마름질은 관대와 비슷하다. 바느질할 때 등솔은 진동 길이 만큼 두고 등솔 밑으로 내리 터서 양쪽으로 한치 두푼(6cm) 너비로 선을 두른다. 무의 옆에서 아래로부터 아홉치(45cm)를 올려 튼다. 역시 한치 두푼(6cm) 너비로 검은 선을 두르고, 깃과 고름도 검은 빛으로 하고 동정만 흰빛으로 한다. 단은 도련대로 박아 겉으로 넘겨 공그른다.



사진 174. 학창의



사진 175. 유건

(9) 유건(儒巾)

유건은 조선시대 유생(儒生)들이 평상시에 쓰던 건(巾)이다. 검은 베로 자루 모양으로 만들어 양옆을 깊숙히 집어넣은 다음 윗쪽 솔기 부분을 뒤로 한치(5cm) 정도 눕히면서 귀를 자연스럽게 빼 사(士)자 모양으로 쓴다.

검은빛의 베를 한자 한치(55cm) 준비해, 가로 다섯치 여덟푼(29cm)·세로 일곱치(35cm)·단 너비 한치 닷푼(7.5cm)의 크기에 세로 여섯푼(3cm)·가로 서푼(1.5cm)을 더하여 마른다.

지을 때는 세로로 혼다. 솔기를 가운데로 하여 접어 위를 막고, 몸통은 반으로 접고 다시 반씩 접는데 양쪽을 두겹씩 되게 안으로 들여보낸다. 위를 접어 귀퉁이를 가운데 솔기로 들여보내고 양쪽 귀는 세모로 나오게 한다. 그리고 긴 끈을 접어 갓처럼 양옆에 달기도 한다.

(10) 행전

겨울에는 옥양목으로 · 여름에는 모시로 하며 제사 때는 베로 만든다. 치수는 길이 네치 너푼(22cm) · 너비 세치 너푼(17cm), 끈 길이는 긴 끈 자 두치(60cm) · 짧은 끈 한자(50cm)이다. 단 너비는 윗단 한치 두푼(6cm) · 아랫단 한치(5cm) 크기로 한다.

가루지로 골로 접어 폭대로 길이를 삼아 너비 세치 너푼(17cm)에, 단 너비 두치 두푼(11cm)에 시접을 서푼(1.5cm)쯤 여유를 두고 마른다. 먼저 반으로 접어 아랫단쪽을 남기고 호고, 윗단을 접어서 공그른다. 아랫단에는 화서 뒤집거나 접어서 공그른다. 끈을 접어 단 끈에 넣고 뒤집는다.

(11) 허리띠

양단이나 숙고사 옥색 또는 보라색을 이용해 길이 세자 · 너비 한치 두푼(6cm) 크기로 만든다. 마름질할 때는 너비 두치 너푼(12cm) · 길이 석자에 시접 서푼(1.5cm)을 더해서 자른다. 바느질해 가운데 창구멍을 내고 화서 뒤집는다.

(12) 대님

옥색 · 보라 · 남빛 중에서 하나의 색을 택해 양단이나 숙고사를 준비한다. 길이 자 세치(65cm) · 너비 한치 너푼(7cm)에 시접을 서푼(1.5cm) 보태어 자른다. 박아서 창구멍을 내고 화 뒤집는다. 너무 구길 것 같으면 공글려도 좋다.

(13) 전복[답호]

조선시대 무관(武官)들이 군복(軍服)으로 입었던 홑옷으로 소매와 섶이 없다. 양옆과 등솔기가 허리에서 아래 끝까지 트여 있다. 고종

(高宗) 때 소매 넓은 옷의 착용을 금하면서 문무 관리들이 평상복으로 입게 되었다.

남색 갑사 44인치 세마 반이면 된다. 길이는 두자 네치(120cm)에 시접 두치(10cm)를 더하고, 품은 자 한치 여섯푼(56.4cm)이고, 무는 길이 한자 아홉치 닷푼(97.5cm)·윗너비 여섯푼(3cm)·아래 너비 세치 닷푼(17.5cm)이다.

두루마기 마름질처럼 반을 접어 뒷자락을 하고, 앞자락은 한치(5cm) 길게 한다. 무를 마르고, 뒤품을 넉넉히 말라 단을 제단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앞단을 하는데, 단 너비는 한치(5cm)이다. 아랫단은 단 너비를 한치 한푼(5.5cm)으로 바느질한다. 옆은 아랫단에서 네치(20cm)만 트고, 뒤는 등솔에서 진동 밑 높이로 튼다.



사진 176-① 전복[답호]



사진 176-② 전복[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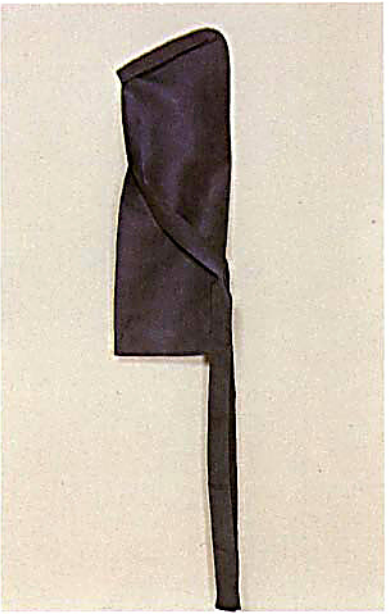


사진 177. 복건

(14) 복건

갑사로 겉은 검은빛·안은 남빛으로 만든다. 옷감은 44인치 마 반이면 넉넉하고, 안감도 같은 분량이면 된다.

치수는 길이 두자(1m), 긴 끈 길이는 마 반이고 짧은 끈은 긴 것보다 두치(10cm) 짧게 하며, 너비는 44인치에서 반 넘게 24인치쯤으로 한다. 길이는 두자로 하고, 긴 끈·짧은 끈은 시접 두푼(1cm)을 보태어 마른다. 복건 폭 24인치를 떼어 낸다.

안팎을 겹쳐서 목 밑까지 뒤를 짼다. 머리 뒷부분을 위 1/3에서 정삼각형으로 접어 위아래로 둥글린다. 뒤통수가 나오도록 목 뒤는 약간 후리고, 양쪽 단을 한다. 끈도 남빛 갑사로 심을 넣어 화 뒤집는다. 끈은 이마 밑에서 네치(20cm)에 단다.

2) 여자 혼례복

(1) 연두 회장저고리[5]

봄·가을에는 국사나 숙고사, 여름은 생고사·갑사·무늬있는 항라, 겨울에는 양단·고단·모번단을 주로 쓴다. 겉감은 연두색·안감은 흰색으로 하며, 겉감·안감 각 44인치 두마 반이면 된다.

저고리의 치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뒷길 다섯치(25cm)·앞길 다섯치 여섯푼(28cm)·앞품 네치 일곱푼(23.5cm)·뒤품(반품) 네치 너푼(22cm)·화장 자 네치 두푼(71cm)·진동 네치 두푼(21cm)·배래 네치 닷푼(22.5cm)·수구 두치 닷푼(12.5cm)이다.

겉섶 너비는 위 아홉푼~한치(4.5~5cm)·아래 아홉푼 반~한치 한푼(4.75~5.5cm)으로 하고, 안섶 너비는 위 서푼(1.5cm)·아래 너푼(2cm)이다. 깃은 너비 일곱푼~여덟푼(3.5~4cm)·앞깃 길이 네치 너푼(22cm)·안깃 길이 다섯치 너푼(27cm)이고, 고대는 두치 여덟푼~세치 두푼(14~16cm), 곁마기는 길이 세치(15cm), 끝동 너비는 한치(5cm), 거들지 너비는 한치 두푼(6cm), 동정 너비는 두푼 반(1.25cm)이다.

고름은 긴 고름이 자 여덟치(90cm)×한치(5cm), 곁고름은 너비는 같으나 길이는 긴 고름보다 한치 일곱푼 짧게 한다. 겉고름과 곁고름은 각각 다섯치(25cm)·네치(20cm)의 너비로 겉감과 같은 심을 너비 다섯치(25cm)·네치(20cm) 넣어 고를 매었을 때 찌부러지지 않게 한다.

마름질할 때는 완성품 치수에 여섯푼(3cm)쯤 여유를 두고 길을 마른다. 뒷길이는 위로 여섯푼(3cm), 아래로 서푼(1.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섯치 두푼(26cm)쯤으로 마른다. 앞길이 역시 위 여섯푼(3cm), 아래 서푼(1.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다섯치 닷푼(27.5cm)으로 마른다.

5) 거들지가 있다. 거들지는 소매 끝동에 흰색 천으로 덧대는 것을 말하며, 거들지를 대는 것은 의례용(儀禮用)임을 뜻한다. 그래서 가난한 집의 경우 일상복으로 입던 저고리에 거들지를 덧대 혼례복 대용으로 입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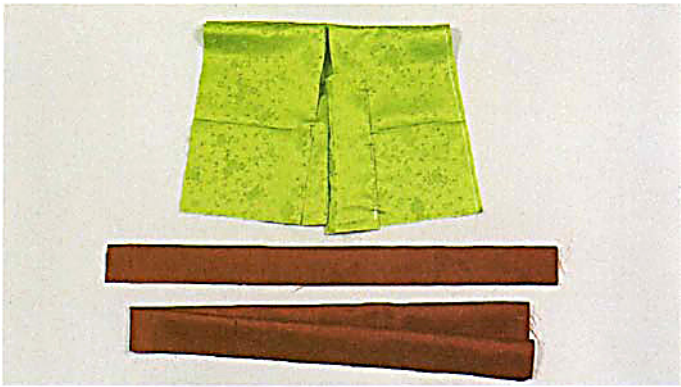


사진 178. 연두 회장저고리① 마름질 - 길과 깃(中) · 고름

소매는 펴서 한자(50cm)로 하고, 자 네치(70cm)에 여덟푼(4cm)을 더해 자 네치 여덟푼(74cm)으로 마른다. 뒷도련은 겨드랑이 밑에서 너푼(2cm) 내려와서 등솔 밑까지 시접 두푼(1cm)쯤 남기고 둥글려 간다.

인체 공학적으로 새가슴처럼 나온 사람은 앞품을 좀 넓게 하고, 배가 나온 사람은 안팎 섶을 좀 내어서 붙여야 한다. 큰 사람은 품을 닷푼(2.5cm)쯤 늘이고, 화장은 한치(5cm)쯤 늘이면 된다.

고대 너비를 빼고 어깨를 호고, 등솔은 시접을 넣고 고로 접은 대로 혼다. 겉섶은 고대에서 여섯푼 앞으로 내어 앉히고, 등솔 솔기에 맞추어 안섶을 단다. 안섶은 길에 어슨 솔을 붙이고, 길에 각각 너푼(2cm)의 시접을 넣고 소매를 단다. 소매 끝에 끝동을 달아 겨드랑이쪽으로 회장을 달고 길에다 내쳐 붙여 단다. 회장은 겨드랑이를 중심으로 길이 세치(15cm)로, 어깨에서 두치(10cm) 아래에 달되, 너비는 한치 너푼(7cm) 정도면 된다.

길과 소매를 달고 펴서 똑같이 말라 안을 껴 앞뒤 도련을 호고, 소매부리도 박아 고대로 빼낸다. 그리고 앞길을 뒷길 속으로 집어 넣어서, 소매 배래를 화서 고대쪽에서 겉으로 도로 뒤집는다. 안의 어깨 동을 통으로 말라 솔기가 없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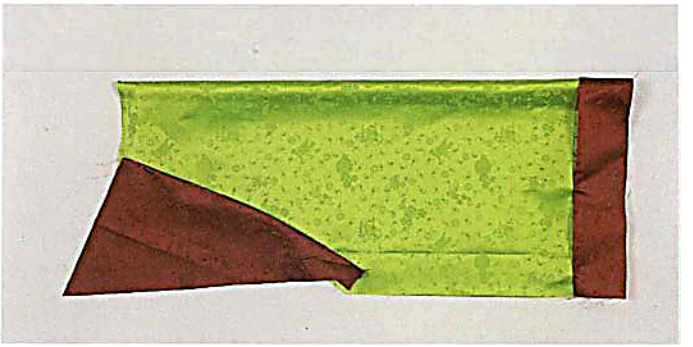


사진 179. 연두 회장저고리② - 소매에 곁마기와 끝동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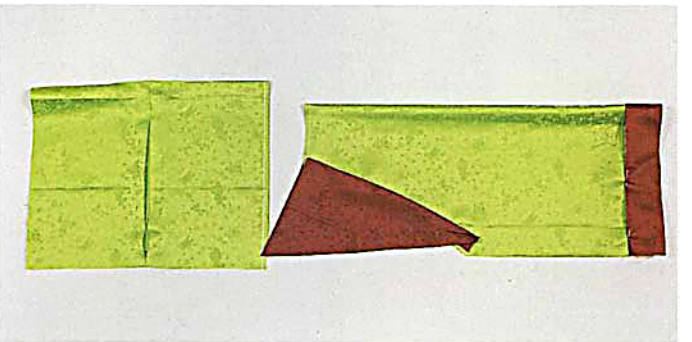


사진 180. 연두 회장저고리③ - 길과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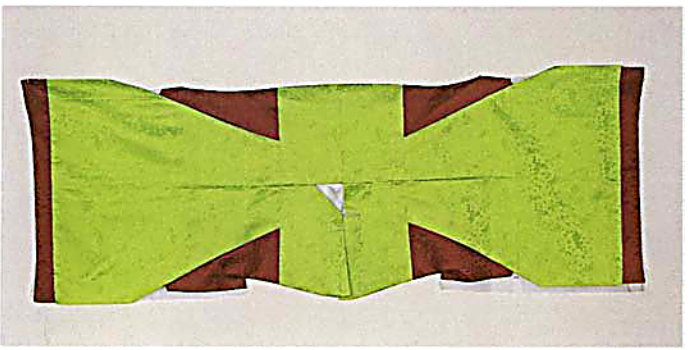


사진 181. 연두 회장저고리④ - 길에 소매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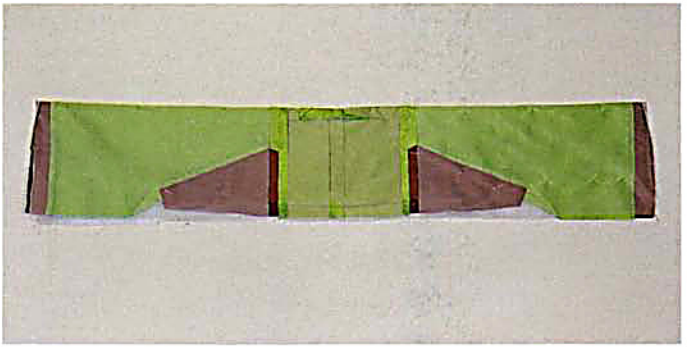


사진 182. 연두 회장저고리⑤ - 심을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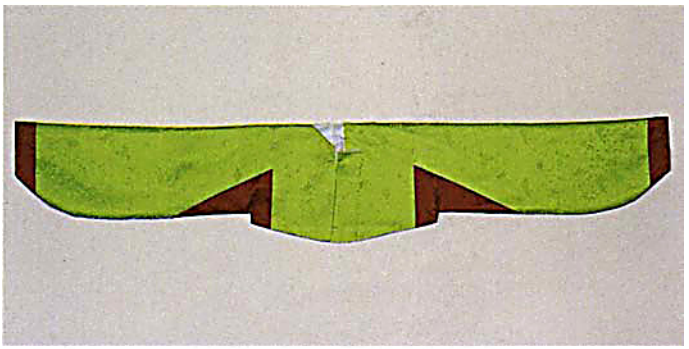


사진 183. 연두 회장저고리⑥ - 배래로 뒤집어 놓은 모습

도련을 하면서 겉섶을 홀 때는 섶코 모양이 예쁘게 빠져 나오도록 잘 박아서 뒤집어야 한다. 도련을 할 때 도련을 휘어야지 겉섶쪽을 휘면 안된다. 곧장하여 뒤집어서 실로 살짝 뽑으면 된다.

깃은 등솔과 고대 가운데를 맞추어 시쳐 놓고 앞뒤 깃을 순편히 놓이도록 단다. 고대 중심에서 깃을 놓아 겉깃을 조금 둥글려서 겉섶 위까지 내려놓고, 안깃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안섶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깃을 놓는다.



사진 184. 연두 회장저고리⑦ - 당코깃



사진 185. 연두 회장저고리⑧
- 당코깃머리



사진 186. 연두 회장저고리⑨
깃 시침
- 고대 중심에 깃을 놓아 겉깃은 조금 둥글려서 겉섶 위까지 내려놓고, 안깃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안섶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깃을 놓는다.



사진 187. 연두 회장저고리⑩ 깃시침
- 앞쪽에서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깃을 다는 것이 정정완 바느질의 특징이다.



사진 188. 연두 회장저고리⑪ 깃시침
- 당코깃을 시침해 놓은 모습



사진 189. 연두 회장저고리⑫
- 깃머리를 바깥쪽에서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바느질 한다.



사진 190 연두 회장저고리⑬ - 깃머리를 바깥쪽에서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바느질한다.



사진 191. 연두 회장저고리⑭ - 깃머리 바느질이 끝난 모습



사진 192. 연두 회장저고리⑮ - 저고리 안쪽을 깃 너비만큼 잘라내고 다려 세발 감침질을 한다.



사진 193. 연두 회장저고리⑯
- 깃 완성

동정은 너비 서푼(1.5cm)으로 달되, 깃 안쪽에서 앞깃을 맞추어 깃 아래서 깃 너비 일곱푼(3.5cm)만큼 떨어지게 단다. 젖혀서 안에서 실밥이 안 보이게 하고, 또 동정도 뚫어지지 않게 스며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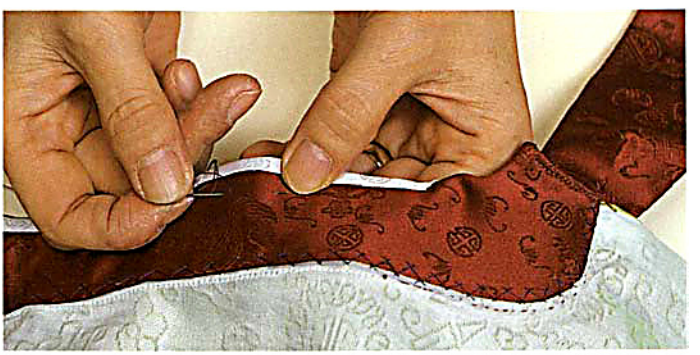


사진 194. 연두 회장저고리⑰ - 동정은 깃 안쪽에서 앞깃을 맞추어 실밥이 안 보이고 동정이 뚫어지지 않게 스며 뜬다.

뒤집어 안팎이 잘 맞도록 손질하여 옷고름을 단다. 긴 고름은 겉섶과 깃의 한복판에 달되, 시접이 너불대지 않게 안으로 접어 넣고 달며, 옷고름 위는 약간 후려서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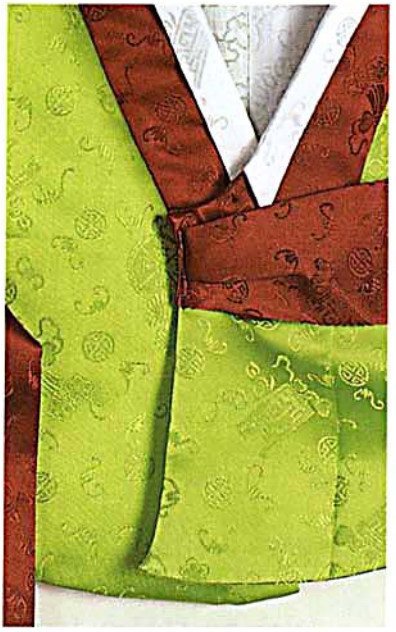


사진 195. 연두 회장저고리⑱ 고름 달기
- 긴 고름은 겉섶과 깃의 한복판에 달되, 시접이 너불대지 않게 안으로 접어 넣어 단다. 옷고름 위는 약간 후려서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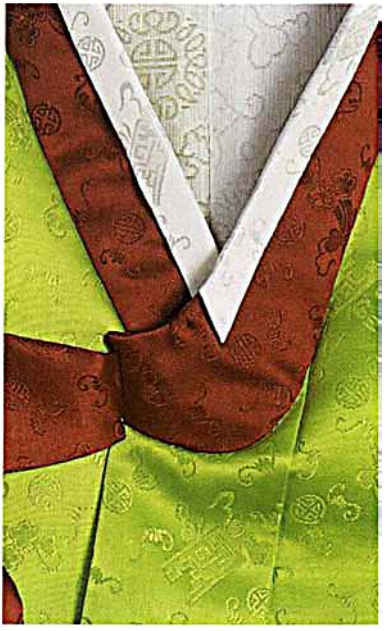


사진 196. 연두 회장저고리⑲
- 당코깃 위에 다는 긴 고름은 주름을 잡아서 단다.

마지막으로 소매 부리에 거들지를 시친다. 손가락 한마디 너비만큼 안으로 검쳐 들어가게 시친다. 거들지는 흰 비단에 노방으로 심을 받쳐 수구에 맞추되 검쳐 들어가는 쪽은 호지 않고, 배래에 대어 혼다. 양쪽 시접은 두푼(1cm)쯤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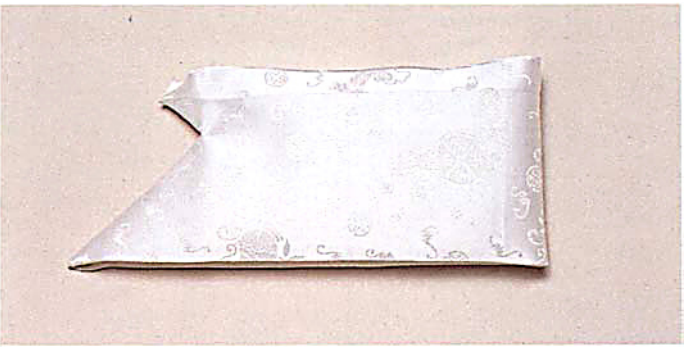


사진 197. 연두 회장저고리⑳ - 마름질한 거들지



사진 198. 연두 회장저고리㉑ - 흰 비단에 노방으로 받쳐 수구에 맞추되 검쳐 들어가는 쪽은 호지 않고 배래에 대어 혼다. 손가락 한마디 너비만큼 안으로 검쳐 들어가게 시친다.



사진 200. 연두 회장저고리㉓ -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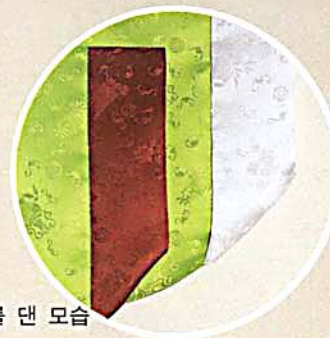


사진 199. 연두 회장저고리㉒
- 한쪽 끝동에 거들지를 댄 모습

(2) 분홍 모시 속적삼

분홍 모시와 노방 일곱자를 이용해, 길이 다섯치(25cm)·화장 자 세 치 닷푼(65.5cm)·앞섶 닷푼(2.5cm)·깃 네치 너푼(22cm)×여섯푼(3cm) 치수로 옷을 짓는다.

마름질은 모시 네길을 앞길은 다섯치 닷푼(25.5cm), 뒷길은 다섯치(25cm)에 시접은 한푼(0.5cm)을 넣어 마른다. 동은 화장에 따라 모시 너비에 따라서 한동 반 또는 한동 칠홉을 더 댄다. 깃은 갖은 서 있는 쪽에서 겹으로 말라야 좋고, 등바대는 어깨 중간까지 혹은 어깨 전체까지 너비 여덟푼(4cm)으로 마른다.

그리고 등솔은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가늘게 박는다. 동은 갖은 서 끼리 붙여 박고, 길은 가위로 자른 쪽 푸서이므로, 한푼(5mm)쯤 꺾어 넣고 동과 같이 박는다. 꺾어 넘어간 솔기를 얕얕이 베어 버리고, 벤 쪽으로 다시 접어 될 수 있으면 솔기가 가늘게 박는다.

소매에 검치게 곁도애를 길 겨드랑이 밑에 너비 여덟푼(4cm)·길이 닷푼(5cm) 정도로 대어 미어지지 않도록 하고, 접어 넣고 박으면 된다.

섶은 앞쪽으로 단처럼 댄다. 등바대를 등솔 바로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어깨까지 접어서 한번 박고, 너불거리는 것을 베고 꺾어서 다시 박는다. 깃은 고대와 앞깃을 알맞게 시쳐 싸 박는다. 속적삼은 여미지 않고 섶과 깃이 마주닿게 해야 저고리 입은 맵시가 얌전하다. 단추는 작게 맺어서 달고, 단추집은 안쪽으로 달아 겨우 단추가 들락거릴 정도로 한다.

배래는 한번 그냥 박고, 두번 꺾어서 겹쳐 박아 베어 버리고 세번째 아주 박는다. 도련도 한번 그냥 박아 늘어지지 않게 맞추고 접어서 다시 박는다. 그리고 너불거리는 것을 얕얕이 베어 버리고 다시 접어 아주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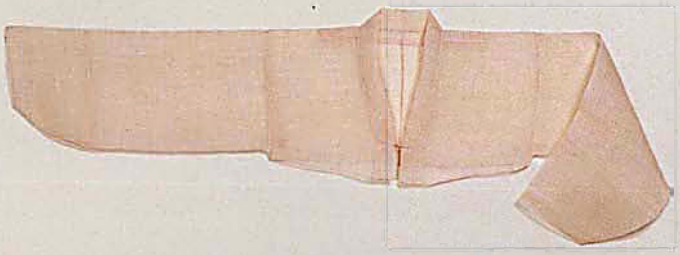


사진 201. 분홍 속적삼



분홍 속적삼의 매듭 단추

(3) 분홍 속저고리

봄·가을에는 숙고사·관사, 여름에는 생고사·갑사, 겨울에는 명주·비단을 고름 감까지 44인치 마 반을 준비한다. 마름질과 바느질법은 연두 회장저고리와 같다.



사진 202. 분홍 속저고리

(4) 노랑 삼회장저고리[6]

삼회장은 끝동·깃·고름을 말하며 자주빛이다. 우리 풍속에 분홍 속저고리·노랑 삼회장저고리·연두 회장저고리와 속적삼은 시댁에서 해 주었다.

봄·가을은 숙고사·관사, 여름은 생고사·갑사, 겨울은 명주·비단 44인치 마 두치와 자주색 회장감 마 두치를 가지고 짓는다. 마름질과 바느질법은 연두 회장저고리를 참고한다.

6) 회장(回裝)이란 여자 저고리의 깃·끝동·곁마기·고름 등을 길과 다른 색깔의 감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삼회장(三回裝)저고리는 깃·끝동·곁마기·고름을 다른 빛으로 꾸민 저고리를 가리키며, 회장저고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정완은 삼회장저고리와 회장저고리를 구분한다. 회장저고리는 사회장(四回裝)저고리라고 달리 부르고, 보통 반회장(半回裝)저고리라고 말하는 깃·끝동·고름에 다른 빛을 댄 저고리를 삼회장저고리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정정완이 정의하는 것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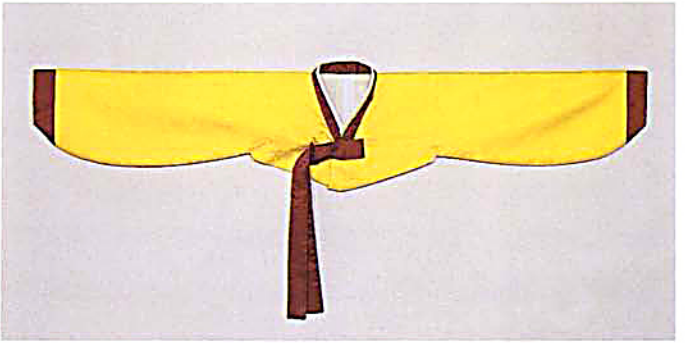


사진 203. 노랑 삼회장저고리 - 깃·끝동·고름을 자주색으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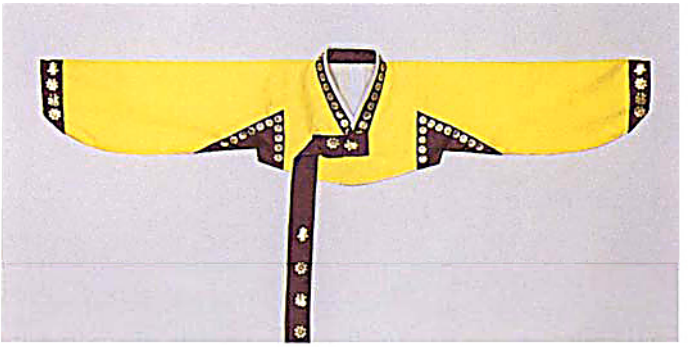


사진 204. 노랑 회장저고리 - 깃·끝동·고름·결마기를 자주색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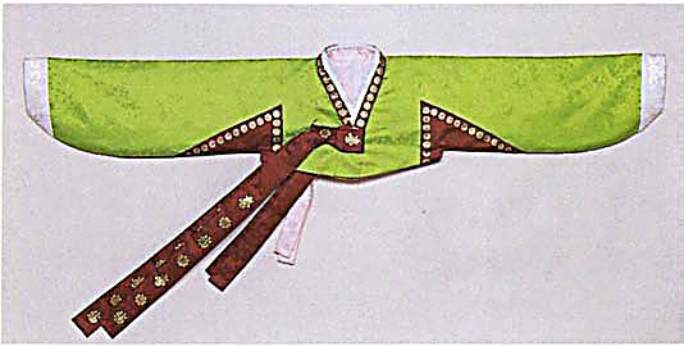


사진 205. *분홍 속저고리·노랑 삼회장저고리·연두 회장저고리를 가리켜 저고리 삼작이라고 한다.



사진 205-① 저고리 삼작

(5) 다홍 겹치마

봄·가을은 숙고사·관사, 여름은 생고사·갑사, 겨울은 양단·모번단으로 하며, 안감은 연분홍 명주나 숙고사 등 겉감과 같은 감을 쓴다. 옷감 분량은 44인치 마 반 세폭이면 되고, 치마 길이는 두자 가웃(125cm)이다.

마름질은 시접을 여덟푼(4cm)씩 아랫단과 옆단에 두고 조끼허리에 들어가는 시접은 닷푼(2.5cm)쯤 넣는다. 총길이는 110cm에 두 시접분(2.5cm·4cm)을 더해 마름질한다. 치마폭은 44인치 세폭을 하고 7cm쯤 위에서부터 단쪽으로 자연스럽게 후린다. 허리는 둘러매는 허리인 경우 자 여덟치(90cm)에 끈을 단다.

조끼허리인 경우 길이는 저고리 길이보다 너푼(2cm) 짧게 한다. 앞품은 일곱치 여섯푼(38cm)이다. 뒤트임(겉)은 세치 두푼(16cm)인데, 이것은 안자락과 뒷자락이 여며지는 폭이다.

고대는 두치 여덟푼(14cm)에 한푼(0.5cm)을 더해 두치 아홉푼(14.5cm)으로 하고, 조끼허리의 어깨는 바깥쪽으로 0.4cm 후리고, 폭은 여섯푼(3cm)으로 한다. 겨드랑이는 진동보다 두푼(1cm)쯤 짧게 21cm에서 3.4cm를 뺀 17.6cm로 하고, 19cm(앞품의 반품)－8.5cm(안쪽으로 들이키는 길이) =10.5cm, 뒤로 여며지는 너비는 양쪽에 한치 여섯푼(8cm)씩 합쳐서 세치 두푼(16cm)이다. 허리는 자 다섯치 두푼(76cm)에 여미는 너비 세치 두푼(16cm)을 합하여 자 여덟치 너푼(92cm)이면 된다.

그리고 치마폭에 잔주름을 잡아 92cm에 꼭 들어맞게 한다. 허리 길이와 폭이 2:1로 주름 너비와 포개는 너비를 똑같이 하면 된다. 앞은 앞 중심에서 너푼 내지 여섯푼쯤 아래로 늘여서 겨드랑이께로 둥글게 후려 간다. 인체 공학상으로 보아 앞은 가슴 때문에 아래로 늘여야 가슴이 올라가지 않고 입은 맵시가 차분해진다.

옷을 지을 때는 허리를 만들어 치마폭을 붙인다. 안팎을 한데 화서 허리 전체에 노방 심을 받쳐 껴서 주름을 잡아 한 허리에 단다. 아랫단은 안팎을 화 뒤집어 단 너비 두푼 반(1.25cm)쯤으로 한다.

스란은 치마감과 같은 감으로 여섯치(30cm) 길이로 겹으로 하여, 키 큰 사람은 조금 내려 시치고 보통 사람은 치맛단과 같이 시친다. 스란에는 홈빡 금박을 찍는다. 대란을 찍으려면 치마 중간에도 금박을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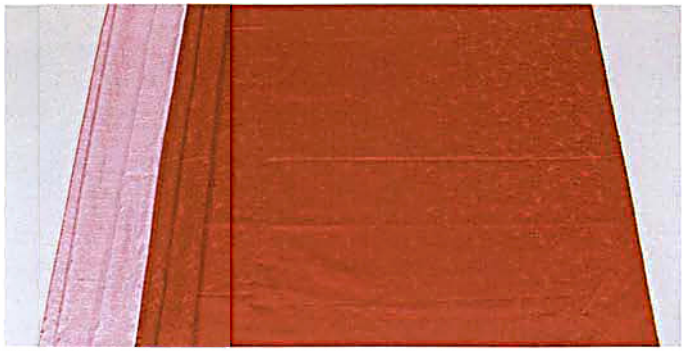


사진 206. 다홍 겹치마(1) - 겉감과 안감을 세폭으로 마름질해 밑에서부터 단을 맞추어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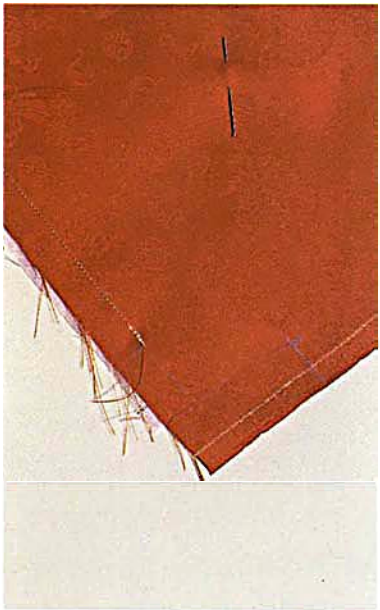


사진 207. 다홍 겹치마(2) 치마 모서리 처리① - 끝에서 도련 쪽으로 4.5cm, 옆선쪽에서 1.5cm 되는 부분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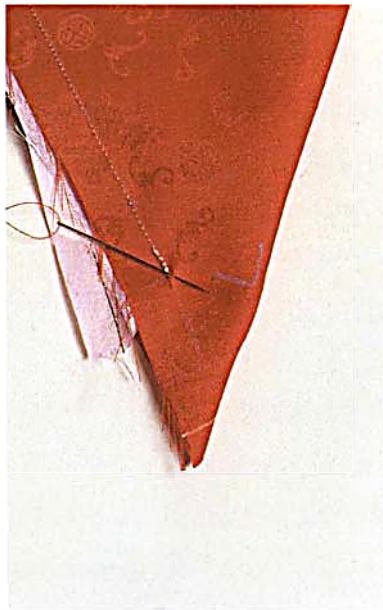


사진 208. 다홍 겹치마(3) 치마 모서리 처리② - 두 부분을 안쪽에서 가로질러 연결하여 삼각형 모양으로 오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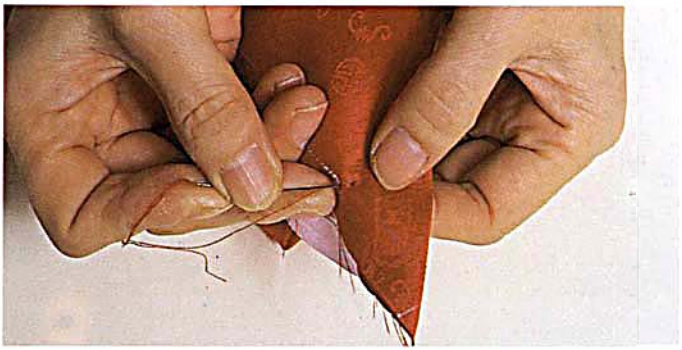


사진 209. 다홍 겹치마(4) 치마 모서리 처리③
- 치마 중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해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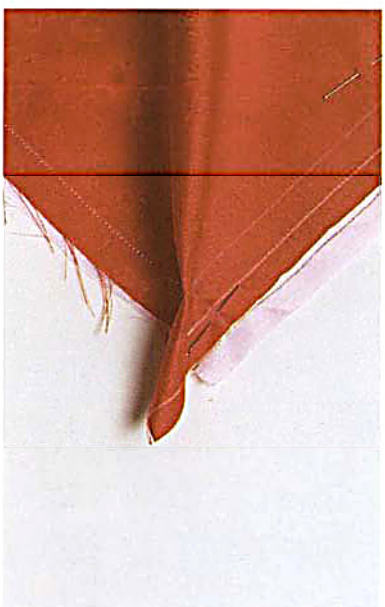


사진 210. 다홍 겹치마(5) 치마 모서리 처리④ - 직각이 되도록 박아 놓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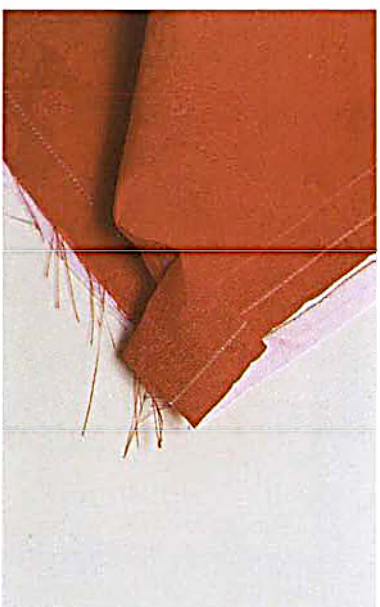


사진 211. 다홍 겹치마(6) 치마 모서리 처리⑤ - 모서리를 펴서 접는다. 접은 부분의 반을 잘라내고, 옆선과 밑을 박아서 뒤집는다.



사진 212. 다홍 겹치마(7) - 뒤집어 놓은 치마 모서리



사진 213. 다홍 겹치마(8) - 옷감을 정리해 치마 길이를 잡은 다음, 안자락부터 주름을 잡아 나간다.



사진 214. 다홍 겹치마(9) - 주름은 0.8~0.9cm 정도 너비로 잡는 것이 보기 좋다.



사진 215 다홍 겹치마(10) - 조끼허리를 단다.

사진 216. 다홍 겹치마(11) 완성



사진 217. 저고리 삼작과 다홍 스란치마

(6) 활옷(濶衣)

조선시대 공주·옹주의 대례복(大禮服)으로, 상류층 여인들의 혼례복으로도 쓰였다. 깃·섶·무가 없이 옆이 트였다. 앞자락이 둘이고, 뒤는 등솔이 없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앞보다 길다. 옷 전체에 수복(壽福)의 뜻이 담긴 십장생(十長生)의 문양을 수놓았으며, 등에는 결혼의 신성함을 뜻하는 글자를 수놓았다. 회갑·회혼·은혼·금혼 때 입기도 한다.

필요한 옷감 분량을 보면 겉감은 44인치 다홍색 공단 여덟자 한치(405cm;네마 반)가 있어야 하고, 안감은 남색 비단으로 분량은 겉감과 같다. 한삼은 흰색 공단으로 폭 여덟치(40cm)·길이 마 반(150cm)을 준비하고, 심은 광목과 노방을 같이 쓰기도 하고 노방을 두겹 쓰거나 장지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노랑·남색·다홍의 색동감이 필요하다.

활옷은 원삼 길이(150cm)보다 세치(15cm)를 짧게 한다. 이것은 수(繡)가 많아 무겁기도 하지만, 치마의 스란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뒤는 자르르 끌리는 것이 멋있다. 앞길은 뒷길보다 네치(20cm) 짧게 한다. 왼품은 뒷길이 자 한치(55cm), 두리는 자 네치(70cm), 화장은 두자 네치(120cm), 고대는 여섯치 너푼(32cm)이다. 색동은 너비 한치 너푼(7cm)·길이 두자 일곱치로 마 반을 준비한다. 활옷은 다홍색 바탕에 노랑→남색→다홍의 순서로 색동을 한다.

마름질할 때는 뒷길(135cm)과 앞길(125cm)을 한데 붙여 솔기가 없이 뗀다. 활옷은 수를 놓기 때문에 등솔이 없지만, 고대 때문에 중앙 표준은 있고 소매는 양쪽 단 반폭에 색동이 네치 두푼(21cm) 든다. 짓는 방법은 깃이 없고 고대만 막고, 제몸에서 깃을 만든다.



사진 218. 활옷(앞)



사진 218-① 활옷 한삼 자락에 수놓은 모란

수를 놓기 때문에 등솔·어깨 솔기가 없이 내쳐 한다. 두리 밑을 터서 안고름 다는 겨드랑이 밑만 두어 바늘 꿰맨다. 맨 밑에는 봉대띠 들어갈 구멍을 달걀이 만든다. 수(繡)는 뒤쪽에 연꽃·모란을 가득차게 놓고, "二姓之合 百福之源"이라는 문구를 양쪽 옆으로 놓는다. 앞에도 소매·한삼의 반 이상씩 수를 놓고, 절할 때 손이 닿는 데는 장지로 싸서 시친다. 봉대띠는 길이 일곱자 여덟치(390cm)·너비 한치 너푼(7cm) 크기에 금박으로 봉황을 찍거나 수를 놓기도 한다. 그리고 활옷 앞에는 좁게 여덟치(40cm)×너푼(2cm)·일곱치(35cm)×너푼(2cm)으로 고름을 단다.



사진 218-② 활옷(뒤) 연꽃과 모란을 수놓고, 양옆에 "二姓之合 百福之源"을 수놓았다.

(7) 원삼(圓衫)

원삼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비와 공주가 예복(禮服)으로 입고, 일반 여인들은 혼례 때 입을 수 있었다. 신분에 따라 색상과 문양에 차별을 두어 왕비는 홍원삼(紅圓衫)·공주는 녹원삼(綠圓衫)을 입었다. 일반 여인들의 혼례복으로는 공주의 원삼인 녹원삼을 입었는데, 궁중의 것보다 크기도 작고 금박도 없었다. 원삼 위에는 금박을 한 홍색의 띠와 앞줄 당기·도투락 당기를 하고 족두리를 썼다.

사가(私家)에서 입는 녹원삼은 연두색 길·소매에 안감은 다홍색이고, 색동 순서는 다홍→노랑→한삼 순이다. 궁중에서 입는 원삼은 황원삼으로 노란색 길·소매에 다홍색 안감과, 색동은 다홍→남색→한삼 순이다. 홍원삼의 안감은 노란색이고 남색 선을 안에 둘렀으며, 노랑→남색→한삼의 순서로 색동을 한다.

옷감은 숙고사와 갑사로 하며, 분량은 겉감의 길은 숙고사 44인치일 경우 네마 반, 안감은 다홍색으로 여섯마를 준비해 봉대띠까지 마른다.

그리고 22인치 경우 색동은 선 두르기에 쓸 남색 옷감 마 반과, 노랑색과 다홍색 각 마 반, 그리고 한삼이 흰색으로 세마 필요하다. 한삼으로 소매 끝에서 손을 가리는 길이는 네치(20cm)이다.

마름질에 필요한 치수는 뒷길 석자(150cm)·앞길 두자 네치(120cm), 왼품 자 한치(55cm), 화장 두자 네치(120cm), 두리 자 네치(70cm), 고대 여섯치 너푼(32cm)이다. 색동은 너비 한치 두푼(6cm)·길이 마 반(135cm)이며, 봉대띠는 너비 한치 너푼(7cm)·길이 일곱자 여덟치(390cm) 이다.

원삼은 뒷길이 끌려야 되므로, 전체 옷감 44인치 네마 반(400cm)에서 소매감 마 반을 떼어놓고, 나머지 270cm를 앞길 120cm·뒷길

150cm로 잡아 마른다. 두리는 길 마른 데서 접어서 마르고, 화장 두 자 네치(120cm)를 마른다. 그리고 한삼 네치(20cm)를 마르고, 봉대띠는 소매를 마르기 전에 다홍색 안감에서 내쳐 390cm를 떼어 낸다.

옷짓는 법은 우선 등솔에 시접 여덟푼(4cm)을 넣어 박고, 어깨에도 여덟푼의 시접을 두고 박는다. 두리는 길에서 어깨쪽으로 두치(10cm)는 나와야 된다. 앞은 여미지 않고 마주보게 되므로 매듭으로 단추를 맺어 달거나 금은으로 만든 단추를 달 수도 있다. 봉대띠는 봉황 문양의 금박을 박고, 한삼을 소매 끝에 달아서 같이 뒤집는다.

녹원삼은 연두 겉감과 다홍 안감으로 안팎을 따로 만들어 배래만 껴서 박는다. 안깃에 동정을 달아서 겉으로 보이게 한다. 녹원삼은 남색 단을 안쪽에 대고 안쪽의 홍색은 같은 홍색으로 단을 한다. 황원삼이나 홍원삼은 안쪽 단을 바깥에 대고 같이 가장자리를 박아서 뒤집는다.



사진 219. 녹원삼

(8) 당의(唐衣)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과 사대부 부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던 소례복(小禮服)이다. 저고리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길이가 더 길고 겨드랑이 양옆이 트였으며, 아래 도련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안에 있는 붉은색 고름과 같이 고를 매어 입는다.

봄·가을은 순인·갑사·숙고사, 겨울은 단사, 여름은 생고사를 쓰며, 겉감은 연두색·안감은 다홍색으로 한다. 깨끼 당의는 안팎이 같은 빛깔이다. 분량은 44인치로 겉은 두마 한치·안은 두마·심은 두마 한치가 들고, 22인치 경우는 배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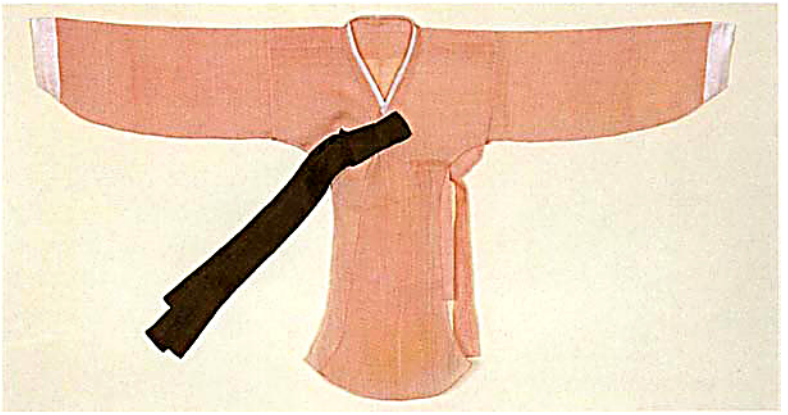


사진 220. 분홍 모시 당의는 안과 겉이 같은 빛깔이다.

보통 길이는 자 여덟치(90cm)이나, 작은 사람의 경우는 한자 일곱치(85cm) 길이로 한다. 품은 저고리보다 닷푼 크게 아홉치 닷푼(47.5cm)으로 하고, 화장은 자 네치~자 다섯치(70~75cm)이고, 자주깃·끝동·고름·소매에 한치(5cm) 너비의 거들지를 시친다. 거들지는 흰빛으로 길과 같은 비단으로 한다.

고름은 겉고름 두짝·곁고름 한짝·안깃에 다는 안고름 두짝·겨드

드랑이 밑에 다는 안고름 한짝이 있다. 각각의 크기는 겉고름이 자 아홉치 여섯푼(98cm)×한치 한푼~한치 두푼(5.5~6cm)이고, 곁고름은 이보다 두치(10cm) 짧게 한다. 안깃에 다는 안고름은 여덟치(40cm)



사진 221-① 녹색 당의



사진 221-② 녹색 당의의 도련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여섯푼(3cm)이고, 겨드랑이에 다는 고름은 이보다 한치(5cm)쯤 길게 한다. 마름질이나 바느질법은 돌아기 당의를 참고로 한다.

자주색 당의는 대비 당의라 하여 수(壽)·복(福)자를 고루 찍는다. 그리고 연두 당의는 어깨와 중간, 배래까지 겨서 아래에 3층으로 연결하여 수(壽)·복(福) 자를 찍는다. 그리고 당코 당의는 깃 밑에서 두푼(1cm) 떨어지게 고름을 단다.



사진 222. 자주 당의는 대비 당의라고 하며 수(壽)·복(福)자를 고루 찍는다.

(9) 스란치마

겉감으로 겨울에는 명주·양단·오복수·도리불수를, 여름에는 진주사·관사·숙고사를 쓴다. 안감은 겨울에는 분홍색으로 물들인 명주를 쓰고, 여름에는 생명주를 이용한다. 이때 필요한 분량은 44인치면 세폭, 22인치면 여섯폭, 명주는 아홉폭에 길이는 두자 다섯치가 있어야 한다.

스란단은 여섯치(30cm) 길이로 치마폭과 같이 한다. 스란단은 금박으로 용문(龍文)·봉황문(鳳凰文)이나 수복문(壽福文)을 찍었다. 마름질과 바느질 방법은 다홍 겹치마를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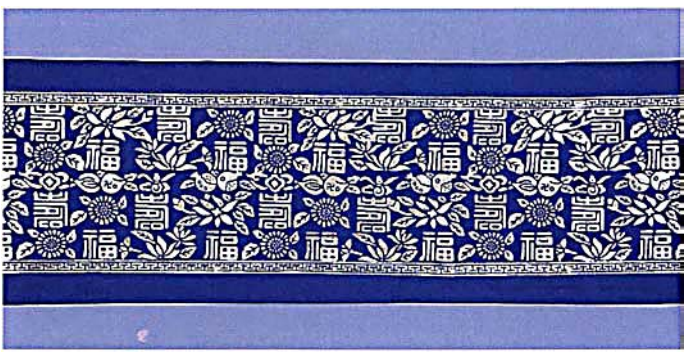


사진 223-① 수복(壽福)문 스란단



사진 223-② 용(龍)문 스란단



사진 224. 남색 스란치마(앞)



사진 224-① 스란치마의 밑단을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내려 단다.



사진 224-② 남색 스란치마(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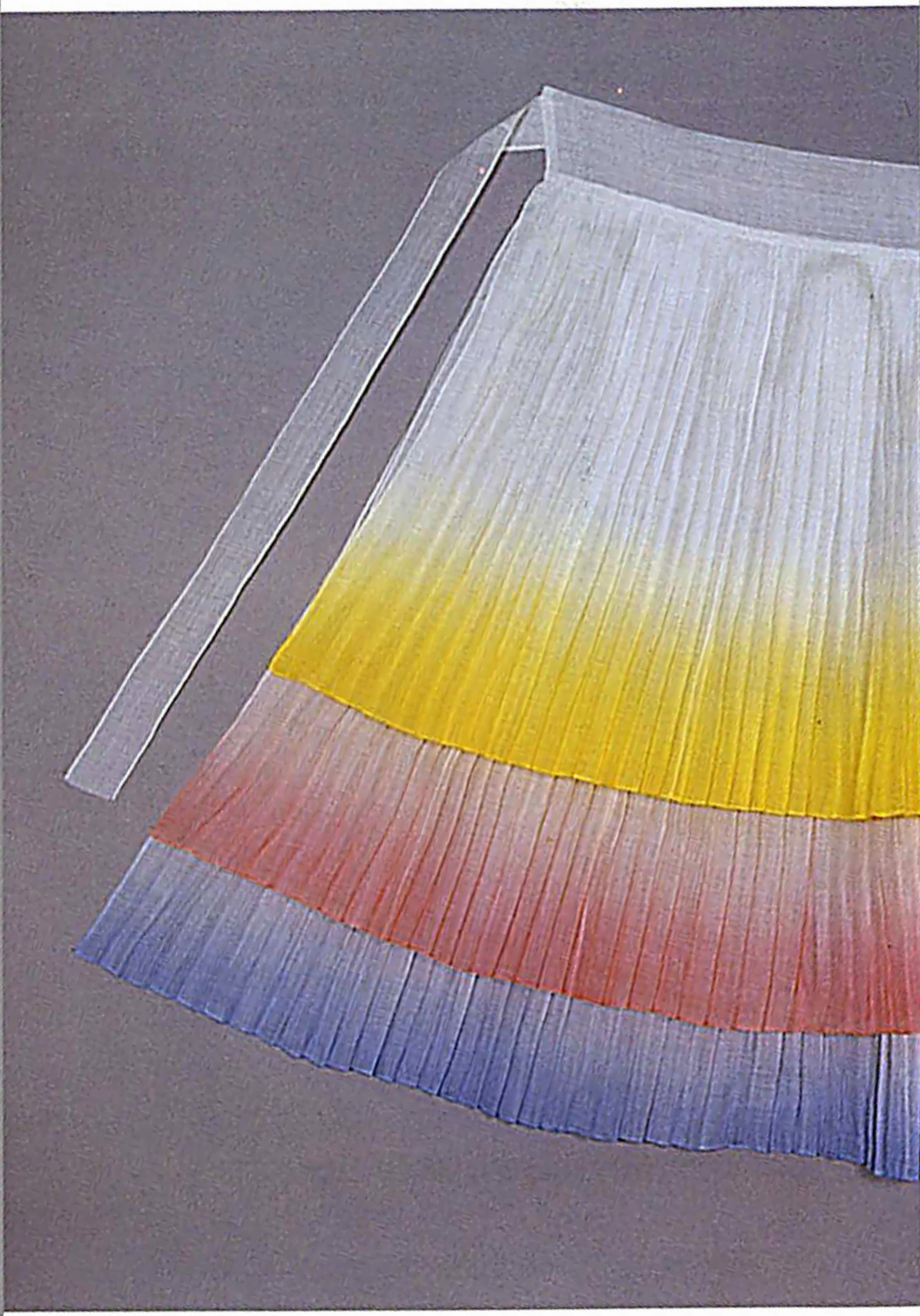


사진 225. 무지기



(10) 무지기

3합·5합·7합 무지기가 있다. 옛날에는 대(大)무지기·중(中)무지기·소(小)무지기로 나누었으나 나중에는 3합 무지기로 변했다. 무지기는 치마 입은 모양이 흩지지 않고 풍성해 보이게 하려고 입는 것이다. 어린애나 어린 색시는 삼색 무지기(옥색·분홍·노랑)를, 나이 많은 분은 층에 관계없이 옥색·녹색을, 젊은 사람은 분홍 무지기를 입었다.

무지기의 길이는 치마 길이보다 여섯치(30cm) 짧게 하여 첫째 폭은 비취 옥색 또는 월남 옥색으로 두자(1m), 중간 폭은 분홍(꼭두서니)자 여덟치(90cm), 아랫단은 노랑색으로 자 여섯치(75cm)로 하여 네치(20cm)씩 쯤 차이를 두고 3단 치마를 한 허리에 껴 달아 입는다.

옷감은 모시 아홉폭을 준비하며, 각각의 치수는 제일 긴 것이 자 여덟치(90cm)·다음 것은 자 네치(70cm)·제일 짧은 것이 한자(50cm)로 길이대로 따로따로 마름질하여 물들인다. 물들이는 방법은 각각 빛깔을 몽땅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것은 여섯치(30cm)만 남기고 위를 꽁꽁 묶어 아래만 잠방 담갔다 건진다. 중간 것은 네치(20cm)만 남기고, 가장 짧은 것은 두치(10cm)만 남기고 위를 꽁꽁 묶어 아래만 잠방 담갔다 건진다.

입을 때는 가장 속에 제일 긴 월남 옥색을 입고, 그 위에 분홍색의 중간 길이를, 맨 위에는 제일 짧은 노랑색을 각각 허리를 따로 달아 포개 입었다.

(11) 대슘

옷감은 모시로 아홉폭을 준비해 한자 아홉치(95cm) 크기로 한다. 마름질은 모시 두자로 아홉폭(18자)을 잡아 벤다. 바느질할 때는 폭을 붙여 주름을 아래까지 주름치마처럼 내려 잡아 허리를 단다. 아래에는 단 너비 여섯푼(3cm)만큼 장지를 여러 번 배접하여 빳빳하게 만들어서 모시로 싸서 아랫단에 넣고 접어서 꿰맨다.

흰빛 혹은 오련한 분홍빛으로 물들이기도 한다. 스란치마 길이가 두자 다섯치(125cm)쯤이면 대슘의 길이는 두자 두치(210cm) 정도로 해서 잔주름을 주름치마같이 족족 아래까지 접어서 약간 층지게 해서 접은 쪽을 허리에 단다. 그 밑에는 주름을 펴서 장지를 한치(5cm) 너비로 모시에 싸서 붙이면 입은 모양이 아래가 공작새 날개같이 퍼진다.



사진 226. 대슘



사진 226-① 대슘의 허리 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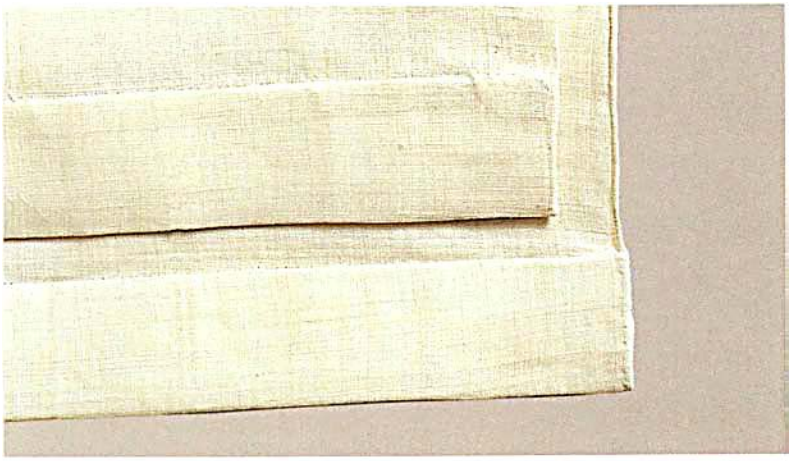


사진 226-② 장지를 댄 대슘의 밑단

(12) 버선

광목·무명·서양목으로, 남자는 안팎 자 네치(70cm)·여자는 안팎 자 세치(65cm)가 필요하다. 무명은 목이 짧더라도 폭 그대로 마른다. 시접은 서푼(1.5cm) 정도가 적당하다. 시접이 많이 들어가면 버선 모양이 밉고 너무 작게 들어가면 빠지기 쉽다. 광목인 경우에는 네번을 접으면 그냥 안팎이 된다. 속버선은 무명이나 광목·생목으로 겹이나 홑으로 해서 왼쪽·오른쪽 수눅을 바꾸어 신고 겉버선은 솜을 두어 수눅 바로 신는다.

박을 때는 본(本)대로 안팎 두겹의 수눅만을 죽 박고, 반으로 접어 뒤집을 만한 창구멍을 발등(수눅)쪽에 내고 뺑뺑 돌아 다 박는다. 버선본은 발꿈치에서 발등목 위까지를 재어, 그 척수가 버선 척수가 된 그것을 펴놓고 본을 뜬다.

수눅은 버선등 위의 솔기로, 버선을 신을 때 왼쪽·오른쪽 두꺼운 솔기가 위로 가는 것을 보아 버선 짝을 구별하여 신는다. 왼쪽 솔기가 위로 간 것이 왼쪽, 바른쪽 솔기가 위로 간 것이 바른쪽 버선임을 구별 한다. 이 좌우를 구별하게 하는 솔기를 수눅이라 한다.



사진 227. 버선① - 버선본을 놓고 마른다.



사진 228. 버선② - 본을 놓고 한쪽을 마르고, 그것을 대고 나머지 한쪽을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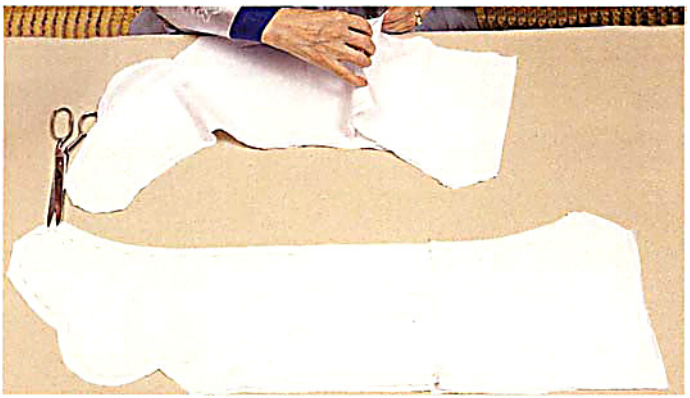


사진 229. 버선③ - 두쪽을 마주 보게 놓고 좌·우를 맞춘다. 그리고 버선목 아래를 겹으로 만들기 위해 안감을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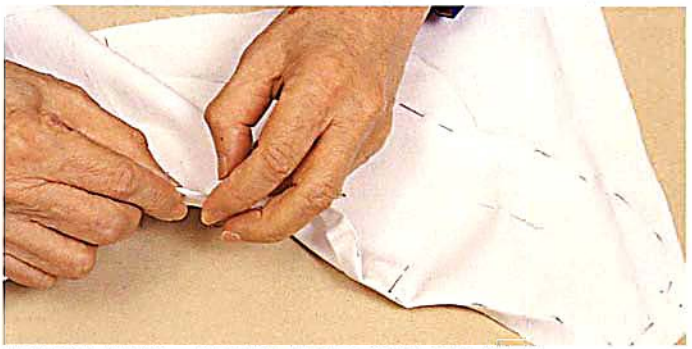


사진 230. 버선④ - 창구멍을 남기고 4겹을 모두 박는다.



사진 231. 버선⑤ - 안감쪽에 솜을 놓고 바느질로 고정시킨다.



사진 232. 버선⑥ - 창구멍의 복판으로 뒤집어 한번 더 솜을 놓는다.



사진 233. 버선⑦ - 창구멍의 한쪽으로 뒤집는다. 이때 버선코에 솜을 더 놓는다.



사진 234. 버선⑧ - 창구멍을 박고 버선목으로 한번 더 뒤집는다.



사진 235. 버선⑨ - 버선코를 박아 주고, 모양을 정리한다.



사진 236. 버선⑩ - 완성

3. 먼 나들이 옷

1) 갖은 수의(壽衣)

수의는 옛부터 부모의 환갑(還甲)·진갑(進甲)이 가까워지면 가정 형편에 따라 지어두는 것이 상례였으며, 윤달에 지어 놓는 습속이 있다. 옷감은 베와 명주를 주로 사용한다.

옷감 분량을 보면 남자는 여덟치(40cm) 폭으로 390자, 필로는 거의 열필이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남자 수의는 270자로 바지·저고리·두루마기·이불 하나를 만든다. 여자 수의는 310자·여덟치(40cm) 폭으로 330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자 수의는 240척으로 치마·저고리·속적삼·속고의·배래 넓은 두루마기·이불 하나를 한다.

수의 바느질할 때 솔기 처리는 산사람의 옷을 만드는 것과 반대로 꺾는다. 등솔은 아래에서 위로 꺾어 입었을 때 오른쪽이 되게 하고, 겉섶은 길쪽으로·안섶은 섶쪽으로 꺾고 진동솔은 가른다. 그리고 겉섶과 안섶은 반대로 달며, 되돌이 해서 바느질하지 않는다.



사진 237. 지정 당시 만든 남자 수의 일습,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 소렴금(小殮衾)

수의를 입히고 시신(屍身)을 맨 먼저 싸는 이불이다. 남자 것은 길이 여섯자 세치(315cm)·너비 세폭 반(125cm)이 필요하고, 여자 것은 길이 다섯자 세치(265cm)·너비 세폭 반(125cm)이 필요하다.

베와 명주를 섞어 지을 때는 겉은 명주, 안은 베로 지으면 좋다. 대렴금은 안팎을 명주로 하여도 무관하다. 베로 지을 때는 길이로 마름질해서 겹치는 방법으로 하고, 인조견으로 지을 때는 폭의 넓이를 배로 마름질하여 겹치는 것이 편리하다.

(2) 대렴금(大殮衾)

소렴(小殮)을 한 다음날 대렴 때 쓰는 이불이다. 남자의 대렴금을 만들 때는 길이 일곱자 가웃(365cm)·너비 베 폭을 기준으로 네폭 반(140cm)이 들고, 여자 것은 길이 여섯자 가웃(315cm)·너비 세폭 반(110cm) 분량의 옷감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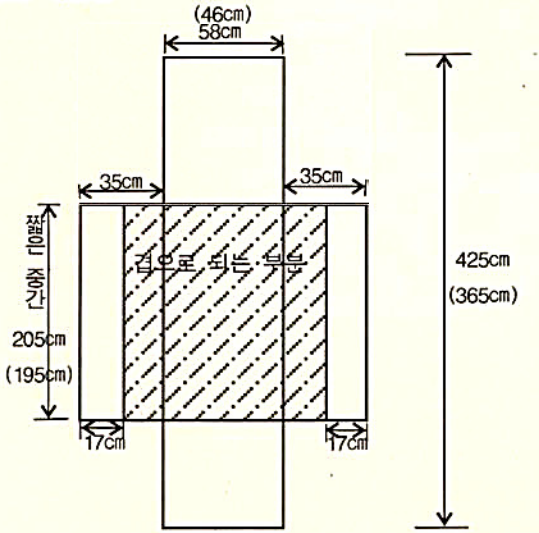
베 또는 명주로 지을 때는 길이 일곱자 가웃(365cm)×2의 길이와 넓이 네폭 반(140cm)을 마름질해서 730cm의 길이를 겹으로 겹쳐 지으면 편리하다. 인조견으로는 한폭 반을 마름질해서 길이 730cm를 겹으로 접으면 편리하다. 인조견 세폭으로 마름질하여 길이 365cm로 마름질해서 겹쳐도 같은 방법이 된다.

(3) 염포(殮布)

염습할 때 시신을 묶는 베다. 염포의 길이는 키가 큰 남자는 여덟 자 반(465cm), 키 작은 사람은 일곱자 가웃, 여자는 일곱자 세치(365cm), 겹쳐지는 부분은 남자가 네자 한치(205cm), 여자 것은 석 자 아홉치(195cm)이다. 양쪽 가장자리 길이는 다섯자이다.

남자 염포로 예를 들면, 먼저 길이 여덟자 다섯치(425cm)·너비 자 너푼(52cm)을 가운데 두고, 중심(212.5cm)을 잡아서 길이 네자 한치(205cm)·너비 일곱치(35cm)를 양옆으로 붙인다. 가운데의 너비는 베 세폭 반(105cm)이 되게 하고, 가운데 부분을 양옆으로 세치 너푼(17cm)씩 두고 두폭 반 넓이(87cm)는 겹이 되게 만든다. 인조견으로 지을 때는 전체를 겹으로 하여도 좋다.

그림 9. 염포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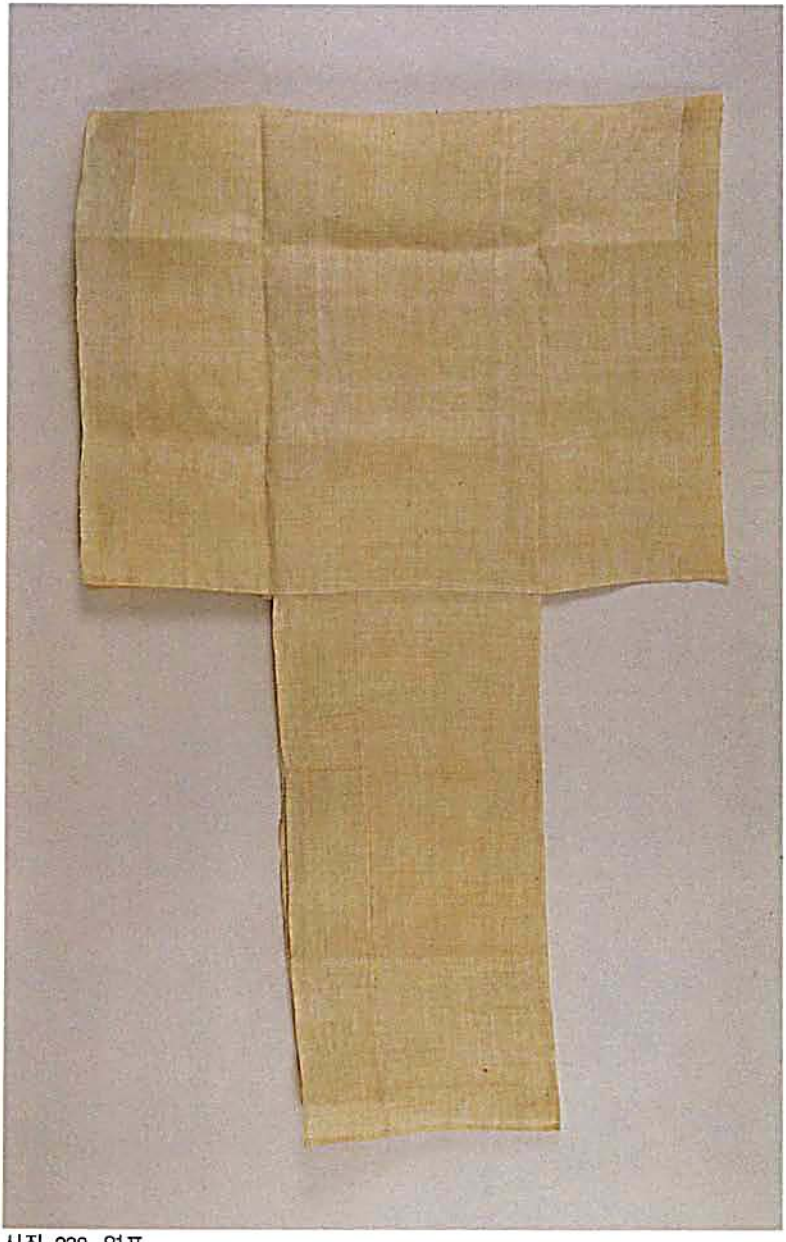


사진 238. 염포

(4) 천금(天衾)

시신을 넣고 관 뚜껑 안에 덮는 이불이다. 남자 것은 길이 넉자 한 치(205cm)·너비 베 한폭(35cm)이 필요하고, 여자의 천금은 길이 석자 아홉치(195cm)·너비 베 한폭(35cm)이 든다.

(5) 지요(地褥)

관에 펴는 요이다. 천금보다 조금 작게 만들며, 베를 안으로 사용하고 겉은 명주로 하면 좋다. 인조견이나 명주 등 폭이 넓은 옷감으로 할 때는 75cm로 마름질해서 겹으로(38cm×2) 바느질하면 편리하다. 남자는 넉자 두치·여자는 넉자 길이로 하며, 너비는 한폭(35cm)이다.

(6) 베개

남자 것은 길이 여섯치(30cm)×너비 세치(15cm), 여자 것은 길이 세치 좀 못되게(14cm)×너비 다섯치 닷푼(27.5cm)의 크기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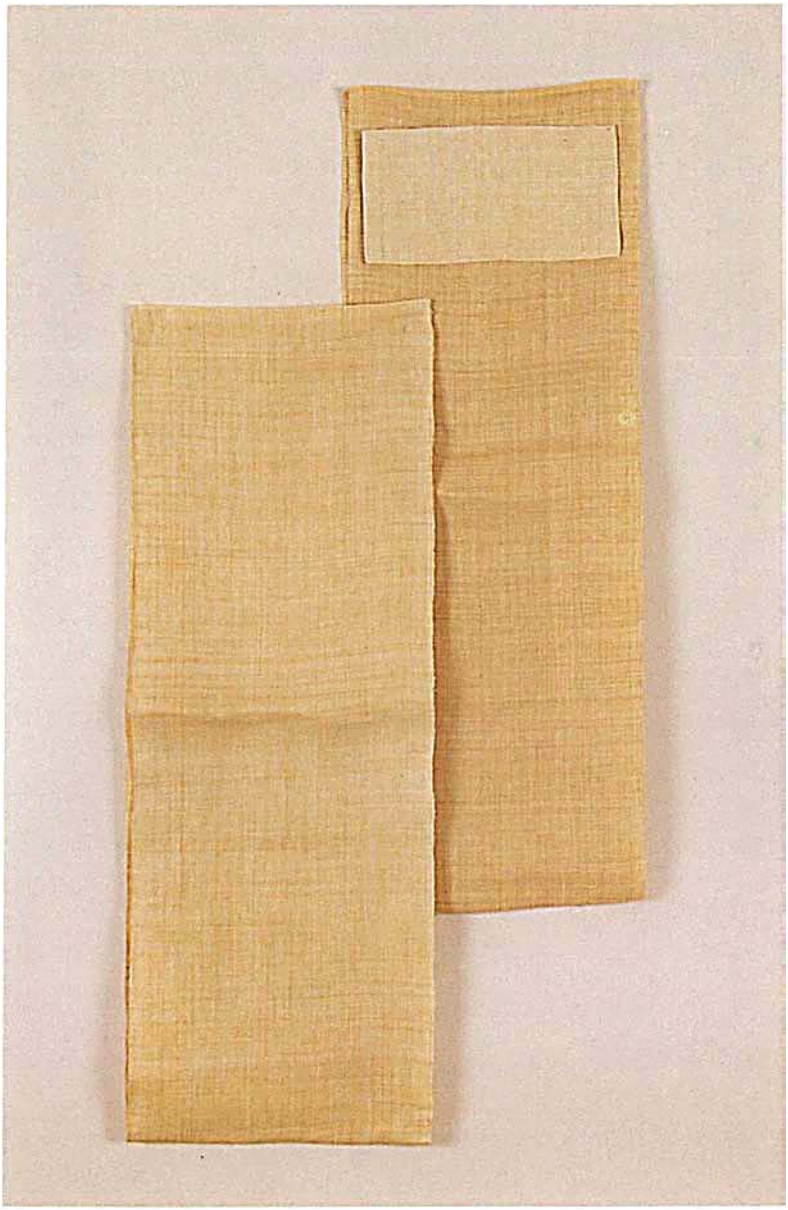


사진 239. 천금 · 지요 · 베개

(7) 과두(裹肚)

염할 때 시신의 배를 싸는 것이다. 남자 것은 길이 자 세치·너비 폭 반, 여자는 길이 자 두치·너비 자 한치가 필요하다. 베가 넉넉하면 겹으로 접어서 하고, 베가 모자라면 홑으로도 한다. 네 귀에 끈을 다는데, 끈 길이는 자 여섯치(80cm)쯤 너비는 한치(5cm)이다.



사진 240. 과두와 행전

(8) 멱목(幎目)[7]

소렴할 때 시신의 얼굴을 싸는 보다. 검은 빛에 남색 안을 받쳐 겹으로 짓고 네 귀에 끈을 단다. 겹으로 지을 때는 흰색으로 한다. 남자 것은 길이 일곱치 두푼(36cm)·너비 여섯치(30cm), 여자는 일곱치 한 푼(35.5cm)·너비 다섯치 너푼(27cm)의 옷감이 필요하다. 멱목에 다는 끈 중에서 남자 것은 긴 끈은 여덟치 닷푼(42.5cm)·짧은 끈은 일곱치 여섯푼(38cm) 길이에 너비가 너푼(2cm)이고, 여자 것은 여덟치(40cm) 길이로 아래 턱쪽에 2개·위로 이마쪽에 2개가 있다.

(9) 악수(幄手)

손을 싸는 것으로, 면목과 악수는 베를 안으로 명주를 겉으로 하여 짓는다. 인조로 할 때는 안팎을 같이 겹으로 짓는다. 크기를 보면 남자 것은 길이 여덟치(40cm)·너비 여섯치(30cm)에, 끈이 다섯치(25cm) 쯤이 든다. 여자용은 길이 일곱치 두푼(36cm)에 너비는 남자 것보다 조금 작게 하며, 끈은 네치(20cm) 정도의 크기다. 남녀 모두 한쪽 손에 2개씩 끈이 달려 있다.

7) 멱모(幎冒), 면모(面帽)라고도 한다.



사진 241. 멱목(巾)과 악수

(10) 버선

남자용 버선 치수는 총길이 일곱치(35cm)·발길이 다섯치(25cm;코밑에서 뒤꿈치까지)·앞볼 두치 닷푼(12.5cm)·버선목 세치 두푼(16cm)·윗목 네치(20cm)이다. 여자 버선은 베로 안팎 석자 분량으로 버선 길이는 베 폭대로 여섯치(30cm)이고, 총길이 일곱치(35cm)·코밑에서 뒤꿈치까지 발길이는 다섯치 서푼(26.5cm)·앞볼 두치 여섯푼(13cm)·버선목 세치 너푼(17cm)·윗목 네치 두푼(21cm)이다. 수의용 버선은 신길 때 편하도록 크게 겹으로 짓으며, 겹버선은 갖은 서로 뒤집는다.

(11) 오랑(五囊)

겉감과 같은 감으로 무색 비단이나 베로 한자 분량이 필요하다. 치수는 사방 두치(10cm)이다. 종이에 머리카락, 왼 손톱, 바른 손톱, 왼 발톱, 오른 발톱을 각각 싸서 저마다 작은 다섯 개의 주머니에 넣는다.

(12) 신

명주나 비단으로 겉을 하고 안에는 베를 댄다. 옷감은 석자 정도가 필요하며, 치수는 남자 것은 길이 일곱치(35cm)·폭 두치 너푼(12cm), 여자 것은 길이 다섯치 너푼(27cm)이다.



사진 242. 오랑 · 습신 · 버선

2) 남자 수의(壽衣)[8]

(1) 속고의 · 적삼

고의의 치수는 길이 두자 두치에서 두자 네치(110cm~120cm), 마루 폭 다섯치 두푼(26cm)이며, 홑으로 지을 때는 바지보다 작게 만든다. 만든 후에는 뒤집어서 솔기가 직접 살에 닿지 않게 바지 속에 끼워 입힌다.

적삼은 홑으로 짓는다. 저고리 보다 길이 여섯푼(3cm) 짧게, 품은 서푼(1.5cm) 작게 한다. 적삼의 부리 다섯치 너푼(27cm)에 베 또는 명주 폭(35cm)으로 9개의 주름을 잡은 여덟치(40cm) 길이의 한삼을 댄다. 이때 저고리 밑너비는 여섯푼(3cm)쯤 경사지게 만든다.

(2) 겹바지 · 겹저고리

60자(60척)의 옷감이 든다. 바지[9]를 마름질할 때는 마루폭 길이 석자(150cm)보다 일곱치에서 여덟치(35~40cm) 더 길게 마름질하고, 큰 사폭을 마른 다음 돌려서 작은 사폭을 마른다. 베로 지을 때는 베폭이 35cm로 56cm의 마루폭을 마름질하기에 좁기 때문에, 네치(20cm)너비의 태를 댄다. 3.6인치 인조 폭(90cm)으로 할 경우는 마루폭 너비 자 한치 두푼(56cm)과 길이 석자(150cm)로 안팎을 같이 마름질하여 잘라 네겹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폭 33cm와 190cm 길이는 네겹으로 하여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마름질하여 바지를 짓는다.

---

8) 수의는 대체로 산 사람 옷보다 품도 좀 넓게 하고 네치~여섯치 길게 한다.
9) 바지 치수 : ① 길이 150~160cm, ② 밑길이 50~55cm, ③ 마루폭 28cm, ④ 부리 32~33cm, ⑤ ¼허리 32~33cm, ⑥ 바지통 45cm, ⑦ 가마기머리 14cm, ⑧ 허리끈 150cm

저고리[10]는 어깨솔기가 없으며, 등솔은 가늘게 박아 가른다. 수의의 저고리는 안섶과 겉섶을 바꾸어 달고 솔기도 등솔을 밑에서부터 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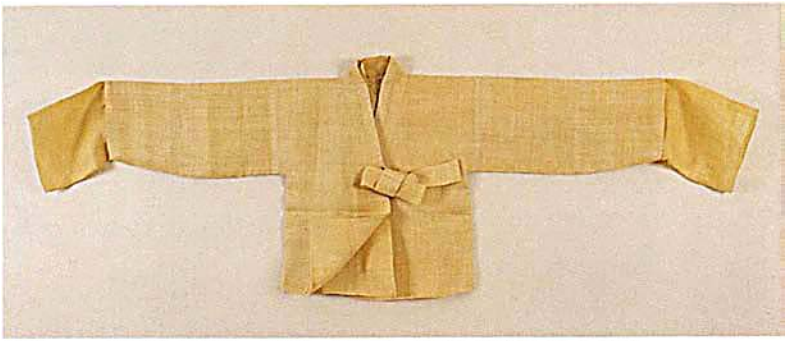


사진 243. 입히기 편하게 속적삼 · 저고리 · 한삼 소매를 꺼 놓았다.



사진 244. 속바지 · 바지 · 허리띠 · 대님을 꺼 놓았다.

10) 치수 : ① 등길이 완성 치수 75cm(1자 반+시접), ② ¼품 30cm, ③ 진동 35cm, ④ 화장 90cm, ⑤ 수구 28cm, ⑥ 겉섶 10cm(위) · 14cm(아래), ⑦ 안섶 너비 5cm · 12cm, ⑧ 깃 8cm · 길이 35+고대+45cm, ⑨ 고대 12~12.5cm

(3) 겹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무가 있기 때문에 품이 저고리 품과 비슷해도 괜찮다.[11]



사진 245. 두루마기

11) 50자(50척)의 옷감이 필요하다. 베 또는 명주를 기준으로 할 때 치수 : ① 길이 150~160cm, ② ¼품은 베 한폭에서 무를 붙일 부분만 조금 남기고 품으로 다 한다 (30cm 넘게), ③ 진동 35~40cm, ④ 화장 95cm, ⑤ 수구 30cm, ⑥ 무 아래 너비23cm,⑦ 겉섶 12cm(위)·18cm(아래), ⑧ 안섶 7cm·14cm, ⑨ 깃 너비 10cm, ⑩ 고대 저고리 고대보다 0.5cm 짧게, ⑪ 고름 8cm×60cm, 8cm×65cm

(4) 도포(道袍) 또는 학창의(鶴氅衣)

수의의 포(袍) 종류는 도포·심의(深衣)·학창의 중에서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도포를 많이 한다. 심의나 학창의는 흑색 선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한 도포를 주로 하는 것이다. 도포는 대개 폭이 넓은 4.4인치 비단을 선택하여 옥색으로 짓는다. 옷감 분량은 도포를 지을 때는 마흔 다섯자, 학창의는 서른 다섯자 정도 필요하다.

베 또는 손으로 짠 명주로 도포를 지을 때는 먼저 폭은 베 네폭(한 폭=35~32cm)으로 길이는 석자 여덟치(190cm)로 잡고, 품은 여섯치(30cm) 이상 되게 소매가 달릴 수 있는 시접 정도만 두리를 남겨 두고 진동· 두리·품을 잡는다. 그리고 35cm 베 폭에서 섶단을 할 수 있는 7cm 정도로 잘라내고 작은 무 2장을 마름질한다. 큰 무는 두길을 잡아서 폭에서 두치(10cm)를 사선으로 자르고, 홍두깨무는 두길을 잡아서 폭에서 두치(10cm) 자른다.

안섶은 섶단을 갖은 서에서 여섯푼(3cm) 정도 좁게 넣고, 겉섶은 섶단을 따로 한치(5cm) 정도 붙인다. 베 한폭으로 두치 여섯푼(13cm) 정도 어긋나게 마름질해서 겉섶과 안섶을 마름질한다. 소매를 마름질할 때는 두리 길이 만큼 소매 길이를 정하고 화장은 두자 세치 여섯푼(118cm)을 베 두폭으로 다한다. 수구단은 두리 길이는 자 한치 여섯푼(58cm)에서 너비 한치(5cm)·길이 여덟치(40cm) 단을 꺾어서 만든다.

12) 도포를 짓는데 필요한 치수는 다음과 같다.
① 길이 170cm로 마름질해서 완성 치수는 160cm, ② 품 33cm - 베로 할 때는 진동을 붙일 수 있는 시접만 남기고 두리를 마름질한다, ③ 진동 35cm, ④ 두리 길이 58cm, ⑤ 화장 수구 단 시접을 포함해서 118cm, ⑥ 고대 12.5cm (두루마기와 같다), ⑦ 깃 너비 11.5cm·길이 41cm+고대+41cm+10cm, ⑧ 수구 32cm·수구단 40cm×5cm, ⑨ 겉섶15cm(위)·25cm(아래)·섶단은 따로 5cm, ⑩ 안섶 17cm(위)·27cm(아래)·섶단 4.5cm, ⑪ 큰 무 15cm(위)·38cm(아래), ⑫ 작은 무 2.5cm(위)·25cm(아래), ⑬ 홍두깨무 25cm, ⑭ 등반이(진동까지) 35+10(앞길 쪽으로)+등품, ⑮ 띠 9cm×3자, 고름 9cm×65cm·9cm×75cm

폭 90cm인 인조로 도포를 지을 때는 90cm 폭을 ½로 접고 길이 170cm를 길 두개로 잡아서 등솔 한치(5cm)·품 여섯치(30cm) 이상·두리 58cm×10cm·진동 일곱치(35cm)로 마름질한다. 무는 90cm 폭을 ½ 등분해서 길이 진동에서 한치(5cm) 올라간 길의 길이로 마름질해서, 45cm 폭에서 한치(5cm) 만큼 잘라내고 큰 무·작은 무를 각각 2장씩 만든다.



사진 246. 도포



사진 247. 학창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248. 복건

(5) 허리 띠

길이 석자 일곱치(185cm) · 너비 한치 서푼(6.5cm), 또는 길이 자 세치(65cm) · 너비 여섯푼(3cm)으로 해서 화 뒤집는다.

(6) 행전(行纏)

행전은 도포를 입을 때 다리에 착용하는 것으로, 보통 무명이나 베로 만든다. 길이는 여섯치(30cm) · 너비 네치 서푼(21.5cm)으로 한다. 끈은 홑 끈이며, 끈 길이는 한자(50cm) · 너비 닷푼(2.5cm)으로, 행전의 위쪽인 신었을 때 무릎 아래 양쪽에 단다.

(7) 복건(襆巾)

길이 자 가웃(75cm) · 너비 일곱치(35cm)로 하고, 이마에 주름 잡고 주름 아래 일곱치(35cm)에 끈을 양쪽으로 단다. 끈 길이는 긴 끈 자 여섯치(80cm), 짧은 끈 자 네치(70cm)이다.

(8) 현훈(玄纁)

숙고사나 양단을 이용해 청홍색으로 지어 동심결 띠를 맨다. 옷감 분량 44인치 일곱치(35cm)씩이 필요하다.

3) 여자 수의(壽衣)

(1) 베 속적삼(홑 것)[13]

속적삼은 대부분 베로 지으며, 속저고리보다 조금 작게 만든다. 속적삼은 앞품을 조금 넓게 해서 도투락깃(맞깃)을 달며, 저고리처럼 섶을 놓고 하여도 좋다. 한삼에는 주름을 7개 잡아서 떼고, 저고리의 안과 적삼의 안을 마주해서 고대에서 징궈 놓는다.

(2) 저고리 삼작

분홍 속저고리·노랑 삼회장저고리·연두 회장저고리(소매에 거들지를 시친다)를 저고리 삼작이라고 한다. 크기는 연두 회장저고리를 가장 크게[14], 다음으로 노랑 삼회장저고리를 조금 작게, 분홍 속저고리는 가장 작게 만든다. 입힐 때는 분홍 속저고리에 연두 회장저고리만 입히고 나머지는 보공(補空)[15]으로 넣기도 한다.

---

13) 치수 : ① 길이 47cm, ② 품 52.5cm, ③ 화장 저고리보다 닷푼 짧게(82.5cm), ④ 진동 27cm, ⑤ 수구 22.5cm, ⑥ 한삼 명주 한폭에 속적삼 수구보다 10cm쯤 크게 잡는다.

14) 연두 회장저고리 치수

앞품	일곱치(35cm)	고대	네치(20cm)
화장	자 여섯치(80cm)	뒤품	자 한치(55cm)
길이	자 닷푼(52.5cm)	수구	네치(205cm)
진동	여섯치(30cm)	거들지	너비 - 한치(5cm)
* 거들지는 흰 명주에 백지를 받쳐서 수구에 덧시친다.			

15) 보공(補空)이란 시체를 넣은 관의 빈틈을 메우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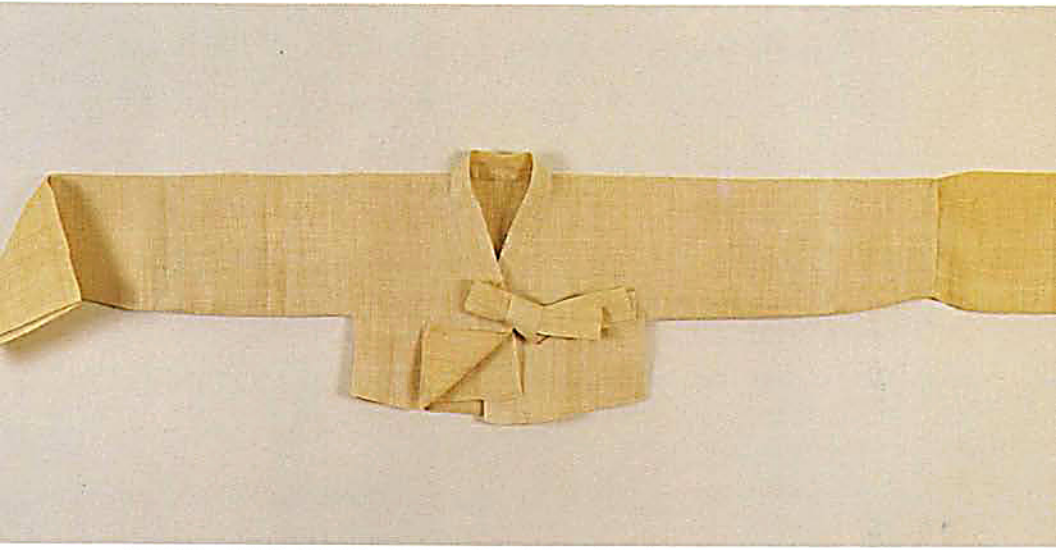


사진 249. 속적삼 · 저고리 · 한삼 소매를 하나로 꺼 놓았다.

(3) 겹치마

옷감은 명주와 베 다섯폭이 필요하며, 베로 할 경우에는 명주로 안을 받친다. 44인치 폭으로 길이 두자 여섯치(130cm)로 하여 겹으로 만든다. 두폭에서 좀 떼어 낸다. 치마허리는 길이 두자(1m)·너비 세치 두푼(16cm)·끈 길이 두자(100cm)×너비 한치 여섯푼(8cm)이며, 뒤로 여민다. 치마의주름은 13개 또는 11개 잡는다.



사진 250. 단속곳·속바지·치마

(4) 원삼

여자 수의의 포는 두루마기나 원삼으로 하는데, 두루마기의 경우 소매를 두리소매로 한다. 원삼을 베로 지을 때는 안팎을 모두 베로 하고, 비단으로 만들 때는 겉은 양단·안은 명주로 지으며 안감에 남색 선을 대고 겹으로 만들어 뒤집는다. 이때 갖은 서가 등솔이 되게 하고, 소매를 붙일 수 있게 두리는 좁게 남겨 두고 등솔에서 화장을 네폭으로 정한다. 그러면 품 한폭, 소매 두폭, 한삼 한폭이 필요하다.

명주로 지을 경우 필요한 옷감의 분량은 연두색 길 44인치 네마 반·명주와 베 서른 여섯자, 색동은 마 반 길이에 노랑색 두치(10cm) 길이·다홍색 두치(10cm) 길이가 두동 있어야 한다. 만약 활옷으로 할 경우에는 색동은 노랑·다홍·남색을 쓴다. 또한 흑색 당의도 있으며, 베와 명주를 물들이거나 민색으로 하는 수도 있다.

치수를 보면, 뒷길이 석자 네치(170cm)·앞길이 두자 여섯치(130cm)로, 앞길이는 뒷자락으로 앞에 겹쳐 접기 때문에 뒷길이가 더 길다. 진동은 여섯치 여섯푼(33cm), 화장은 한삼을 제외하고 두자에서 두자 한치(100~105cm), 품은 자 한치 닷푼(57.5cm), 고대는 네치(20cm), 깃은 다섯치 두푼(26cm)+고대+한치 두푼(6cm), 한삼은 베 한폭이 필요하고, 봉대 띠는 한치 일곱푼(8.5cm)×석자 두치(160cm), 두리는 두치(10cm)×자 여섯치(80cm)이다.



사진 251. 안동포로 만든 원삼



사진 252. 염색한 명주로 만든 원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 속속곳(홑 것)

단속곳을 짓는 방법과 같으나 크기를 작게 만든다. 보통 길이를 바지 길이보다 짧게 두자(100cm)로 하지만, 한자 여덟치(80cm) 정도로 짧게 지어도 무관하다. 품은 인조 한폭씩 좌우 각 다리품으로 하고, 베로 지을 때는 두폭(70cm)의 품에 반폭의 품을 떼고 밑을 만들어 대기도 한다. 뒤를 터놓기 때문에 앞쪽에만 밑[16]을 대고 뒤쪽은 5cm쯤만 올려 놓고 뒤밑은 달지 않고 뒤를 그냥 터서 입히기 쉽게 한다.[17] 주름은 복판을 중심으로 안으로 향해 양쪽으로 셋씩 잡는다. 속속곳과 바지는 따로 주름을 잡아 한 허리에 단다.



사진 253. 속속곳

16) 밑은 길이 자 세치(65cm) · 너비 두치 너푼(12cm)으로 하여 위는 반쯤 해서는 점점 좁힌다. 허리 치수는 길이 두자(1m) · 너비 세치 두푼(16cm)이다.
17) 산 사람은 치마를 왼쪽으로 여미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튼다.

(6) 겹바지

겹바지는 밑을 달아 산사람과는 반대로, 바라보아 왼쪽이 위로 가게 여민다. 속속곳과 겹바지를 겨서 한 허리에 단다. 주름은 9개를 잡되 왼쪽은 앞뒤 둘씩 4개, 바른쪽은 앞에 둘, 뒤에 셋으로 하여 5개를 잡는다. 산사람은 옆으로 트나 돌아가신 양반 것은 뒤로 터서 입히기 쉽게 한다.

마름질할 때는 길이 두자 네치(120cm)×2·폭 자 여덟치(90cm)를 연결하여 바지 부리를 잇지 않게 겹이 되게 한다. 이것을 2개 만들어 좌우가 되게 한다. 너비는 베 두폭에 반의 반폭씩 태를 대고 밑을 달고, 바지 부리 너비는 다섯치(25cm)이다. 밑은 한폭으로 위는 좁게 두치 너푼(12cm)·아래는 넓게 세치 여섯푼(8cm)으로 어긋매겨 뜨고, 길이는 자 두치(60cm)로 한다. 허리는 길이 자 아홉치 닷푼(97.5cm)·너비 세치 두푼(16cm)·끈 길이는 긴 끈과 짧은 끈이 거의 같은 길이로 두자(1m) 정도 한다.

(7) 너른 바지

길이는 두자 가웃(125cm)으로 하고, 너비는 베 세폭 반에 앞에만 밑을 달고 뒤로 겹쳐 접고 뒤는 터놓는다. 밑은 너비 자 네치(70cm)·길이 두치 너푼(12cm)의 크기로 한다. 바지 허리는 길이 두자(1m)·너비 세치 두푼(16cm)이고, 허리끈 길이는 짧은 끈이 자 가웃(75cm)·긴 끈은 두자(1m)이다. 바지 부리는 베 세폭 반을 둘로 나눈 것으로, 약 자 두치(60cm)가 필요하다. 주름은 앞에 셋씩 양쪽에 여섯개를 마주잡고, 뒤는 두개·세개를 잡아 총 11개를 짝이 안 맞게 잡는다.

(8) 무지기·대슘

여자 혼례복을 참고한다.

(9) 여모

머리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겹으로, 안팎이 두마 반이 필요하다. 겉은 검정 혹은 자주 공단, 안은 빨강 혹은 남색 공단으로 한다. 안과 밖이 뒤바뀔 수도 있다. 치수는 길이 아홉치(45cm)·너비 여덟치(40cm)이고, 끈은 다섯치(25cm)씩 두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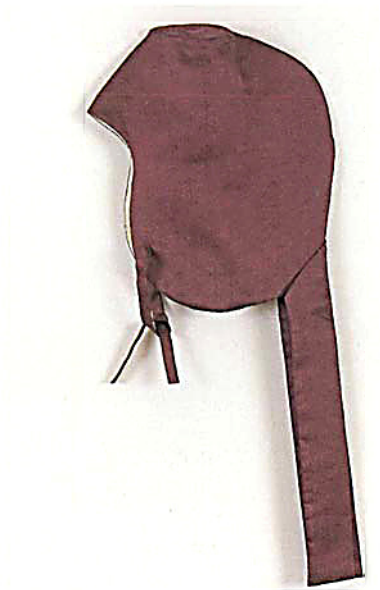


사진 254. 여모

4. 남자 박이옷

1) 적삼

모시 · 베 · 안동포 · 생모시 · 항라 등을 열자 분량으로 준비한다. 치수는 길이 자 세치(65cm), 뒤품 자 한치(55cm) · 앞품 일곱치(35cm), 화장자 가웃(75cm), 진동 다섯치 너푼(27cm), 수구 네치(20cm), 고대는 네치 너푼(22cm)이다. 깃 길이는 앞깃은 여섯치 두푼(31cm) · 안깃 일곱치 두푼(36cm)이며, 앞깃(겉깃) 너비는 한치 너푼(7cm) · 안깃 너비는 일곱치 여덟푼(39cm)이다.

겉섶 길이는 길보다 세치 작게(50cm) 하고, 겉섶의 너비는 위 한치 일곱푼(8.5cm) · 아래 두치 두푼(11cm)이며, 안섶은 길이 여섯치(30cm) · 아래 너비 한치 여섯푼(8cm) · 윗너비 여덟푼(4cm)이다. 고대는 네치(20cm)이고, 등바대의 길이는 어깨 척수와 같고 너비는 두치(10cm)이다.

마름질은 길이 자 세치(65cm)에 시접 세푼(1.5cm)을 보태어 4개의 길을 잡아 뗀다. 길에다 왼폭 동을 대고 다시 끝동으로 ⅔폭을 더대어 마른다. 깃은 길이 자 여덟치(90cm)에 안팎의 시접 너푼(2cm)을 보탠 길이에 안팎 깃(14cm)에 너푼 시접을 넣어 마른다.

섶을 마르는데 앞섶은 길이 여섯치 너푼(32cm)에 한치(5cm) 시접을 넣어 마르고, 안섶은 길이 여섯치(30cm) · 섶 윗너비는 여섯푼 넉넉히(3.2cm) · 섶 아랫너비는 한치 닷푼(6.5cm) 길이에 시접 한치(5cm) 너비에 시접 여섯푼(3cm)을 넣어 마른다. 고름은 긴 고름이 자 여섯치(80cm)에 시접 너푼(2cm), 짧은 고름은 자 네치(70cm)에 시접 너푼(2cm), 너비는 한치 두푼(6cm)에 시접 서푼(1.5cm)을 넣어 마른다.

먼저 등솔을 박는다. 등바대는 반을 접어 앞으로 여덟푼(4cm), 뒤로 한치 두푼을 등께로 넘어가게 한다. 등바대 갓은 한번 접어 박고, 너불거리는 것을 싹 베어 버리고 다시 접어 박는다. 앞에 넘어오는 등바대는 길에 대고 박고, 뒤로 넘어가는 쪽은 가운데 등솔에 징그고 양쪽은 동에 대어 붙여 박는다.

다음에 동을 붙인다. 끝동 끝소맷부리는 두푼(1cm) 너비로 하는데, 먼저 갓을 접어 한번 박고 다시 접어 박는다. 곁도애(곁바대)는 길이 두치(10cm)·너비 한치 너푼(7cm)으로 길과 동을 붙이는 겨드랑이 밑에 다는데, 소매쪽으로 서푼(1.5cm)·길쪽으로 한치 한푼(5.5cm)쯤 닿게 단다. 한번 접어 박고 베어 낸 다음 다시 접어 단다.

그리고 앞섶을 붙인다. 고대 끝에서 여섯푼(3cm) 나와 그 직선상에 단만, 섶끝은 약간 내어 어슬게 사선으로 단다. 안섶은 등솔에 바로 단다.

배래는 소매 부리로부터 길 옆선을 내쳐 박는데, 이때 추어지기도 한다. 한번 박은 것을 접어서 바로 솔기 위를 한번 더 박고, 시접 너불거리는 것을 베어 버리고 다시 한번 접어서 더 박으면 된다. 박을 때는 겨드랑이를 약간 둥글려 박아야 한다.

소맷부리 박는 법과 같이 도련을 박는다. 겨드랑이에서 옆선은 앞·뒷길에서 아래 여섯푼(3cm)을 올리고 앞섶 끝에서 옆선 여섯푼 올린 데까지 민틋하게 후려 간다. 도련은 우선 한번 추은 다음 박는다. 그리고 겉섶과 앞섶도 함께 박는다.

안깃과·겉깃은 한데 붙어 있다. 등솔에 고대 중심을 맞추되, 두푼(1cm)은 낮추어 대고 시친다. 앞깃을 앞섶에 자연스럽게 앉혀 대고 붙인다. 안깃도 안섶에 자연스럽게 앉혀 대고 붙인다. 붙인 깃을 젖혀서 호거나 박는다. 도로 젖혀 고대로 인두질하여, 갖은 서는 꺾지 않

고 푸서는 꺾어서 껴 박고, 깃 위는 튼다. 너불대는 시접을 베어 버리고 뒤집고, 창구멍은 양쪽으로 접어 넣고 박는다.

옷고름을 접어 뒤집어 다려서 단다. 긴 고름은 달기 전에 약간만 후려 깃과 섶 한가운데 시접을 너불거리지 않게 접어 넣고 달고, 짧은 고름은 고대에서 한치(5cm)쯤 내어 바로 내려 바늘로 죽 긋는다. 안자락과 겉자락을 잘 맞추어 곁고름(짧은 고름) 달 위치를 긴 고름과 알맞게 바늘로 그어, 가로 세로 어긋 매기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단다.

깃 달고 고름 단 뒤에 동정을 단다. 나들이옷에는 항라 동정을 달고, 집에서 입는 옷에는 제감으로 박아 단다. 박아 달 때 식서가 겉으로 접어 넣는 쪽에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동정 너비는 깃 너비의 반 조금 못되게 한다. 항라 동정에는 백지를 시쳐 단다.



사진 255. 적삼

2) 고의

적삼과 같은 감으로 열자 준비한다. 치수는 마루폭의 길이가 허리 밑으로 두자 두치(110cm)·너비는 반쪽이 네치(20cm)이고, 허리는 길이 두자 두치(110cm)·너비 네치(20cm)이다. 큰 사폭은 마루폭 길이보다 두치(10cm) 올려 마르고, 작은 사폭은 큰 사폭과 밑배래 길이는 같고 바지 길이는 마루폭의 ⅔이다. 바지 부리의 너비는 다섯치(25cm)이다.

마름질할 때 큰 사폭은 마루폭보다 두치(10cm) 올려 마른다. 모시 한 폭을 석자(150cm)를 더하여 작은 사폭·큰 사폭을 엇뜬다. 큰 사폭은 제폭에서 서푼(1.5cm)을 시접으로 접어 두치쯤 위로 남기고, 시접 서푼을 남긴 데로 향하여 사선으로 접는다. 큰 사폭을 시접만큼 들어가서 가위로 벤다. 큰 사폭에서 작은 사폭을 떼어낼 때에는 아래로 일곱치(35cm)를 길게 해야 작은 사폭이 나온다. 허리는 길이 두자 두치(110cm)에 양쪽에 시접 1cm씩 너푼(2cm)·너비 네치(20cm)에 양쪽에 시접 너푼(2cm)씩 여덟푼(4cm)을 넣고 마른다.

옷을 지을 때는 우선 작은 사폭을 큰 사폭에 붙이는데, 큰 사폭의 밑쪽 곧은 솔에 작은 사폭의 어슨 솔을 붙인다. 두 가랑이를 똑같이 맞추어 한번 그냥 박고, 꺾어서 뒷선만 베어 버린다. 박은 금대로 꺾어서 다시 한번 더 박고, 시접을 베어낸 뒤 박은 솔기를 거죽(겉)에서 눌러 밑솔기부터 박는다.

이렇게 사폭에 작은 사폭을 대고, 밑과 가랑이를 다 한 다음 마루폭을 붙인다. 갖은 서끼리는 한번만 박으면 되지만, 푸서끼리 박을 때나 푸서와 갖은 서를 박을 때는 세번 박는다. 바지 부리인 아랫단을 한다. 바지 부리는 다섯치(25cm), 부리단 너비는 서푼(1.5cm)이다. 그리고 허리를 단다. 허리의 이음매와 앞 왼쪽의 마루폭과 사폭의 이음매가 한 선이 되도록 한다. 그래야 바지를 입고 허리를 여미었을 때 이음매가 여미는 속에 들어가 씻은 듯하다.



사진 256. 고의



사진 256-① 모시로 할 경우 폭이 좁으므로 태를 댄다.



사진 256-② 고의 가랑이

3) 박이 겹저고리

저고리와 같은 분량의 옥양목을 준비하며, 마름질은 화서 짓는 겹저고리와 같다. 바느질 방법도 화 짓는 겹저고리와 같되, 다만 소매 부리·배래·도련의 시접을 얕얕이 베어내고 뒤집어서 소매 부리·도련을 뺄 때 내밀지 않도록 박아 준다.

4) 모시 깨끼 겹저고리

모시로 할 경우 적삼의 두배 분량이 필요하며, 저고리 마름질과 같되 어깨 시접이 없고 안팎을 같게 마른다. 마름질이 끝나면 우선 도련 배래 등 곡선을 홑으로 선대로 박아 준다. 이것을 '추운다'고 한다. 그리고 양쪽 등솔을 가늘게 한데 박고, 박은 솔이 위로 오게 접는다. 박은 솔 바로 밑으로 다시 박아야 솔기가 가늘다.

5. 여자 속옷

1) 들보

들보는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으로, 옷감은 무명이나 베·모시를 쓰고 밑에는 늘 베를 댄다. 분량은 무명 석자 가웃(175cm)이다.

마름질은 무명 자 가웃을 허리통에 맞추어 마른다. 들보의 길이는 자 두치(60cm)인데 시접은 안쪽에 얼러 너푼(2cm)이다.

지을 때는 무명을 식서[17]가 안으로 들어가게 세쪽으로 접는다. 허리는 자 아홉치(90cm)인데 뚱뚱한 사람은 두자(100cm)나 두자 한치(105cm)로 하고, 너비는 두치(10cm)로 속옷이라 넓다. 끈은 긴 끈이 두자 한치 두푼(106cm)·작은 끈이 자 가웃(75cm)이고, 끈 너비는 한치 너푼(7cm)이며 모두 홑끈으로 한다. 맨 살에 입는 것이라 푸서는 한번 접어서 박고, 솔기가 두드러져 살에 배기면 아프니까 얌전히 잘라서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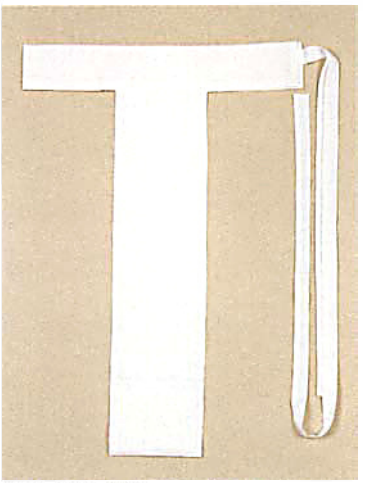


사진 257. 들보

17) 갖은 서로, 베지지 않은 곳으로 푸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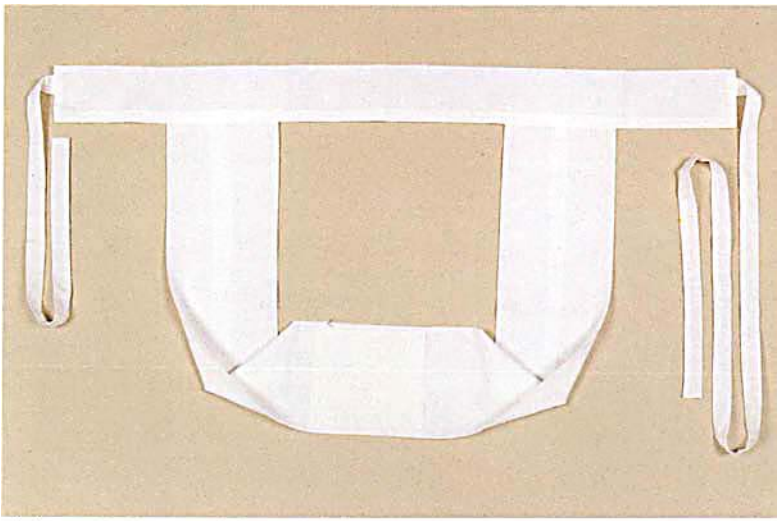


사진 257-① 들보를 펼쳐 놓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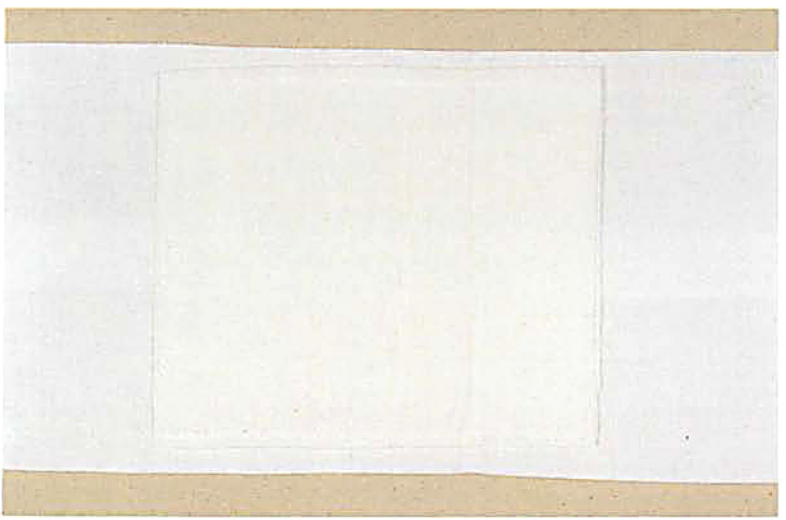


사진 257-② 들보의 밑

2) 속속곳

무명이나 여름에는 베를 쓰고, 분량은 두자를 준비한다. 허리는 보통 두자 길이를 하나, 자기 품에 맞춘다. 끈은 두자 길이로 하여 긴 끈은 두자(1m), 짧은 끈은 한치쯤 짧게 자 아홉치(90cm)로 한다.

원등걸[19] 4폭을 마름질할 때 두폭은 각각 양쪽에 붙인다. 다만 반폭에서 밑 아랫너비를 접은 채 한치 두푼(6cm)에 시접 두푼(1cm)을 보태고, 허리쪽 너비는 후려서 너푼(2cm) 되게 어슬게 마른다. 쪽쪽이 솔기가 없도록 접은 채 마른다. 허리는 대체로 두자(1m)이나, 뚱뚱한 사람은 두자 두치(110cm) 크기로 한다. 끈은 허리에서 나오므로 하나는 좀 짧게 한다. 홑끈에는 1/4쯤 바대를 붙인다.

바느질은 가운데 두폭을 먼저 붙이는데, 한쪽이 푸서이면 꺾어 식서에 대고 박아 갈라서 다시 눌러 박는다. 가랑이 폭에 바대를 댄다. 바대의 넓이는 베폭의 반(세치;15cm)쯤 하고, 바대의 길이는 감이 되는 대로 네치(20cm)나 다섯치(25cm)쯤을 댄다. 원래 두폭에 밑을 한치 두푼(6cm)으로 가랑이쪽에 대고, 좁은 쪽(너푼;2cm)을 허리쪽에 댄다. 바대는 먼저 반폭에 접어 넣고 박는다. 바대 박은 반쯤 위에 양쪽 가랑이에 접은 것(밑)을 펴서 댄다. 넓은 쪽은 밑으로, 좁은 쪽은 허리로 댄다. 똑같은 것을 대칭형으로 만들어 댄다.

푸서들은 다 각각 접어 넣고 한번 박고, 양쪽은 한데 합쳐 접어서 다시 박고 다시 눌러 박는다. 이렇게 두번 눌러 박는 것을 '솔 올린다'고 한다. 솔 올리기는 밑 반까지만 하고 밑 아래 반은 남긴다.

밑 아래 1/2은 밑 안에 바대를 덧대고 한쪽은 먼저 박고, 다른 한쪽은 바대 속에다 다 접어 똘똘 뭉쳐 박아서 빼어 낸다. 밑 앉히기가 까다로워 "속곳 밑 앉힐 줄 몰라야 팔자가 좋다"는 속담이 전하기

19) 바지통을 가리킨다.

도 한다. 밑달기가 끝나면 다른 두폭들을 양쪽으로 댄다.

양쪽에 끈을 다는데 안쪽은 허리 꼭대기까지 치켜서, 바깥쪽 끈은 두푼(1cm)쯤 내려 허리에 넣어 먼저 껴 박는다. 허리를 달 때 앞에 양쪽 넷씩 마주잡고 뒤도 같이 널찍널찍 잡아 허리 시접 두푼(1cm)을 넣고, 주름은 너덧푼(2~2.5cm)쯤 허리로 들어가게 달아야 힘이 있다.

오른쪽에 아귀 다섯치(25cm)를 탄다. 바대는 한치(5cm)에 아래 양쪽으로 시접 한푼 가운데 튼 데를 앝이 양쪽으로 박아 뒤집어 단을 접어 길에 붙여 박고 가운데에 괴불을 단다. 대소변은 가랑이로 본다.



사진 258. 밑 앉히기①



사진 259. 밑 앉히기②



사진 260. 밑 앉히기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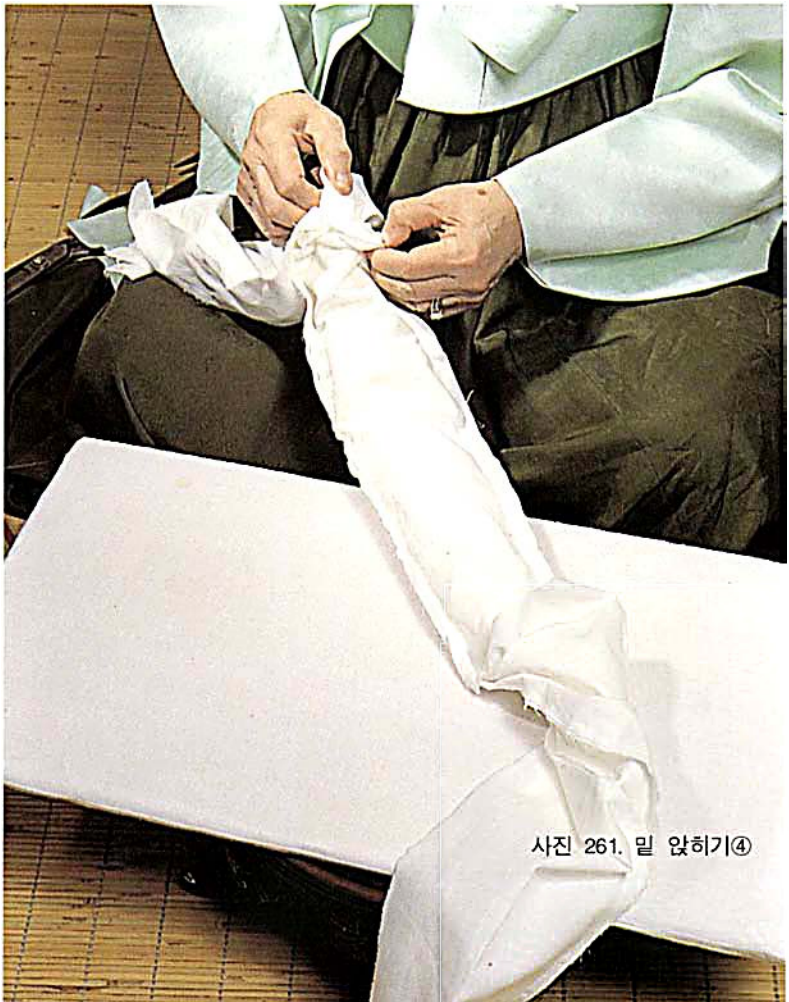


사진 261. 밑 앉히기④



사진 262. 속속곳



사진 263. 생모시 속속곳

3) 바지

여자 속바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여름에는 홑바지인 고쟁이를 입고, 봄·가을에는 누비 바지를 입었으며, 늦봄에는 겹바지나 중등겹바지를, 겨울엔 솜바지를 입었다. 그 외에도 가랑이를 단 속옷(속곳)과 너른 바지 등이 있다.

(1) 고쟁이

여름에 입는 홑바지이다. 고급으로 입을 때는 늘 겹바지나 중등겹바지를 입었다. 베·무명·모시로 14자면 허리감 두자까지 된다. 이때 허리는 끈까지 길이 두자·너비 두치(10cm)이고, 홑끈은 긴 것 두자(100cm)·짧은 것이 자 아홉치(95cm)이다.

마름질할 때는 두자씩(100cm) 4폭을 먼저 마르는데, 뚱뚱한 사람은 반폭의 태를 대어 치우쳐 가랑이를 베기도 한다. 한폭을 같은 길이로 잡아 반으로 접어 엇떠서 양쪽 밑을 만든다. 밑의 아래쪽은 세치 여섯푼(18cm)쯤 하고 위쪽은 두치 너푼(12cm) 골지게 반으로 접어 엇떠서 마른다. 허리와 끈은 치수대로 하되 시접 두푼(13cm)을 보태어 마른다.

옷을 지을 때는 가운데 두폭을 먼저 붙이는데, 식서끼리 붙여 박고 몰아서 꺾는다. 가랑이는 부리 네치 서푼(21.5cm)을 단으로 먼저 박고, 가랑이 위를 배래 솔기를 솔 올리기로 박는다. 푸서를 각각 한번 접어 넣고 박고, 마주 대고 접어 다시 박고 다시 접어 눌러 박는다.

밑달기는 어슨 솔을 곧은 솔에 대어 한번 박고 갈라서 다시 눌러서 박는다. 골로 접어 막힌 쪽의 넓은 밑이 여밀 때 겉자락이 되게 왼쪽에 단다. 왼쪽에 아귀를 튼다. 아귀는 약 네치(20cm) 또는 네치 닷푼(20.5cm)을 튼다. 덧대는 헝겊은 너푼(2cm)쯤 내려오게 서푼(1.5cm) 너비로 말라서 반으로 나누어 아귀에 대고 박고, 아래에는 살짝 가위집을 내고 혹 찢어질세라 너비 여섯푼(3cm)으로 사방을 괴불처럼 어슬게 접

어 아귀 끝에 댄다. 양쪽 밑이 포개지게 끼고, 주름을 앞뒤로 다 마주 셋씩 잡는다. 허리를 만들어 끈을 양쪽에 달아 긴 끈을 돌려서 맨다. 홑끈에는 바대를 대어야 힘이 있고 튼튼하다.



사진 264. 고쟁이

(2) 다리 고쟁이

다리 고쟁이란 고쟁이와 거의 같으나 주름이 올 자리에 양쪽으로 셋씩 앞뒤 얼러 12개의 기둥을 달아 공간을 만들어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 보자는 슬기로 만든 옷이다.

베나 모시로 허리까지 열네자 준비하며, 허리는 끈까지 길이 두자·너비 두치(10cm)이고, 홑끈은 긴 것이 두자(100cm)·짧은 것이 자 아홉치(95cm)이다.

단 시접 일곱푼(3.5cm)을 접어 넣고, 가랑이 길이 자 한치 여섯푼(58cm)을 잡는다. 모시 폭으로는 한쪽 가랑이가 두폭하고 칠홉이 든다. 전체로 모시 네폭에 칠홉 폭이 둘이 든다. 기둥 너비 한치 두푼(6cm)에 양쪽으로 두푼(1cm)씩 시접을 넣어 12개를 마른다.

밑을 다는데 밑이 박힌 밑이 왼쪽 겉밑이라 위로 포개지게 한다. 그리고 다리를 달고, 아귀를 트고 바대를 댄다. 길이는 다섯치(25cm), 바대는 여섯푼(3cm)을 너푼씩 갈라 박고 넘겨서 단을 하고 찢어지지 않게 괴불을 대고, 허리를 단다. 바느질은 폭을 박고 아랫단을 박아 고쟁이 배래를 박는다.

(3) 누비 바지

중등누비바지는 아래만 한자(50cm)~여섯치(30cm)쯤 누벼서 위는 명주를 겹쳐 누빈 것과 겨박아 뒤집으면 위는 겹이고 아래만 누비 바지가 된다. 이것을 중등누비바지라 한다. 옷감은 명주와 무명으로 안팎 스물네자로 준비해 겹바지 마르듯이 마른다.

바지 모양을 펴서 솜을 두되, 허리쪽을 더 얇게 두어 가랑이만 후리고 밑은 달지 않고 올을 뽑아 골대로 누빈다. 누빈 다음 밑을 달고, 배래는 어슨 솔 너비 여섯푼(3cm)의 헝겊을 대어 꾸미고, 부리도 역시 꾸민다. 허리와 끈은 겹바지와 같다.

명주 안팎으로 누빌 때 위는 솜을 더 얇게 두고 누비 너비도 2개를 3개 되게 굵게 한다. 올을 뽑을 때 누비 중등바지인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올을 뽑다가 바늘로 가로 그어 놓은 곳을 한올 뽑아 표시를 하고, 거기서 올이 끊어지게 해야 윗부분 넓은 누비에 헛올이 뽑히지 않는다.

솜은 얇게 돗자리에 옷감이 비칠 정도로 얇게 반을 지어 얇게 고르게 펴서 홍두깨로 말아서 밟아 둔다. 요즈음은 솜 반장 명주로 안팎을 하거나 무명에 명주를 안으로 받치기도 하고, 무명 안팎으로 솜없이 누벼도 된다.

누비 너비는 얌전하게 하려면 두푼(1cm) 너비로 하고, 잔누비는 한푼(0.5cm)이고 · 전반 누비는 너푼(2cm) 너비로 누빈다. 누비기는 골골이 올을 뽑아 누비되, 쥘대를 잡아 말아가며 누빈다.

(4) 겹바지

바지 겉감으로 명주 · 상동주, 안감으로 고운 무명을 각각 두자를 준비한다. 여기서 허리는 끈까지 길이 두자 · 너비 두치(10cm)로 잡고, 끈은 접어서 뒤집는데 긴 끈은 두자(100cm) · 짧은 끈은 자 아홉치(95cm) 크기로 한다.

마름질은 두자(100cm)씩 네폭을 잡고 또 한폭은 같은 길이로 잡아 반으로 접어 엇떠서 양쪽 밑을 오려 낸다. 이때 뚱뚱한 사람은 반폭의 태를 대어 넓게 한다. 밑은 자 한치(55cm) · 길이 두폭을 잡아 엇뜬다. 밑 아래 너비는 접어서 한치 두푼(6cm)에 시접 두푼(1cm)을 더하고, 허리쪽 너비는 후려서 너푼 되게 마른다. 접은 채 마름질해야 밑에 솔기가 없어 입을 때 부드럽다. 허리와 끈은 치수대로 하되 시접을 두푼(1cm)쯤 하여 마른다. 안팎을 똑같이 마른다.

그리고 가운데 두폭을 먼저 붙인다. 원래 폭 두폭에 밑 한치 두푼

(6cm)을 가랑이에 대고 좁은 쪽을 허리쪽에 대어 꿰맨다. 안쪽도 겉처럼 말라 겉과 같이 꿰매어 밑을 댄 안팎을 맞추어 꿰맨다. 안을 바깥으로 뒤집어 껴서 꿰매어 잡아당겨 빼낸다. 바지 부리 맨 나중에 맞춘다. 44인치인 경우에는 안팎을 곱질러 마르므로 배래만 베어 내고 밑을 달면 된다. 속속곳의 경우처럼 허리를 단다. 바지 양 가랑이를 밑이 여며지게 껴서 주름은 마주보게 양쪽으로 셋씩 앞뒤로 잡아 허리를 달면 된다.

(5) 중등겹바지

홑바지인 고쟁이에 무릎 위까지 명주나 항라 갑사 등으로 배래를 똑같이 만들어 아예 만들 때 껴서 박은 것을 말한다. 행여나 종아리가 비칠세라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덧대는 치수는 한자(50cm)이나, 감이 넉넉지 못하면 여섯치(30cm)만 덧대어도 된다. 마름질은 고쟁이 가랑이 배래와 같이 하여 마르고, 바느질할 때 껴 박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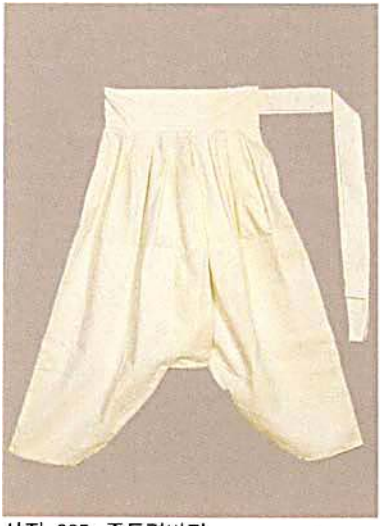


사진 265. 중등겹바지



사진 265-① 행여나 종아리가 비칠까 하는 염려에서 무릎 아래를 겹으로 만들었다.

(6) 솜바지

명주와 무명·삼팔 등의 옷감을 스물네자 준비하는데, 허리 감은 끈까지 두자면 되고 대개 무명을 쓴다. 마름질은 겹바지와 같다.

바느질 역시 겹바지와 같되, 안팎을 껴 뒤집기 전에 바깥쪽 안에 솜을 두는데, 허리쪽은 더 얇게 두어 뒤집는다. 뒤집은 후에 맞주름을 셋씩 앞뒤로 잡아 허리를 단다. 부리와 양쪽 밑을 단 곳에도 시치미를 뜬다. 살짝 한 올씩은 걸리되 실밥이 늘어지지 않게 스며 뜬다.



사진 266. 솜바지

(7) 가랑이 단 속옷

명주·삼팔·숙고사·진주사를 한두 자 준비해, 허리감은 두자·44인치로 두폭, 일곱자(350cm) 밑은 반폭, 길이 두자(100cm)로 하는데 키가 큰 사람은 두자 두치(110cm) 크기로 한다.

마름질은 44인치 두자(100cm) 길이로 세폭을 떼어, 두폭은 따로 떼고 나머지 한폭은 반폭을 따로 떼어 밑으로 한다. 밑은 길이 자 세치(65cm)를 반으로 접어 윗너비는 여섯푼(3cm) 정도로 하고 나머지를 다 아래 너비로 한다. 밑바대는 길이 네치(20cm), 너비 두치(10cm)짜리 밑바대를 대고 그 위로 밑을 댄다. 허리와 끈은 다 같다.

짓는 법은 작은 폭에 바대를 달고, 바대를 댄 원몸에 양쪽 밑을 홑으로 각각 시쳐 꿰맨다. 밑바대에 다시 단을 한 밑을 덧대어 가랑이 한쪽만 먼저 박고 한쪽 가랑이에다 몰아 넣고 껴 박아 뒤집어 뺀다. 밑 위쪽은 솔 올리어 튼튼하게 한다. 폭을 밑단 폭에 대어 박고 주름잡아 허리를 달고, 왼쪽에 아귀를 트기는 고쟁이와 같다.



사진 267. 가랑이 단 속옷

(8) 너른 바지

가랑이 단속곳과 같되 폭이 더 넓고 밑은 사방 한치(5cm) 정도로 시늉만 댄다. 옷감은 명주·숙고사·삼팔, 44인치로 네마 혹은 명주 열여섯자에 허리감 두자면 된다. 두자 길이로 한쪽에 네폭씩 명주 여덟폭을 마르고, 밑은 시접 두푼 포함해 사방 한치(5cm)를 떼어 낸다.

바느질법은 가랑이단 속곳과 같되 밑은 시늉만 단다. 맞주름을 넓게 양쪽에 4씩 앞뒤로 16개를 허리에 맞추어 잡고, 허리를 단다. 너른 바지나 가랑이단 속곳은 대소변을 가랑이로 볼 수 있다.



사진 268. 너른 바지

Ⅲ. 우리 옷 입기

1. 우리 옷의 특징

우리 옷의 아름다움은 곧은 선과 은은히 흐르는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너그럽고 유연한 선의 흐름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한복의 선의 흐름은 한옥집 추녀와 같은 저고리의 배래선과, 넘실거리는 물결과 같은 도련의 곡선, 그리고 칼날같이 예리한 동정의 직선, 섶과 도련의 만남에서 생긴 독특한 섶코의 조화 등으로 상큼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또한 치마의 주름선은 불규칙하면서도 반복되는 듯한 율동적인 변화의 선으로 저고리의 단아한 미(美)가 치마폭의 풍성한 리듬감에 싸여 더욱 돋보이게 한다.

그런데 옷은 우선 몸에 맞고 계절에 어울려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흐르는 멋이 항상 있어야 한다. 아낙네의 옷이 그저 펑퍼짐해 아무런 맵시가 없어서는 더구나 안된다. 우리 옷에는 저고리와 치마의 비율이 7 : 3으로, 두루마기 밖으로 내어 비치는 치마며 치맛단 아래로 아른거리며 신 위에 보이는 버선 등이 우선 그 빛의 조화로 우리를 매료시킨다.

저고리만 해도 옥색 저고리에 자주 깃·남색 끝동·자주 고름 색조의 아름다움에 흰 동정의 결곡한 아름다움이 목선 위에 맵시를 돋운다. 게다가 드리워진 고름의 아름다움, 도련의 선, 배래의 선 등이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 흰 동정, 남색 끝동, 자주 깃·고름 등은 옷 가운데 가장 손이 자주 닿고 스쳐서 더러움이 잘 타는 곳이다. 거기에 실용적인 짙은 빛을 쓰고, 끝동은 제감 제빛을 안으로 아주 검치기도 하여 더러움을 막았다. 그리고 동정을 갈아 시쳐 옷의 깨끗함을 보존하는 동시에 배색의 미(美)로 그 실용성을 더욱 승화시켰다. 소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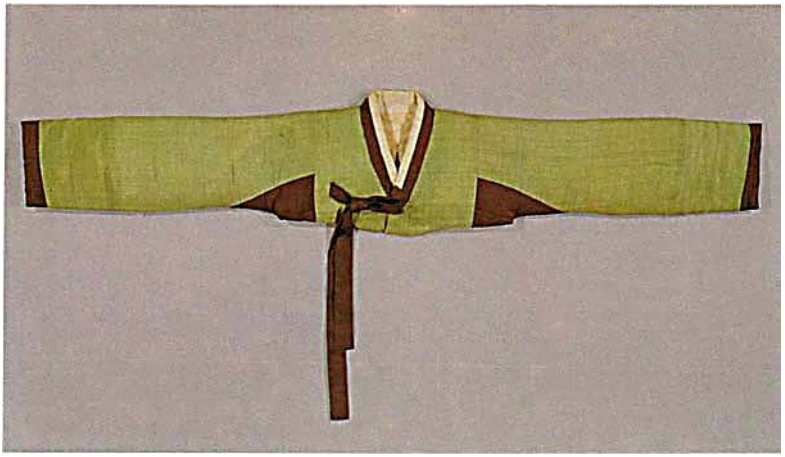


사진 269. 1890~1910년경의 저고리, 숙대 박물관 소장

거들지를 시쳤던 것도 깃에 동정을 달아 갈아 시침과 같은 이유로, 이때의 배색은 두루 주머니나 귀주머니의 배색(配色)과도 같다. 이는 물론 실용성에서 나와 그 맺음을 아름다운 빛으로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단일 민족의 청렴결백함과 전통성을 고수하는 우리 옷의 배색은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색채의 조화를 나타낸 것이다.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 관계를 보면 노랑 저고리에 다홍 치마, 노랑 저고리에 남색치마 등 음(陰)과 양(陽)·남(男)과 여(女)·생(生)과 성장(成長)의 관계등 인생의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배색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옷에 사용되는 문양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주의 형상을 담고 있기도 하다. 자주 쓰이는 문양의 종류로는 운문(雲文)·수파문(水波文)·산악문(山岳文) 등 자연문, 모란문·연화문·사군자문·포도문 등 식물 문양, 학문(鶴文)·사슴문·박쥐문(蝙蝠文) 등의 동물문이 있고, 상상적인 문양으로는 용문(龍文)·봉황문(鳳凰文)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양을 넣은 옷감을 이용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시대부터 여자들의 길쌈을 통해 명주·무명·마직 등 직조 기술이 발달하여 재질과 문양에서 그 품위와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분되었기 때문에 시간·장소·목적에 따라 적절한 옷감을 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사진 270. 미인도, 작가미상, 1825년경,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 저고리의 단아한 미가 치마폭의 풍성한 리듬감에 싸여 더욱 돋보인다.

2. 남녀 옷 입기

남자는 제일 먼저 밑에 짧은 홑으로 만든 속속곳을 입고, 왼쪽 마루폭과 큰사폭 위를 접어 주름지게 하여 바지를 입는다. 바지를 입을 때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 대님 치는 일이다. 올바른 바지 대님 치는 법은 바지 솔기를 중심으로 잡아 밖으로 복숭아뼈쪽으로 붙이고, 대님을 한번 올라 매어 매기는 반대편으로 안쪽에서 앞을 향해 매는 것이다.

그리고 속적삼 · 저고리와 그 위에 조끼 · 마고자 · 두루마기를 입는데, 예전에는 두루마기 대신 소창의를 입기도 했다. 다음에 속버선을 신고 겉버선을 신는데, 버선 수눅은 꺾은 솔기가 오른쪽으로 높은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높은 쪽이 왼쪽이다. 머리에는 망건과 탕건을 쓰거나, 벼슬에 따라 관(冠)을 썼다.



사진 271. 소창의, 조선 후기, 단국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여자들의 옷은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이 매우 많기 때문에 남자들의 옷에 비해 복잡하다. 이로 인해 활동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속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옷의 맵시가 살아나고 아름답다.

우선 아래 입는 옷을 보면, 제일 속에 지금의 팬티격인 들보를 입고 속속곳과 속바지를 입는다. 속바지는 계절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 여름에는 홑바지인 고쟁이, 봄과 가을에는 누비바지·누비중등바지, 늦봄은 겹바지,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솜바지를 입었다.

다음에는 가랑이 단속곳·너른바지를 입고, 속치마인 대슘과 그 위에 치마를 풍성하게 만드는 무지기를 입은 후에 겉치마를 입는다. 속속곳·속바지·너른 바지는 모두 오른쪽으로 여미었으므로, 겉치마는 왼쪽으로 여민다. 한쪽으로만 다 여미게 되면 입은 맵시도 보기 사납고 한쪽 겨드랑이쪽만 투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선을 신는다. 이때 홑 속버선은 수눅을 왼쪽과 오른쪽을 반대로 신고, 그 위에 솜을 넣은 겉버선을 바로 신어야 맵시가 난다. 양쪽을 다 안쪽으로 약간 돌아오게 신어야 버선을 신은 맵시가 역시 곱다.

웃옷을 입을 때는 속적삼을 먼저 입고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는다. 예전에는 두루마기 대신 장옷을 쓰기도 했으며, 대궐에 들어갈 때나 어른을 뵈올 때 손이 보이지 않게 저고리 위에 당의를 입기도 했다. 두루마기 위에 두루마기와 같은 명주나 삼팔로 만든 제빛 목도리를 두르면 격조가 높다. 머리에는 아얌이나 조바위를 쓰는데, 아마도 두루마기 입으면서부터 조바위를 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젊은 색시는 나들이에 낭자 족두리를 쓰기도 했다.



사진 272. 조바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3. 치마·저고리의 배색

근래의 우리 옷은 거의 같은 빛깔의 감으로 치마·저고리를 하기 때문에 그 배색(配色)이 엉망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옷을 해 입을 때는 오행(五行)에 의한 오색(五色)을 고려해서 배색을 했다. 오행에 따르면 동방목청(東方木靑)·남방화적(南方火赤)·서방금백(西方金白)·북방수흑(北方水黑)·중앙토황(中央土黃)라 하여, 동쪽은 청색·남쪽은 붉은색·서쪽은 흰색·북쪽은 검정·중앙은 노란색 등 다섯 방위를 색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전의 우리네 옷은 거의가 다른 빛으로 조화를 부렸다.



사진 273. 오방 색동 - 전통 한복은 오행(五行)에 의한 오색(五色)을 고려해 배색을 했다.

가령 다홍치마에는 연두 온회장저고리·노랑 반회장저고리·옥색 반회장저고리·옥색 회장저고리, 남색 치마에는 노랑 삼회장저고리·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끝동과 맨드라미 자주 고름·옥색 반회장저고리, 갈매치마를 입을 때는 단오엔 진분홍 저고리·동지 때면 자주 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자주 치마에는 연두색 저고리와 옥색 저고리·흰 저고리에 자주색으로 배색한 반회장저고리나, 나이가 많으면 남색 끝동에 자주 고름의 저고리를 입었다. 또 은옥색 치마엔 순색 명주나 보풀명주 저고리를, 남색 치마에는 생빛 저고리를 입기도 했다.

모시옷의 경우 노인은 은옥색 치마에 흰모시 적삼·깨끼 겹저고리나 혹은 생모시 적삼을 입었으며, 젊은이는 파란 옥색 흰 모시 적삼·깨끼 쪽빛 치마를 입었다. 생모시는 옥색 모시치마와 곁들여 입을 뿐 상하 한벌로는 안 입었는데, 그것은 상제(喪制)의 베옷 빛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위스럽게 여겨서 였다.

치마의 안감 빛깔도 예전에는 다홍 치마에 연분홍 안감, 남색 치마에 어른은 파란 옥색·아이는 연두빛을, 파란 옥색 치마에는 연옥색 안감을 받쳐 입었다. 쪽빛을 엷게 들여 겉을 하고 안감은 옥색, 짙은 감안은 단속곳에 물든다고 엷은 빛을 흔히 받쳤다. 그리고 숙고사·갑사 등 사(紗;견직물)인 경우 남색 치마에 자주색 안감을 받쳐 양색이 들도록 하였지만, 흰색 안감이라야 무늬가 환히 살아서 가장 아름다운 안이 된다고 했다.

4. 명절빔

동지에는 넉넉하면 어른 옷도 지어 드리고 아이들 옷도 해 주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어른들께 적어도 버선은 꼭 지어 드렸는데, 동지에 첫 양기(陽氣)를 온몸에 받으시라는 뜻에서 였다. 동지빔으로 열대여섯살 여자는 갈매치마와 팥죽 저고리를 해 입었으며, 남자는 흰 바지에 옥색 저고리·자주 마고자·남빛 조끼를 입었다.

까치 설빔의 경우 여자는 분홍 치마·노랑 삼회장저고리, 남자는 흰 바지·보라 회색 바지·옥색 저고리·파란 옥색 조끼·남색 마고자를 입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설빔으로 여자는 다홍 치마와 연두길의 색동 저고리·검은 자주 모번단 오복수 당기에 드림 달고 아얌을 썼다. 남자는 보라 회색 바지나 양회색 바지·옥색 저고리·자주빛 마고자·비취색 조끼·월남 옥색 두루마기·전복·복건을 했다.

노인들은 한 달에 적어도 세 번은 옷을 갈아 입으시게 하므로, 까치 설빔은 따로 해 드리지 않더라도 설날에는 꼭 설빔을 해 드렸다. 새 옷감으로 명주 흰 바지에 명주 옥색 저고리·옥색 마고자를 해 드렸으며, 아주 노인이실 때는 바지 저고리를 모두 흰색으로 하고 마고자만은 잘못 드리면 채가 지므로 젖은 감에 잠방 담갔다가 건진 명주로 만든 당청아 은옥색으로 만들었다.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여자는 모시 다듬은 속치마와 같은 감으로 만든 분홍 치마에 흰색 모시 속적삼·생고사 노랑 회장저고리를 입고 검은 자주 갑사 당기를 했다. 남자는 모시 다듬은 흰 바지에 옥색 저고리 혹은 항라 바지와 옥색 저고리·옥색 관사·마고자· 숙고사나 항라로 만든 조끼, 그리고 항라 옥색 홑단 두루마기·안에 남빛을 댄 갑사 복건을 입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되면 여자는 숙항라 분홍색 모시 치마와 숙항라

노랑 삼회장저고리에 검은 자주 갑사 당기를, 남자는 안주 항라 흰색 바지에 옥색 저고리·숙고사 남색 조끼·모시 다듬은 겹두루마기 혹은 홑단 두루마기나 옥색 항라 겹두루마기를 입었다.

농사일과 추석은 관계가 가장 깊으므로 시골에서 더 크게 치렀다. 그리고 산소에서 차례를 지내므로 집안 애들보다는 특히 일하는 사람에게 관사 저고리라도 해 주었다.

어른들이 장수하여 환갑을 맞이하면 계절에 따라 조바위와 버선까지 옷감을 달리하여 옷을 지어 드렸다. 만약 환갑이 겨울에 들었다면 여자는 무명 속속곳·배 밑만 누비고 위는 명주 겹으로 만든 누비 중등 바지·명주 단속곳 등의 속옷을 해 드렸다. 그리고 숙수나 영초를 이용한 옥색 저고리나 흰색에 남색 끝동·자주 고름 저고리와 삼팔로 옥색 치마를 지어 드렸다. 정 추울 때는 안팎에 명주솜을 넣고 겉치마를 만들어 드리기도 했으며, 버선·주머니·남색 허리띠에 수를 놓아 드렸다.

남자 노인은 삼팔로 지은 흰색 바지에 은옥색 저고리·회색 혹은 엷은 밤색의 모초(용체)문 마고자·옥색 또는 장빛이나 남빛의 토시·부시 쌈지·마고자와 빛깔이 같은 주머니·행전·대님 등을 갖추어 해 드렸다.



사진 274.
남녀 노인 토시

5. 수의(壽衣) 입히는 법

수의를 입히는 순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다만 입히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옷을 한데 껴서 준비해 놓는 것이 다를 뿐이다. 수의 입히는 순서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 입히는 방법>

	남 자	비고	여 자	비 고
1	속고의를 껴 놓은 바지, 허리띠, 대님, 버선, 행전		속적삼	한데 껴서 입는다.
2	속적삼 낀 저고리		분홍 속저고리	
3	버선		노랑 회장저고리	안 입히고 위에 얹는다.
4	겹두루마기		연두 겉마기	
5	도포 또는 학창의나 심의(深衣)		속속곳	한데 껴 허리를 단다.
6	면모(멱목)		겹바지	
7	악수		너른 바지	각각 주름잡되 허리는 한데 껴 단다.
8	복건		치마	
9	과두		원삼	
10	소렴금		악수	
11	대렴금		여모(女帽)	
12	염포		멱목	
13	지요		과두	
14	천금		버선	
15			신	
16			소렴금	
17			대렴금	
18			염포	관 바닥에 깐다.
19			지요	시체를 싸서 모신 뒤 천금으로 덮는다.
20			천금	

Ⅳ. 침선장 정정완

1. 침선장 보유자 정정완(鄭貞婉)의 한평생

정정완은 계축년(癸丑年;1913) 음력 9월 초엿새에 아버지 위당 정인보(鄭寅普)와 어머니 성계숙(成癸淑) 사이의 맏딸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예로부터 글 좋아하는 선비 집안으로 위로 할아버지·양할머니 경주 이씨와, 생할머니 달성 서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래로 7남매의 형제가 있었다.

아래로 동생을 칠남매나 둔 맏딸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를 도와 여러 동생들을 보살피고 키우기에 큰 몫을 하였다. 특히 바느질과 수놓기에 남다른 취미와 손재주가 있던 정정완은 여섯 살 때부터 바늘을 잡고 바느질을 하였다. 바느질을 배울 때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본(本)을 오려 주면서 익히도록 했으나, 그는 손재주가 있어 스스로 가위질을 하고 마름질해 가면서 익혔다고 한다.

그리고 눈썰미가 있어 쓱 보면 무엇이나 만들곤 했는데, 남의 집 아이가 두른 턱받기·앞치마·타래버선 하나도 눈여겨 보아 동생들에게 풀꽃 수라도 놓아서 해 입히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를 않았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상해로 갔다가 기미년(己未年;1919)에 돌아오셨다. 때문에 어려서 학문은 당숙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후 열세살에 서울의 진명여학원(進明女學院)에 입학했다. 그러나 열일곱이 되던 해에 광평대군댁 이희종(李喜鍾)의 외아들 이규일(李揆一)과 혼인하면서, 학교 다니는 며느리는 싫다는 시댁의 반대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남편 이씨는 광산 김씨(光山金氏)를 어머니로, 열둘을 낳아 모두 앞세우고 겨우 하나 남긴 딸 다음에 끝으로 난 외아들이었다. 시댁은 규모의 놀랍게 큰 집안으로 광에는 쾟돈이 서리 서리 있었고, 인삼이며 곡식이 그들먹하였다고 한다. 그러기에 을축년(乙丑年;1925)에 큰 홍수가 졌을 때, 광문을 열어 근방 동네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비록 외아들에 외딸밖에 없는 시댁이었지만, 딸린 식솔은 언제나 열대여섯명이 넘었다. 6촌 시동생·8촌 시동생·8촌 시누이… 등 시골에서 올라와 먹고 자며 학교에 다니는 친척이 늘 많았다. 이들을 뒷바라지하여 먹이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빨래며 다림질 등 의복치닥거리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시부모님을 모시니 그 옷수발도 만만치 않았다. 사랑 어른의 옷은 감히 잴 수가 없어 슬쩍 먼발치로 그저 한번 스쳐보고 눈이 저울이라고 눈대중으로 옷을 지어 드렸는데 지은 옷은 유건에서 토시 버선까지 무엇하나 안 맞는 것이 없이 순편하고 점잖고 품위가 있었다. 그리고 두벌만 있어도 벗어 주고 당신은 갈아입을 것이 없을 정도였으니, 저녁에 벗으신 옷을 밤을 도와 만져 날이 새면 입으시게 하느라고 마음과 손이 겅중겅중하였다고 한다.

빨아 다듬어 다시 짓기를 거퍼 하다 보면 저고리 하나가 해어져 더는 못 입게 될 때까지 몇 번을 고쳐지는 바람에 바느질 솜씨가 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그는 술회한다. 친정에서 8남매가 북새치며 자라면서 양할머니·생할머니·어머니 슬하에서 익힌 솜씨가 시댁에 가서 두 시어른과 여러 친척 시동생·시누 뒷바라지에, 또한 자신이 낳은 9남매의 뒷바라지에 솜씨는 절로 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8.15 광복과 잇달아 터진 1950년의 한국 전쟁·1951년 1.4후퇴로 정정완의 집안에도 갖은 어려움이 연거푸 닥치게 되었다. 당시에는 재봉틀 하나에 온 식구의 생계가 달려 있었다. 고운 기생 옷으로부터 온 집



사진 2-1. 김선장 조정원의 근래 모습

안 대소가 어른·애 옷이며, 아이들 교복·운동복·모자·잠옷·베개까지 그가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슬하의 9남매를 공부시켜 대학까지 보내느라 그 손은 쉬는 날이 없었다.



사진 276. 젊은 시절 정정완

사회가 안정되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도 주목을 받게 되어,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針線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정 당시 정정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속으로 간직하는 것을 미덕(美德)으로 지니고 살아 왔기에, 또한 장인(匠人)이란 최고의 기능 보유자이면서 동시에 천하게 여겨 온 통념때문에 지정받는 것을 망설였다. 그러나 가족들의 설득과 우리 옷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그의 나이 일흔 여섯으로, 이것은 정정완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바느질이야 언제나 해 온 것이지만, 침선장 지정을 계기로 의욕적으로 후진 양성에 뛰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딸이나 며느리를 데리고 바느질이나 하다가 대학 강사·교수를 비롯하



사진 277. 지정 당시 만든 여자 수의 일습,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여 의류직물학과에서 전통 한복을 연구하는 대학원 학생들 등 젊은 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990년부터는 국립민속박물관 공예관에서 강의를 시작으로 전통공예건축학교 침선방의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그것만으로 미진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에서도 가르쳤다. 그리고 1995년 성균관대학교 가정대학원에서 '전통 복식 구성' 강의를 비롯해 각 대학 박사과정의 실기 지도도 했다. 그리고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여 1985년에는 일본 오사카 민족학박물관(日本大阪民族學博物館)의 의뢰로 모시도포를 지어 보내기도 했고, 1986년 8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에서 의뢰한 명주 도포를 지었으며, 198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정대학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도포)을 지도하였다.

지정 이후에는 1989년 5월 중요무형문화재 전시회에 남녀 혼례복 일습(원삼·활옷·다홍 스란치마·연두 회장저고리·당의·마고자·무지기

등의 여자 속옷·관복·도포·바지·저고리·조끼)을 출품한 이래 매년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출품작은 당의류(녹색·분홍·모시옷·자주색 당의)·앵삼(여름·겨울용)·남자 모시옷 일습(박이저고리·바지·두루마기)·홍철릭·청철릭·동달이·모시 조각보·명주 도포 등 다양하다.

한편 1990년 12월 19일~1991년 1월 21일까지 전통공예관에서 '정정완(鄭貞婉) 우리옷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어 수의 일습(一襲)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 옷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1993년 5월 1일 지역사회개발상록회로부터 제8회 인간 상록수로 추대되었다.



사진 278. 1993년 5월 1일 지역사회개발상록회로부터 제8회 인간 상록수로 추대되었다.

같은 해에 일본 고베시(神戶市) 패션미술관(FASHION美術館)의 의뢰를 받아 혼례복 일습 110여 종(신랑·신부 별복·원삼·속옷·스란치마·저고리·비단신·바지·저고리·마고자·조끼·도포·목포화·수모·겨시·집사옷 일체와 신랑·신부의 일체 장식품·전안상 일체 등)을 제작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7년 4월에는 패션박물관의 개관식에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강의와 옷짓기에 바쁜 와중에도 정정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며느리와 딸 혹은 젊은 제자와 같이 박물관이나 발굴터로 복식 유물을 직접 보러 다니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만질 수 없는 유물(遺物)을 유심히 보고 와서는, 눈대중으로 한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옷도 지어 보는 것이다. 그것은 발굴된 시신에 입힌 옷빛의 아름다움, 그 곡선의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옷의 아름다움에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여든의 고개를 훨씬 넘은 연세이지만, 유물에 대한 사월 줄 모르는 관심 때문에 아직도 웬만한 유물 전시회에는 제자들을 붙들고 나서기를 꺼리지 않는다.

현재 정정완은 외부 강의는 하지 않고 집으로 틈틈히 찾아오는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高齡)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옷짓는 방법이나 치수를 제시해 주위를 감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름아름 알려진 사람들로부터 의뢰받은 혼례복이나 수의를 제작하면서 아직까지 바늘을 놓지 않고 있으니, 선생의 연세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진 279. 정정완은 여든이 넘은 고령이지만 아직까지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2. 정정완(鄭貞婉) 선생 바느질의 특징

정정완의 바느질은 꼼꼼하고 튼튼하며, 입어서 편안하고 점잖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선이 부드럽고 아름다와 인체 공학을 감안한 앞뒤 도련과 배래·버선 등 선의 미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남다르다. 또한 터지기 쉬운 아기 옷의 겨드랑이 등에 쌍밀이 단추를 맺어 앉히기도 하여 옷에 실용성과 장식의 미를 곁들였으며, 솔기가 곱다. 한 예로 모시나 은조사·깨끼옷의 솔기는 남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야무지고 실같이 가늘다.

그리고 끝동을 안까지 겹쳐 대어서 얇은 안의 버짐을 막고, 안에 때가 타기 쉬움도 막아 주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정을 달 때에도 항라·숙고사·공단 등을 한지(韓紙)에 배접하여 동정이 칼같은 느낌이 없이 부드럽고 차분하며 품위게 앉혀지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옷고름을 달 때도 시접을 안으로 접어 넣고 한번 꿰매고 다시 접어 박음질까지 하여 튼튼하고 너불거림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또한 정정완 바느질의 다른 점이다.

한편 정정완이 지은 옷을 보면 그 배색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단색으로 아래위 한벌을 해 입기도 하지만, 우리 전통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와 바지·마고자·조끼·토시·허리띠·대님까지도 배색을 신경써서 미감(美感)을 돋았다. 다홍 치마에 연두 저고리, 꽃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 등 상하의 배색을 맞추고, 깃·고름·끝동·회장·색동 또한 그 배색이 빼어나다. 이러한 전통 한복의 색감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의 옷은 천성적인 미의식에서 나온 듯 아름답다.

저고리나 당의에 흰색 거들지를 시쳐 연두빛·자주빛과 흰색 거들지의 어울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실용성을 겸하고 있으니, 동정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겹치마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홑치마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특히 숙고사·생고사 같은 겉감에 흰색 숙고사로 안을 받쳐 겉감의 무늬를 산뜻하게 살리는 것은 양색의 미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겠다.



사진 280. 1988년 만든 연두 회장저고리와 다홍 치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다홍 치마와 연두 저고리의 배색이 아름답다.

예전 아낙네들이 그랬듯이 정정완 역시 베·모시·비단·숙고사 어느 한 오라기 가윗밥 부스러기라도 버리는 일이 없다. 두었다가 쉬엄쉬엄 틈틈이 모시 조각보·베 보자기·상보·비단 조각보·조각보 방석·조각 이불 등을 모아 만들거나, 색동·설코·끝동·깃·안고름감으로 이용하여 그 알뜰함까지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사진 28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만든 연두 당의,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당의 끝동의 거들지가 정갈함을 더해 준다.

3. 침선장 전수 현황

정정완이 1988년 8월 1일 침선장으로 지정된 뒤, 1991년까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되어 전수받은 첫 전수생이자 제자는 맏며느리 구혜자와 넷째 딸 이현표였다. 이들이 침선에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된 것은 활옷·원삼·남자의 관복·심의(深衣)와 같은 큰 옷이나 수십 필씩 만져야 하는 수의(壽衣)를 마를 때마다 곁에서 도왔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991년~1993년 구혜자와 이현표는 장학생으로 지정되었고, 1993년~1995년 두 사람은 이수자로 지정받기에 이른다. 이후 1995년 7월 맏며느리인 구혜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전수교육 보조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구혜자는 서울시 전통공예 전수회관의 침선 공방을 운영하고, 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침선 강의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도와 전수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침선장 전수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전통 한복을 정식으로 배우고자 하는 가정주부·대학생·대학원생·이미 바느질을 업으로 삼은 사람 등 다양하다. 1998년 2월 현재 전수 교육 보조자 1명·전수 교육 이수자 13명·일반 전수생 1명이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되었으며, 그밖에 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해마다 약 20여 명이 강의를 받고 있다.

강의는 보통 전통공예건축학교 침선 교실에서 진행되지만 수업만으로 미진하거나 더 깊이 배우고 싶은 경우에는 집으로 찾아가서 보충수업을 받고 실습을 거듭한다.

공예관 교육과 집에서의 보충 수업을 통해, 전수자들은 갓난 아기 배꼽에 대는 쑥주머니로부터 배냇저고리·두렁이·백일옷·돌옷·설빔·동지빔·혼례복·환갑옷 그리고 마지막 갈 때 입는 먼 나들이옷 수의



사진 282. 제자들과 함께 한 정정완.

(壽衣)에 이르는 한국 복식 대강을 정정완에게 전수받고 있다. 혼례복만 하여도 신랑·신부·수모(지금의 미용사)·겨시(수모 보조자)·집사에 이르는 옷을 속옷부터 겉옷·버선·허리띠·다님·족두리·노리개·목화·마른신·봉대띠·당기 등등 모든 준비물 가짓수를 합치면 110여 가지나 되니, 이것으로 정정완으로부터 배우는 옷의가짓수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침선장 전수 현황 - 문화재관리국 지정>

연 도	이 름	지 정 내 용
1988년 8월 1일	정정완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針線匠) 인정
1988년~1991년	구혜자·이현표	전수생으로 등록
1991년~1993년 11월		전수 장학생으로 지정
1993년 12월~1995년		이수자로 지정
1993년 12월	김현숙·윤선미	전수 장학생으로 지정
	문영표·박영애	일반 전수생으로 지정
1994년 10월	김현숙·윤선미	이수자 등록
	권용옥·문영표	
	박영애·정여자	
	김명자·윤덕순	
	박혜자·이현표	
1995년 7월	구혜자	보조자로 교육 전수 지정
1995년	이옥호·조광복	전수 장학생으로 등록
	권기호·소주희	일반 전수생으로 지정
1997년	이옥호·조광복·권기호	이수자 등록
1998년 현재	전수 교육 보조자 1명, 이수자 13명, 일반 전수생 1명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법이다. 우리 옷의 아름다움도 얌전하고 슬기롭게 만들어진 속옷에서 비롯된다. 정정완이 전수하는 우리 옷 만드는 법 역시 그렇다.

다리 고쟁이·속고쟁이·속바지·너른바지·단속곳 등 철따라 다양한 속옷들은 여미는 데가 좌우가 어긋매겨 있어 입었을 때, 찹찹하게 맵시를 돋우게 된다. 주름도 중앙을 향하여 안쪽으로 맞잡게 하여 입은 맵시가 홑져 보이고, 허리끈 맨 것이 한곳으로 둥그러져 어깨가 거북할 걱정이 없다. 여름에는 모시나 안동포·고운 베로, 겨울에는 고운 무명이나 명주로 속옷을 지어 입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정말 멋쟁이는 비단 속옷·속치마에 무명 겉치마를 입는 법이라고 가르친다. 같은 비단으로 옷을 짓더라도 야하지 않고 우아한 빛으로 위 아래 배색을 맞추고, 거기에 어울리는 빛깔의 고름·깃·끝동 또는 회장을 달아야 한다. 치마와 저고리에 알맞고 나이에 어울리는 노리개를 차야 하며, 갖신이나 비단신·고무신이라도 역시 옷빛과 어울리는 빛을 가리는 슬기를 정정완은 귓뜸해 준다.



사진 28 바느질하는 정정완

우리 자연 염료로 물들인 우리 옷감으로 쑥주머니 배내옷으로 부터 먼 나들이 옷까지를 다 지어 바치고 가고 싶은 사월 줄 모르는 소원이 있다.

올해 여든 여섯인 정정완에게는 하나의 소원의 있다. 우리 나라 국립민속박물관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전통 한복을, 우리 자연 염료로 물들인 우리 옷감으로 쑥주머니 배내옷으로부터 먼 나들이옷까지 지어 바치고 가고 싶은 사월 줄 모르는 소원이 그것이다.

개화 이후 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의 바느질 풍속도 많이 달라졌다. 재봉틀의 등장으로 섬세한 손바느질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고, 한복 중심의 의생활도 양장화·기성복화 되면서 바느질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상도 변하게 되었다. 현재 바느질은 기계화·전문화되어 대중에게서 멀어져 가는 추세다. 우리의 전통 바느질법을 개발하여 좀더 과학화하고 발전·계승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사진 284. 제자들을 지도하며 함께 바느질하고 있는 정정완

CH'IM SŎN JA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89 *Ch'im Sŏn Jang*』 is an ethnography about *Chŏng Jŏng Wan*, a designated needleworker, and her life of traditional dress-making.

Our ancestors have upheld the value of propriety and believed that the beginning of propriety was in attiring oneself neatly. As a consequence, dress-marking became an essential virtue in women.

Traditionally, it has been the role of women to make clothes for the family. However, costumes for special occasions such as weddings were often made by a professional *Ch'im Sŏn Jang*, an artisan in needlework.

A *Ch'im Sŏn Jang* in those days has to be a designer, a cutter, a pattern maker and a tailor all in one. This demanded high skills and a natural sensibility in aesthetics and color.

In the 1900's, a great change cam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ewing machine, and traditional sewing techniques gave way to mass production by machines. While such shift stimulated skilled women in needlework to enter into the public sphere, it cut off the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sewing techniques.

The designation of *Chŏng Jŏng Wan* in 1988 as a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89 *Ch'im Sŏn Jang* was a hopeful change at a time when traditional needlework seemed to be the verge of extinction. *Chŏng Jŏng Wan* is now working to preserve the cultural legacy of making original Korean cos-

tumes. The traditional costumes she produces exhibit durability and meticulousness in the quality of sewing. They are also noted for natural and beautiful lines of Korean attire such as the front and back ***doryŏn*** (bottom edge of traditional jacket and coat), ***sŏnbi*** (classical scholar) family. Original Korean colors are also characteristic of ***Chŏng Jŏng Wan's hanboks*** (traditional Korean costumes), which are beautiful as well as practical. The methods she has learned will be passed down to her pupils and will be further developed.

기획

박상국(예능민속연구실장)

조사 · 정리

구혜자(침선장 전수 조교)
문영표(침선장 이수자)
정윤자(단국대학교 대학원)
최은수(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오윤경(예능민속연구실 연구원)

사진

서헌강(사진작가)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⑨

침 선 장(針 線 匠)

1998년 6월 초판 인쇄
1998년 6월 초판 발행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810-86822-57-9707

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집 예능민속연구실
인 쇄 (주)계문사

* 본 내용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 〈비매품〉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Series ⑨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89

CH'IM SŎN JANG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of Korea